밤에 혼자 길을 걷는 건 무섭다.

모르는 남자와 단둘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건 무섭다.

혼자 사는 집에 모르는 사람이 찾아오는 건 무섭다.

세상에 무서운 게 너무 많다.

나는 겁쟁이다. 늘 생각이 최악의 경우로 뻗는다.

나에겐 피해망상이 있다.

밤에 산책길을 걷다가 야구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자를 마주치면 순식간에 불길한 망상에 사로잡힌다.

마주친 남자가 칼을 꺼내 들고 달려드는...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단 한 번도 그런 적은 없다.

그런데도 나는 그 남자와 멀어질 때까지 끔찍한 망상을 멈출 수가 없다.

한 번은 이런 망상을 소설로 써 보고 싶었다. 모르는 남자한테 살해당하는 망상. 현실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너무 무서우니까 허구로 만들고 싶었던 것 같다.

그런데 소설이라고 해도 못생긴 남자한테 죽기는 또 싫었다.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예시가 틀린 것 같지만 그런 기분이었다.

그래서 악마 같이 잘생긴 남자를 살인자로 만들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피해자가 걸렸다. 나 말이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나는 소설 속에서라도 죽고 싶지 않았다. 찜찜하니까.

그래서 나를 대신할 가상의 여성을 만들기로 했다.

그런데 아무리 소설이라고 해도 죄 없는 여자가 살해당하는 건 싫었다. 피해자는 무슨 죄야?

기왕이면 죄 있는 사람을 죽이자. 그런 생각으로 피해자를 악인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쓴 첫 공포 소설이 대박 났다.

제목은 <끝나지 않는 밤.>

남편들을 살해하면서 재혼을 거듭해 온 여성 연쇄살인마가 주우금이라는 남자에게 역공당해 죽는 이야기였다.

주우금. 이름을 보자마자 눈치챘을 것이다. 맞다. 죽음을 한국식 이름처럼 풀어쓴 것이다. 나는 작명 센스가 없다.

나도 몰랐다. 이 웃기지도 않는 이름을 가진 남자가 2~30대 여성 독자들의 취향을 모조리 저격하는 마탄의 사수였을 줄은. 알았다면 작명소라도 갔을 것이다.

<끝나지 않는 밤>은 증쇄를 거듭하며 100만부가 넘게 팔렸고 출판사에선 주우금을 주인공으로 시리즈를 집필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끝나지 않는 밤>의 장르는 공포다. 주우금의 역할이 귀신, 좀비, 에일리언, 미치광이 연쇄살인마와 같다는 뜻이다. 주우금은 사냥꾼이기에 절대 주인공이 될 수 없었다. 독자들은 사냥꾼 주우금에게 열광했고, 출판사도 그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출판사의 요구를 제대로 해석하자면 이런 뜻이었다.

‘주인공이 주우금한테 죽는 시리즈를 집필해 주세요.’

나로선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세상에 어느 누가 돈방석을 마다할까.

나는 신나게 후속작들을 써제꼈다. <사로잡힌 밤>, <붉은 밤>, <울부짖는 밤> 등등... 통칭 밤 시리즈의 탄생이었다.

밤 시리즈의 화자는 계속 바뀌었지만 살인마는 바뀌지 않았다. 주우금이야말로 밤 시리즈의 진정한 주인공이었다.

밤 시리즈는 출간하는 족족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작가인 나 역시 일약 대스타가 되었다.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고, 강연 요청도 물밀 듯이 들어왔지만 나는 전부 거절했다. 뿐만 아니라 내 신상도 밝히지 않았다.

그렇다. 나는 복면 작가다. 공포 소설가로서 나는 ‘문성원’이라는, 누가 봐도 남자 같은 필명을 쓰고 있다. 내 필명에서 받침을 빼면 진짜 뜻이 나온다. 무서워.

내가 밤 시리즈 작가 문성원이라는 걸 알고 있는 유일한 친구가 헛웃음 치며 말하길,

‘대한민국 최고 쫄보가 한국 공포계의 최고 권위자라니. 아이러니하다, 아이러니해.’

대한민국 최고 쫄보와 한국 공포계의 최고 권위자를 겸하고 있는

나의 본명은 하지안. 29세. 여자고, 미혼이다.

본업은 따로 있다. 고등학교 교사. 밤 시리즈로 떼돈을 벌었지만 교사직을 그만둘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다. 안전제일 아니겠는가.

딩동.

나는 깜짝 놀라 어깨를 소스라쳤다. 무서운 목록에 하나 더 추가하겠다. 한밤중에 울리는 초인종은 무섭다.

뒤이어 상자를 내려놓는 소리와 멀어지는 발소리가 들렸다. 택배다. 밤 11시가 넘었는데,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덕분에 설레는 마음을 안고 현관으로 향했다. 내 앞으로 올 택배는 하나밖에 없었다.

키보드.

너무 갖고 싶었지만 단종과 품절 크리로 구할 수 없었던 키보드가 해외 중고 사이트에 올라온 걸 발견하고 질렀다. 배송에 일주일이 걸렸지만 기다림조차 달콤했다.

현관문을 열기 전에 걸쇠부터 걸었다. 혹시 모르니까. 택배를 가장한 강도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현관문을 빼꼼 열고 내다보니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납작하고 기다란 박스만 발치에 놓여 있을 뿐. 나는 냉큼 박스를 갖고 들어왔다.

지금부터 박스 개봉식이 있겠습니다.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박스를 열자, 내가 꿈에 그리던 키보드가 짠하고 튀어나왔다.

검은색의 깔끔한 디자인하며, 따각따각 눌리는 키감하며. 무엇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없었지만 뭐니뭐니해도 가장 마음에 드는 건 키보드의 상태였다. 중고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고 멀쩡했던 것이다.

좋아. 당장 개시해야지.

나는 기존에 쓰던 키보드를 뽑고 새(?) 키보드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빈 문서를 열고 새하얀 화면을 바라보며 고민했다. 내가 쓰려고 하는 건 밤 시리즈의 신작이었다.

무슨 장면으로 시작할까?

공포계의 거장(!) 문성원은 일상에 공포를 불어넣기로 유명했다. 일상적인 부분에서 무섭게 만들어야지. 결심하자마자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씨익, 입꼬리가 말려 올라갔다.

나는 키보드를 두드렸다.

"덜컹덜컹덜컹. 방문 손잡이가 미친 듯이 흔들렸다."

마침표를 찍은 순간.

등 뒤에서 심하게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방문을 홱 뒤돌아봤지만 방문은 언제 그랬냐는 듯 잠잠했다.

잘못 들었나?

하지만 내 팔에 돋은 닭살과 전신을 질주하는 맥박이 잘못 들은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나는 갈등했다. 이걸 확인해, 말아? 문만 열어보면 되는데, 바로 그 문 열기가 무서웠다.

잘못 들은 게 아니면? 진짜로 누가 있으면?

방문은 잠겨 있지도 않았다. 혼자 사는데 방문을 잠글 리가. 방문이 뻑뻑해서 잘 안 열리는 게 다행이었다.

아니, 바보 같은 착각이다. 누가 있을 리 없다. 공포 소설만 쓰다 보니 예민해진 것이다.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나는 숨을 참고 일어나 살금살금 방문으로 다가갔다. 혹시나 방문이 열릴까 봐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달칵. 방문을 잠그니 불안이 조금 가라앉았다.

책상 앞으로 돌아가자 화면에 떠 있는 문장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방문 손잡이가 미친 듯이 흔들렸다."

이 글이 현실이 된 건 아니겠지, 설마.

나는 시험 삼아 다음 문장을 써보았다.

"뒤이어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똑똑."

똑똑.

“!”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다. 심장이 가슴을 뚫고 튀어나올 것처럼 펄떡였다.

말도 안 돼.

착각이 아니었다. 내 집에 누가 있었다. 삽시간에 온몸의 피가 얼어붙었다.

나는 곧바로 핸드폰을 집어 들었다. 경찰, 경찰을 불러야 하는데 주파수 검색 중이라는 메시지가 떴다. 통화권 이탈이었다. 긴급 전화만 가능하다면서 그조차 걸리지 않았다.

이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다. 이제까지 한 번도 이런 적 없었는데. 하필 이럴 때 통화권 이탈이라는 게 말이 되나? 악마의 장난 같았다.

악마의 장난...

그러고 보니 타이밍이 예사롭지가 않았다.

조금 전 내가 쓴 문장이 현실이 되었다. 두 번이나.

우연일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현상도 우연이라고 할 수 있나?

무서워서 몸이 벌벌 떨리는데,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연인지 아닌지. 뭘 알아야 대처를 할 것 아닌가.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자판을 눌렀다.

"우금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문 열어.”"

그러자 문밖에서 낮고, 굵고, 남성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 열어.”

처음 듣는 목소리였다. 등줄기에 소름이 쫙 끼쳤다.

진짜다. 진짜 있다. 눈물이 핑 돌았다.

어쩌면 좋아. 무서워. 무서워 죽겠어. 차라리 기절하고 싶은데, 이대로 기절했다간 그대로 살해당할 것 같아서 기절할 수도 없었다.

지금 내 집에서는 내가 쓰는 소설이 현실화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고, 나는 곧 연쇄살인마에게 살해당할 예정이었다.

죽고 싶지 않아. 이렇게 죽을 순 없어.

나는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우금은 그냥 발길을 돌려 지안의 집을 떠났다. 그리고 두 번 다시 걸음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커서가 멋대로 되돌아가면서 두 문장을 지워버렸다.

대체 왜?

다시 한 번 써 봤지만 결과는 같았다. 말끔히 지워졌다.

이유가 뭐지? 똑같은 키보드로 타자를 치는데 왜 어떤 문장은 현실화되고 어떤 문장은 지워지는 거야.

"사실 우금에겐 그 자신도 모르던 심장병이 있었다. 그는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다."

이번에도 커서는 어김없이 되돌아갔다.

나더러 어떡하라고!

나는 엄지를 잘근잘근 깨물면서 머리를 굴렸다.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 원고를 안 쓰면 되나?

그때였다. 갑자기 자판이 저 홀로 눌리기 시작했다.

나는 까무러치게 놀라 바닥을 박찼다. 바퀴 달린 의자가 거세게 휘청거리며 뒤로 밀려났다.

그러든지 말든지, 키보드는 제멋대로 움직이며 나 없이 소설을 썼다.

"지안은 겁에 질렸다. 우금이 와 있었다. 그녀가 쓴 공포 소설에 나오는 연쇄살인마가.

믿을 수 없는 현실이 그녀의 숨통을 옥죄었다. 그녀가 쓴 문장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런데 어떤 문장들은 아니었다. 우금이 그녀의 집을 떠나게 만들 수도, 느닷없는 심장병으로 죽게 만들 수도 없었다.

지안은 어쩔 줄 모르고 엄지만 잘근잘근 씹어댔다. 그녀는 완전히 간과하고 있었다. 소설은 개연성의 지배를 받는다는 걸."

뜻밖의 힌트가 공포에 잠식된 정신을 일깨웠다.

개연성 때문이었다. 방금 전까지 손잡이를 잡아 흔들고, 문을 두드리다가 갑자기 떠나거나 죽는 게 부자연스러워서.

별안간 끔찍한 깨달음이 머리를 후려쳤다. 그 얘기는 저 문이 결국 열린다는 뜻이다. 나는 도망칠 수 없다.

숨어도 소용없다. 우금은 숨바꼭질의 귀재였다. 왜 그런 설정을 넣었을까. 내 목을 조르고 싶었다. 굳이 실천하지는 않았다. 어차피 우금이 졸라 줄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무섭게 문 밖에서 우금이 통보하듯 말했다.

“안 열어주면 내가 여는 수밖에.”

맙소사. 저 인간도 이 빌어먹을 키보드와 마찬가지였다. 내가 타자를 치지 않아도 제멋대로 움직였다.

저 미친 살인마가 들어오기 전에 뭔가 써야 했다. 개연성도, 나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머리를 굴려, 하지안. 머리를 굴려. 이대로는 죽어. 어떻게든 생각해내란 말이야.

내가 아랫입술을 짓씹는 동안 모니터에는 우금이 문 따는 핀으로 열쇠 구멍을 쑤시고 있다는 묘사가 떠올랐다.

동시에 등 뒤에서 끼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기겁해서 키보드를 두들겼다.

"하지만 핀이 안 먹혔다."

쳇. 방문 너머로 낮게 혀 차는 소리가 들렸다.

됐다!

안도감도 잠시, 우금이 내 심장을 낭떠러지로 걷어찼다.

“미안하지만 문을 부숴야겠어.”

“부수지 마!”

나는 비명처럼 외쳤다.

“그럼 열어.”

“잠깐만 기다려줘.”

생각났다. 저 자식한테서 살아남을 방법. 과연 통할지는 미지수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새로운 문장을 휘갈겼다.

“기다릴 만큼 기다린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옷을, 옷을 안 입어서 그래.”

나는 필사적으로 시간을 끌었다.

키보드 두드리랴, 바지 벗으랴,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발가벗고 있었어도 다 입었을 시간인데.”

우금이 빈정거렸다.

다 됐다, 이 자식아. 나는 엔터를 딱 치고 일어났다.

하나로 묶고 있던 머리를 풀어헤친 뒤 좀 전에 벗은 바지를 침대 밑에 쑤셔 넣었다. 이제 나는 크고 헐렁한 티셔츠 하나만 걸치고 있었다.

제발, 이 방법이 통해야 할 텐데...!

방문으로 향하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오줌이 마려웠다. 지릴 지도 몰라.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었다.

문밖에는 처음 보는 남자가 서 있었다. 그럼에도 누군지 보자마자 알았다.

지난 3년간 내 머릿속을 24시간 지배하고 있는 주인공과 똑같았으니까.

185cm의 장신.

사람을 홀리는 수려한 이목구비.

신사의 탈을 쓰고 악을 악으로 처단하는 연쇄살인마.

주우금은 내가 상상한 모습 그대로, 까만 정장을 입고 내 방문 앞에 서 있었다.

피가 묻어도 티 나지 않는 검은색 일색의 옷차림. 나는 마른침을 삼켰다.

우금이 삐딱하게 미소 지었다.

“하지안.”

나는 반사적으로 화답했다.

“주우금.”

성큼 방 안에 들어선 우금이 한손으로 내 턱을 붙잡았다. 숨이 멎었다. 날 죽이려고?

“우리 지안이.”

부드럽게 속삭인 우금이 내 입술을 집어삼켰다.

눈앞으로 새하얀 충격이 밀어닥쳤다.

키스... 키스하고 있다. 연쇄살인마랑.

굶주린 맹수한테 입술을 물린 기분이었다. 당장이라도 물어뜯길 것만 같았다.

우금의 다른 손이 내 허리를 휘감고 제 쪽으로 바싹 끌어당겼다. 내 몸은 우금의 품으로 속절없이 끌려들어갔다.

그의 혀가 맞물린 입술을 가르고 내 안으로 침범했다. 소설 속에서 여러 사람을 죽인 냉혈한의 혀는 뜨거웠다. 나는 그의 열기에 놀라는 한편으로 가슴 깊이 안도했다.

먹혔다. 내가 쓴 방법이 먹혔어.

나는 우금의 열정적인 키스를 받으면서 모니터에 떠 있는 글을 곁눈질했다.

"지안이 문을 안 열어줘서 울컥하긴 했지만, 해칠 생각은 없었다. 지안은 우금의 애인이었다. 우금은 절대 자신의 연인을 죽이지 않는다."

그런데.

커서가 되돌아가며 마지막 문장을 지우는 게 보였다.

‘우금은 절대 자신의 연인을 죽이지 않는다.’

결코 지워져서는 안 되는 문장이었다. 그러나 지워져 버렸다.

우금이 언제든지 나를 죽일 수 있다는 뜻인가?

심장이 두방망이질치고 등에서 식은땀이 났다.

저 재수 없는 키보드가 나머지 문장까지 지워버릴까 봐 간이 오그라붙었다.

"지안은 우금의 애인이었다."

이제 내가 믿을 건 저 문장밖에 없었다.

“한눈팔고 있네.”

입술을 떼고 속삭인 우금이 내 시선을 따라 컴퓨터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보면 안 돼!

나는 깜짝 놀라서 우금의 얼굴을 잡아 돌렸다.

“흠?”

우금이 한쪽 눈썹을 추켜세우고 수상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까치발을 들고 우금에게 키스했다. 이 키스에 내 목숨이 걸려 있었다.

절대 들키면 안 돼.

나는 저 키보드를 이용해 우금의 애인으로 탈바꿈했다. 이 사실을 들키면 우금은 반드시 나를 죽일 것이다.

우금은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제 사지에 매달린 줄을 끊고 인형사를 죽일 놈이었다.

다행히 우금은 순순히 키스에 몰입했다.

우리가 키스하는 동안에도 키보드는 타자를 멈추지 않았다. 요란한 타자 소리가 신경을 긁었다. 하지만 우금에게는 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다 들리는데 무시하는 건 아니겠지...?

우금이 내 뒤통수를 부여잡고 깊이 파고들었다.

나는 우금에게 떠밀려 고개를 젖혔다. 키 차이 때문에 허리가 활처럼 휘어졌다. 커다란 손이 내 뒤통수를 받치고, 단단한 팔이 내 등허리를 감싸고 있어도 불안했다. 나는 양팔을 우금의 목덜미에 휘감고 매달렸다.

우금이 목으로 웃더니 내 몸을 번쩍 안아들었다. 나는 화들짝 놀라 어깨를 움츠렸다. 천장에 머리 부딪치는 줄 알았다.

우금은 두 걸음 만에 나를 침대에 내려놓더니, 덮칠 듯 내 위로 올라왔다.

사방을 가로막은 우금의 팔다리가 창살처럼 느껴졌다.

나를 내려다보는 우금의 눈빛이 기묘하게 번뜩였다. 그가 입술을 핥으며 중얼거렸다.

“너를 어떻게 요리할까...”

정수리부터 얼음물을 뒤집어쓴 양, 끔찍한 한기가 전신을 집어삼켰다.

요리? 요리라고?

거짓말. 내가 만든 우금은 식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확신할 수 없다. 소설에는 여백이 있으니까. 작가가 쓰지 않은 시간에도 등장인물들은 살아 있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더구나 주우금은 설정부터가 모든 게 베일에 싸인 살인마. 이 인간이 식인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나는 모른다.

숨이 막혔다.

“안 돼...!”

나는 우금의 가슴을 밀치며 몸부림쳤지만 벗어날 수 없었다. 두꺼운 팔이 족쇄처럼 나를 옭아매고 있었다. 두려움에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이윽고 시야가 까맣게 물들었다.

알람 소리가 들렸다.

나는 몸서리치며 깨어났다. 방에는 나밖에 없었다.

꿈이었나?

귀신에 홀린 기분이었다. 저기 붙은 귀신.

나는 책상 위에 있는 새 키보드를 노려보았다. 하지만 아무리 노려봐도 키보드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자기가 언제 혼자 움직였냐는 듯이.

눈에서 힘이 빠졌다. 세상에 저 홀로 타자치는 키보드는 없다. 몇 년째 공포 소설만 쓰다 보니 악몽을 꾼 모양이다.

그럼 그렇지. 소설 캐릭터가 현실에 나타난다는 게 말이 되나? 안 되지.

하지만 너무 생생했다. 혹시...

문득 컴퓨터 옆에 놓인 탁상시계가 보였다. 8시 40분.

이런 젠장. 지각이다. 지금 중요한 게 꿈이 아니었다.

허둥지둥 출근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다.

학교로 출근하자 빠듯한 일상이 나를 맞이했다.

일에 치이고, 애들한테 치이고, 교장한테 치이다 보니 악몽 따위는 아주 하찮게 느껴졌다. 나는 평온을 되찾았다.

생각해 보면 그렇게 악몽도 아니었다.

주우금한테 죽는 꿈도 아니고, 주우금이 누구 죽이는 꿈도 아니고, 그냥 주우금이랑 키스한 게 다잖아.

악몽이 아니라 야한 꿈이었다. 욕구 불만인가?

그쪽 세포는 옛날에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수업이 비는 시간에 교무실에서 수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연쌤이 내 자리로 찾아왔다.

“지안쌤, 부탁이 있어.”

“뭔데요?”

“주말에 소개팅 좀 나가 줄래?”

“죄송하지만.”

제대로 거절하기도 전에 예연쌤이 곧장 내 말허리를 끊었다.

“그러지 말고. 내가 저번에 지안쌤 업무 도와줬잖아. 기억 안 나?”

“그땐 감사했습니다.”

“말로만?”

“제가 밥 한 끼 사드린다고...”

“먹은 셈 칠게, 이번에 소개팅 나가 주면. 응? 제발 부탁이야.”

“...”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소개팅이라니. 생판 모르는 남자를 만나는 데 금쪽 같은 주말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그럴 시간에 한 글자라도 더 쓰겠다. 소설은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지만 사람은 돈과 시간과 체력을 모두 갉아먹는다. 나는 불편한 기색을 감출 수 없었다.

내 표정을 본 예연쌤이 도리어 기분 나쁜 티를 냈다.

“내가 지금 지안쌤한테 어려운 부탁 하는 거야? 그 밥 한 끼, 나 대신 다른 사람이랑 먹는 게 그렇게 어려워?”

어렵다. 하지만 곧이곧대로 대답하면 자기한테 시비 거는 줄 알겠지. 교사가 이직할 수 있는 직종도 아니고, 5년마다 전출되긴 해도 교사끼리는 언제 어느 학교에서 다시 만날지 모르는 만큼 트러블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더구나 예연쌤은 여왕벌 타입이었다. 무리 짓기를 잘하고 분위기를 주도하는 타입. 이런 사람한테 밉보이면 호되게 쏘이기 마련이었다.

“아니에요. 할게요, 소개팅.”

“정말이지? 고마워, 지안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

예연쌤은 손바닥 뒤집듯 표정을 바꾸며 미소 지었다.

예연쌤이 돌아간 뒤, 나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애썼다.

밥 한 끼만 먹으면 된다. 주말에 외식하는데 테이블이 모자라서 합석하는 셈 치자. 어쩌면 합석자가 아주 괜찮은 남자일지도 모른다.

“하아...”

한숨이 절로 나왔다.

어쨌든 현실 남자를 만나면, 그러면.

최소한 내 소설 캐릭터랑 키스하는 꿈을 꾸진 않겠지.

퇴근해서 돌아온 집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멀쩡했다.

나는 저녁을 먹고 신작을 쓰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았다. 어제 꾼 꿈 때문에 새 키보드가 괜히 꺼림칙했다.

정신 차려. 개꿈일 뿐이야.

스스로를 나무라며 컴퓨터를 켜려고 보니 전원에 불이 들어와 있었다. 절전 모드였다. 그제야 컴퓨터를 끈 기억이 없다는 게 떠올랐다. 아니, 언제 잠들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

반사적으로 키보드를 누르자 화면이 켜지며 까만 활자로 가득한 한글 문서가 나타났다.

등줄기로 오한이 흘렀다.

“이게 뭐야...”

그것은 소설이었다. 내가 쓰지 않은 소설. 내가 나오는 소설.

이 소름끼치는 문서에는 내가 어제 꾼 꿈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심지어 내가 모르는 부분까지.

나는 미친 사람처럼 소설을 읽어 내려갔다.

"우금은 기절한 지안을 제대로 눕히고 이불을 덮어 주었다. 그는 신사였다. 신사는 기절한 여성을 제멋대로 취하지 않는다.

우금은 아쉬움을 뒤로 하고 발길을 돌렸다. 그러나 그의 깊은 곳에서는 차마 다 꺼지지 못한 욕망이 잉걸불처럼 하얗게 이글대고 있었다."

손끝에서부터 오싹한 냉기가 기어 올라와 목덜미를 핥았다.

꿈이 아니었다.

이해할 수가 없었다. 어떻게 꿈이 아닐 수가 있을까. 이게 어떻게 현실일 수가 있을까. 악몽을 꾸는 기분이었다.

자연히 눈길이 키보드로 향했다. 이 키보드. 이것 때문일 수밖에 없었다. 이건 저주 받은 키보드가 분명했다.

나는 어금니를 악물고 키보드 선을 뽑았다. 혹시 안 뽑히면 어쩌나, 어제처럼 우금이 나타나면 어쩌나 불안했지만 다행히 키보드 선은 단번에 뽑혔고 우금도 나타나지 않았다.

잘하면, 어쩌면, 이 키보드만 버리면, 이대로 모든 게 없던 일이 될 것 같았다.

나는 곧바로 문제의 키보드를 챙겨 들고 집을 나섰다.

목적지는 1층 야외 주차장에 있는 쓰레기장이었다.

쓰레기장으로 가면서도 과연 버릴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알 사람은 다 아는 저주 받은 물건의 법칙 하나.

절대 버릴 수 없다는 것.

제발 버려져라. 제발.

나는 속으로 간절히 되뇌면서 키보드를 대형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바라건대 모두 없던 일이 되기를.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오는 내내 심장이 고막을 찧어댔다.

쿵쿵쿵쿵.

불안하고 또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왠지, 말이 씨가 될까 봐 생각도 하기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키보드가 집에 돌아와 있을 것만 같아서.

버리고 버려도 되돌아온다는 인형처럼.

나는 불길한 망상을 끝내 떨치지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었다.

키보드는 책상 위에 고스란히 놓여 있었다.

“...!”

사람이 너무 무서우면 비명도 안 나온다는 걸 알았다. 소리가 되지 못한 비명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내 속을 찢어발겼다.

그때였다.

갑자기 키보드가 어제처럼 저절로 눌리면서 따각따각 글을 쓰기 시작했다.

"우금은 지안의 집으로 향했다."

겨우 한 문장.

그러나 내가 살면서 봤던 모든 문장을 통틀어 가장 무섭고 끔찍했다.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이걸 막을 수 있을까.

나는 초조하게 방안을 왔다 갔다 하다가 결심했다.

부숴버리자.

망치, 망치... 망치가 어디 있더라.

나는 베란다 붙박이장에 처박아둔 공구함에서 망치를 찾아냈다.

방으로 돌아와 키보드를 뽑아들었다.

그런데도 키보드는 타자를 멈추지 않았고 모니터에는 계속 새로운 문장이 떠올랐다.

나는 몸서리치며 거실로 뛰쳐나왔다.

키보드를 식탁 위에 내동댕이치고 망치를 치켜들었을 때였다.

삑 삑 삑 삑.

도어락 눌리는 소리가 시선을 잡아끌었다. 나는 현관문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현관문이 열리고, 낯익은 남자가 제집인 양 뻔뻔하게 들어왔다.

어제 처음 만났지만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남자.

내가 창조한 연쇄살인마.

주우금이었다.

나는 울고 싶었다.

저 자식이 대체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

나밖에 모르는 우리 집 비밀 번호를.

“망치는 왜 들고 있어?”

우금이 태연하게 구두를 벗고 들어오면서 물었다.

“어?”

나는 반사적으로 망치를 내려다보았다.

이걸로 나를 지킬 수 있을까?

이걸로 저 자식을 죽일 순 있을까?

이 순간에도 키보드는 타자를 치고 있었다. 그러나 우금에게는 키보드가 눌리는 게 보이지도, 타자 소리가 들리지도 않는 모양이었다.

키보드를 힐끗 쳐다보더니 이렇게 물은 것이다.

“고장 났어?”

저 홀로 타자치는 귀신 붙은 키보드를 본 사람의 반응이 아니었다.

“어?”

“부수게?”

“어어...”

내가 얼뜨기같이 어 소리만 내는 동안 내 앞에 다가온 우금이 손바닥을 내밀었다.

“이리 줘. 내가 부숴 줄게.”

우금이 대보름 호두 깨듯 내 머리에 망치를 내리치는 장면이 떠올랐다.

나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아냐, 됐어.”

우금이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쳐.”

이것은 경고인가 협박인가. 그러다 다친다는 뜻인지, 말 안 들으면 다치게 하겠다는 뜻인지 알 수 없었다.

“줘.”

우금이 강압적으로 되풀이했다.

주면. 나한테 휘두르게?

망치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하아, 한숨을 내쉰 우금이 순식간에 손을 뻗었다. 피할 새도 없이, 망치 쥔 손을 붙들렸다. 나는 속절없이 우금의 품으로 끌려 들어갔다. 넓고 탄탄한 가슴이 등에 와 닿았다.

나는 우금의 품 안에 갇혀 버렸다. 뱀의 똬리에 갇힌 기분이었다. 숨이 막혔다. 우금의 가슴과 두 팔이 철벽처럼 나를 에워싸고 있었다.

내 손을 감싼 커다란 손아귀가 먹잇감을 문 맹수의 아가리처럼 보였다.

귓가에서 뜨거운 숨결이 흩어졌다. 목덜미의 솜털이 꼿꼿하게 일어나며 오싹한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미끄러졌다.

“고집하고는.”

작게 나무란 우금이 제 손을, 제 손아귀에 있는 내 손을, 내 손에 들린 망치를 치켜들었다.

꽝! 꽝! 꽝!

키캡들이 사방으로 튀어 올랐다. 깨지고 부서지고 우그러졌다.

우금은 계속해서 망치를 내리쳤다. 우금에게 붙들린 손이 몹시 아팠다. 망치로 두들겨 맞는 게 키보드인지 나인지 헷갈렸다.

“그만...”

미약한 애원은 내 귀에도 들리지 않았다.

우금은 멈추지 않았다.

“그만해!”

나는 비명을 지르며 우금을 뿌리쳤다. 망치도 던져버렸다.

무겁게 떨어진 망치가 장판을 찍었지만 그딴 건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우금을 외면했다. 무슨 얼굴을 하고 있을까. 무서워서 차마 볼 수가 없었다.

“아팠어?”

우금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지금 누가 누굴 걱정하는가. 이 자식은 나를 기만하고 있었다.

“미안해.”

오른손에 손끝이 와 닿았다. 나는 움찔 소스라쳤다.

내 손을 잡아 올리는 우금의 손길은 뜻밖에도 따스하고 부드러웠다. 나도 모르게 시선이 오른손을 따라갔다. 오른손 너머로 세심하게 살피는 우금의 표정이 보였다. 그 모습이 마치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 같았다.

그게 더 무서웠다. 나를 방심시키고 죽일 것만 같아서.

별안간 눈이 마주쳤다. 씩 웃은 우금이 내 손바닥을 기습했다.

쪽.

“헉.”

나는 깜짝 놀라 목을 움츠렸다.

내 반응을 본 우금이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히 속삭였다.

“우리 겁쟁이.”

와중에 식탁에서는 엉망진창으로 깨지고 부서진 키보드가 음산한 소리를 내며 달각거리고 있었다.

키보드가 박살났는데 우금은 사라지지 않았다.

불길한 깨달음이 등줄기를 날카롭게 베어냈다.

나는 결코 이 남자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

숨이 멎었다. 심장도 멎을 것만 같았다.

두려움에 숨도 못 쉬고 있는데 우금이 내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쥐고 눈을 맞췄다.

“왜 이렇게 무서워 해, 난 네가 원하는 대로 한 건데.”

“...”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우금의 말대로 애초에 키보드를 부수길 원한 건 나였으니까.

그런데 우금이 묘한 소리를 덧붙였다.

“이게 네가 바란 모습이잖아.”

“그게 무슨...”

“일단 좀 앉자. 안색이 안 좋아. 키보드는 내가 치울게.”

우금은 자상했다. 나는 우금이 데려다 앉힌 소파에서 그가 키보드의 잔해를 치우는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았다.

잊고 있었다. 밤 시리즈가 대박친 이유. 주우금이 그야말로 완벽한 남자였기 때문이다. 사람 죽이는 점만 빼고.

현로도 아닌데 남주 장사한다고 욕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지안아.”

망치까지 싹 치우고 돌아온 우금이 내 옆에 앉으며 물었다.

“키보드는 갑자기 왜 부수고 싶었어?”

대답하기가 난감했다.

뭐라고 해야 좋단 말인가. 새로 산 키보드가 저주 받았다고?

내가 쓰는 문장이 현실에 구현되는 걸로도 모자라 내 소설 주인공이 현실에 튀어나오는데, 그 자식이 연쇄살인마라서 나를 죽일까 봐 불안해 죽겠다고?

근데 그게 너라고?

심지어 키보드가 제멋대로 쓰는 게 더 많아서 너를 통제할 수가 없다고?

나는 그 모든 대답을 한마디로 뭉뚱그렸다.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글이 막혔어?”

“...!”

일순 말문이 막혔다.

알고 있구나. 내가 소설을 쓴다는 걸. 자기가 내 소설 주인공이라는 것도 알고 있을까?

나는 조용히 우금의 눈치를 살폈다.

모르겠지. 알면 이렇게 침착할 수 없겠지.

“다 이해해.”

우금이 관대하게 말했다.

“글 쓰는 거 힘든 것도 알고, 너 스트레스 받는 것도 알아. 그런데 지안아. 내가 다른 건 다 이해하는데 딱 하나 이해 못 하는 게 있어.”

나는 잔뜩 긴장했다. 목구멍이 졸아붙고 입 안이 바짝바짝 말랐다.

우금이 툭 내뱉었다.

“거짓말.”

심장이 곤두박질쳤다. 들킨 걸까?

“네가 나한테 뭔가 숨기는 것 같아.”

“그럴 리가 없잖아.”

황급히 부정하고 나서 조금 후회했다. 도둑이 제 발 저린 꼴이 아닌가.

“그래.”

우금은 옅게 웃었다.

“앞으로도 비밀은 안 만드는 게 좋을 거야.”

그는 정중한 협박을 남기고 떠났다.

나는 비틀비틀 방으로 돌아갔다가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다.

책상 위에는 우금이 부수고 버린 키보드가 멀쩡하게 놓여 있었다.

한숨도 못 잤다.

덕분에 컨디션이 최악이었다. 누군가 뇌를 송곳으로 찔러대는 것 같았고 윗배가 딱딱하게 뭉쳐서 숨 쉬기도 버거웠다.

주우금 때문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내 책상 위에 놓여 있을 키보드 때문이었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쓴 채 얼굴만 내놓고 소파에 쪼그려앉은 상태로 닫힌 방문을 노려보고 있었다.

밤새 이러고 있었다. 나는 귀신 붙은 키보드가 있는 방에서 잘 수 있을 만큼 강심장이 아니었다.

온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선 탓에 뱃속이 따끔거렸다.

미칠 것 같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저 망할 놈의 키보드는 버려지지도 않고, 부서지지도 않는다.

저 키보드가 있는 한 우금은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

나는 우금에게서 벗어나고 싶다.

내가 그 자식이랑 안전 이별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내가 만든 주우금은 아무나 죽이는 놈이 아니지만, 악당만 골라서 죽이는 놈이지만, 어젯밤 키보드가 지워버린 두 번째 문장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우금은 절대로 자신의 연인을 죽이지 않는다.’

그 문장이 왜 지워졌겠는가. 죽일 수도 있으니까 지워졌겠지. 다름아닌 나를.

생각할수록 무서웠다.

어떡하지? 경찰에 신고할까? 신고하면 잡혀가긴 할까? 우금이 저지른 살인은 전부 허구인데? 그 전에 우금 본인도 허구인데?

신고해 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 우금은 소설 캐릭터에 불과하고, 진짜 사람을 죽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아직 짓지도 않은 죄로 신고할 순 없지 않은가.

이대로라면 곧 나를 죽이겠지만.

그때였다.

계속 지켜보던 방문 너머에서 어렴풋이 타자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

나는 화들짝 소스라쳤다. 반사적으로 시계를 쳐다보았다. 새벽 4시 44분. 시간부터 불길하기 짝이 없었다.

저 키보드가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도 벌써 세 번째였다.

첫 번째는 그저께 밤. 우금이 우리 집에 나타났을 때.

두 번째는 어제 저녁. 우금이 우리 집에 찾아왔을 때.

확실하다. 우금이 오고 있었다.

하필 이 시간에. 모두가 자고 있는 꼭두새벽에.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삽시간에 온몸의 피가 얼어붙고 심장이 비명을 질러댔다. 나는 핸드폰을 움켜쥐고 차키만 챙겨 집밖으로 뛰쳐나갔다.

차를 몰고 곧장 정안의 집으로 향했다.

정안은 나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제일 친한 친구이며, 내가 밤 시리즈의 작가 문성원이라는 걸 알고 있는 유일한 친구였다.

딩동.

초인종을 눌렀지만 안에선 대답이 없었다. 나는 다시 시간을 확인했다. 새벽 5시 2분. 자고 있나?

설마 집에 없는 건 아니겠지? 덜컥 불안해졌다.

딩동, 딩동, 딩동딩동딩동.

-야!

인터폰에서 성난 고함이 터져 나왔다. 깜짝 놀라 한 박자 늦게 대답했다.

“응.”

-너 미쳤어? 지금 몇 신 줄 알아? 벨 좀 작작 눌러! 이게 무슨 민폐야.

“미안해. 내가 너무 급해서. 문 좀 열어줘.”

-어휴.

잠시 후 현관문이 열렸다. 자다 일어난 듯, 부스스한 머리로 나온 정안이 잔뜩 구겨진 얼굴로 투덜거렸다.

“오늘 토요일이다, 토요일. 이 양아치야. 토요일 꼭두새벽부터-.”

“나 좀 숨겨줘.”

나는 정안을 밀고 들어갔다. 현관문을 닫고 걸쇠까지 걸자 정안의 표정이 돌변했다.

“무슨 일이야.”

나는 정신없이 정안의 침대로 올라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쓰고 벽에 기대 쪼그려앉았다. 마음 같아서는 붙박이장처럼 밀폐된 공간에 숨고 싶었으나 이 좁아터진 원룸에는 붙박이장이 없었다.

“나까지 불안하게 왜 이래. 무슨 일인데.”

나를 뒤따라온 정안이 내 옆에 걸터앉아 초조하게 다그쳤다.

“주우금이 나를 죽이러 오고 있어.”

마른 목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뭐?”

정안이 황당하다는 투로 되물었다.

“내가 아는 우금이 말하는 거야? 밤 시리즈 주우금?”

“응.”

나를 보는 정안의 눈초리에 의심이 어렸다.

“꿈꿨어?”

“진짜 꿈이었으면 좋겠다.”

나는 머리를 싸쥐고 고개를 숙였다. 스트레스성 두통이 재발한 탓이었다. 누가 내 뒷골을 송곳으로 후비는 듯했다. 범인은 안 봐도 뻔했다. 주우금.

미심쩍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던 정안이 돌연 장난스럽게 미소 지었다.

“너 지금 장난치는 거지. 야, 연기는 괜찮은데 시나리오가 영 아니다. 그 얘길 누가 믿냐?”

“장난 아니야.”

“아니면 뭐야. 차기작 컨셉이야?”

차기작 컨셉 같은 소리하네.

나는 정안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았다.

해외 직구로 키보드를 샀는데, 까 보니 저주 받은 키보드였고, 그걸로 타자를 쳤더니 내가 쓴 내용이 실제로 일어났으며, 주우금이 실체가 돼서 내 집에 나타났다고.

“대박이네.”

정안이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이제야 내 말을 믿어주는구나 생각하기 무섭게 발등을 찍혔다.

“베스트셀러 각이다. 너무 재밌어.”

울컥 화가 치밀었다.

“너 내 말 안 믿지?”

“너 같으면 믿겠냐?”

정안이 어이없는 표정으로 되물었다.

나는 입을 꾹 다물었다. 말해 뭐할까.

정안의 표정이 돌연 진지해졌다.

“너 병원 가야 돼.”

“진정안.”

나는 정색했다.

“아니, 진짜로. 너 지금 심각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심지어 그걸 믿고 있어. 너 그거 망상이야. 치료 받아야 돼.”

정안은 나를 안 믿을 뿐 아니라, 정신병자 취급하고 있었다.

너만은 나를 믿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배신감에 입이 썼다.

키보드랑 노트북을 가져올걸 그랬다. 우금이 찾아온다고 쓰면 진짜로 올 텐데.

아니다. 친구가 내 말을 안 믿는다고 연쇄살인마를 불러내는 건 미친 짓이다. 물귀신도 아니고, 내가 죽을 것 같다고 다른 사람을 끌어들일 수야 없지 않은가. 그게 소중한 친구라면 더더욱.

“내가 죽으면 망상이 아니었다는 게 증명되겠지.”

나는 무릎을 끌어안고 울적하게 중얼거렸다.

“야.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잠이나 처자. 왜 그런 망상이 생긴 줄 알아? 네가 이 시간까지 잠을 안 자서 그래. 잠이 모자라서.”

정안은 나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리고는 내 옆에 드러누웠다.

“푹 자고 일어나서 병원 가자. 의사한테 상담 받고, 필요하면 약도 먹고. 알겠지?”

“...”

끝까지 망상 취급이었다.

내 옆에 누운 정안은 금세 코를 골기 시작했다. 속 편한 정안이 마냥 부러웠다.

나는 잘 수 없었다.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았다. 나는 뜬눈으로 새벽을 지새우다 아침 무렵에야 까무룩 정신을 놓았다.

잠결에 핸드폰 벨소리를 들었다. 나는 혼몽한 상태로 머리맡을 더듬어 핸드폰을 찾아 쥐었다.

“아오, 하지안! 전화 좀 받아. 시끄러워 죽겠네, 진짜.”

옆에서 자고 있던 정안이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쓰며 돌아누웠다.

나는 가물가물한 눈으로 발신자를 확인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어디야?

수화기 너머에서 남성적인 저음이 흘러나왔다. 나는 잠이 확 깨서 파드득 일어났다. 우금이었다.

“나, 나 친구 집.”

―목소리가 잠겼네.

“지금 일어났어.”

―친구 집에서 잔 거야?

“으응.”

―나한테 말 좀 해 주지.

“미안해.”

―언제 올 거야?

“어딜?”

―집에.

“모르겠어.”

―얼른 와. 보고 싶어.

오싹 소름이 끼쳤다. 얼른 오라니. 내 집에 있다는 소리 아닌가. 아무리 애인이라지만, 주인 없는 집에 들어가 있는 게 정상인가?

심장이 쿵쾅거렸다. 우금이 있는 집에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속으로 변명거리를 찾고 있는데 우금이 무서운 소리를 했다.

―거기 어디야? 내가 데리러 갈게.

나는 반사적으로 정안의 뒤통수를 내려다보았다. 이제 나에겐 남은 가족도 없지만, 가족이 있을 때도 가족보다 더 가족 같았던 친구다. 나 때문에 얘까지 위험하게 만들 순 없었다.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금방 갈게.”

우금은 만족스러운 웃음소리를 내며 전화를 끊었다.

“누구야? 목소리 죽이던데.”

통화 소리에 깨어난 정안이 게슴츠레한 눈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주우금.”

“헛소리하지 말고.”

“말해도 안 믿을 거면서 왜 물어 봐? 간다.”

“그 남자한테? 누군데. 너 남자 생겼어?”

나는 12년지기 벽창호를 뒤로 하고 원룸을 나섰다.

집으로 돌아온 나를 제일 먼저 맞이한 건 현관에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검은색 신사 구두였다. 우금은 씻고 있는 모양이었다. 화장실에서 샤워기 소리가 들렸다.

와중에 방에서는 타자 소리가 흘러나왔다. 저주받은 키보드가 아직까지 움직이고 있었다.

저 키보드가 움직이기 시작한 건 4시 44분. 하도 불길해서 똑똑히 기억한다. 지금은 10시 38분. 6시간 동안 계속 타자를 치고 있었던 건가? 그럼 주우금은 대체 6시간 동안 뭘 하고 있었단 말인가.

나는 화장실 문을 힐끗거리며 살금살금 방으로 향했다. 공포와 긴장이 심장을 좀먹었으나 어쩔 수가 없었다. 우금이 나를 죽일 준비를 했을지도 모르니까. 저주받은 문서를 확인해야만 했다.

방에 들어온 나는 허겁지겁 컴퓨터를 켜고 저주받은 문서를 열었다.

커서 깜빡이는 마지막 문장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살금살금 방으로 들어온 지안은 허겁지겁 컴퓨터를 켜고 원고를 확인했다."

보이지 않는 필자에게 실시간으로 감시당하는 기분이었다. 무섭고 소름 끼쳤다. 나는 어금니를 악물고 스크롤바를 잡아 올렸다.

원고에는 집에 돌아온 내가 샤워 중인 우금 몰래 방에 들어오는 장면뿐 아니라, 정안의 집에서 정안과 대화한 내용까지 낱낱이 적혀 있었다. 설마 우금이 이걸 보진 않았겠지.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다.

진정하자. 우금의 눈에는 아마 이 원고가 안 보일 것이다. 우금은 키보드가 움직이는 것도 보고 듣지 못하니까.

나는 스크롤바를 더 올려 지난 새벽 우금의 행적을 찾아냈다.

"우금은 클럽에 들어섰다. 이번 사냥감의 영업 장소."

이럴 수가... 나한테 오는 게 아니었어.

지금까지 저주받은 키보드가 타자를 치면 우금이 나타났고, 우금이 없을 때는 키보드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 키보드가 우금을 불러들이는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었다. 우금은 전혀 다른 곳에 나타나 활보할 수도 있었다. 이 클럽처럼.

확실한 건 한 가지뿐이었다. 이 키보드는 우금이 활동할 때 작동한다는 것.

"현란한 조명 속에서 약에 취한 남자가 우금의 어깨를 치고 지나갔다. 우금은 무심한 얼굴로 그를 지나쳤다. 어차피 부딪쳤다는 자각도 없으리라.

사냥감은 그새 다른 약쟁이와 거래를 하고 있었다. 우금이 다가가자 사냥감이 경계의 기색을 내비쳤다.

“너 뭐야?”

“얼마야?”

우금이 빙그레 웃으며 되물었다. 제 목숨값을 묻는 줄도 모르고, 사냥감이 표정을 풀었다."

우금은 마약을 사고 난 뒤에 사냥감을 미행했다.

그러나 우금은 마약을 하지 않는다. 우금이 마약을 산 이유는 단 하나였다. 징벌의 증거.

매체에 나오는 연쇄살인마들에게는 피해자의 물건이나 사진 등 살인 기념품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는데, 우금에게는 사냥감에게 징벌의 증거를 장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번 사냥감에게는 칼을 압정 삼아 가슴에 마약 봉지를 꽂아놓겠지. 나라면 그렇게 쓸 테니까.

스크롤바를 내리자 사냥감에 대한 정보가 나왔다.

"이진영은 마약상이었다. 그는 싸구려 마약을 취급했고, 그만큼 가난한 고객층을 거느리고 있었다.

이진영의 고객들은 하나같이 파멸의 길을 걸었다. 어떤 여대생은 마약을 사려고 매춘에 뛰어들었고 어떤 부부는 마약에 취해 아기를 굶겨 죽였으며 몇몇은 약물 남용으로 죽었다.

이진영은 대개의 사정을 알고도 개의치 않았다."

우금은 사냥감 선정에 공을 들이는 편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자신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자로. 우금은 고르고 골라서 누가 봐도 죽일 놈만 죽인다. 이번 사냥감도 죽어 마땅한 인간이었다.

이게 그냥 소설이었다면 나는 망설임 없이 이 남자를 죽일 것이다. 하지만 아니었다. 이 안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 모두 허구가 아니었다. 우금이 더 이상 허구가 아닌 것처럼.

죽어 마땅한 인간이라고 해도 내가 그 죽음에 일조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였다.

농담이 아니다. 내가 만든 캐릭터가 진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급속도로 피가 식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발을 뻗고 자지 못할 것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나는 우금을 신중한 사냥꾼으로 만들었다. 우금은 완전 범죄를 위해 몇 달이나 공들이는 타입이었다. 이 남자는 안전했다. 당분간은.

하다하다 별 게 다 다행이네.

나는 쓰게 자조했다.

나 살기도 급급한데 남의 목숨까지 걱정해야 한다니.

달칵.

밖에서 화장실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황급히 컴퓨터 전원을 껐다.

엉거주춤 거실로 나가자 화장실에서 나온 우금이 나를 보고 반갑게 미소 지었다.

“왔어?”

“...!”

나는 황급히 눈을 돌렸다. 우금은 반라였다. 허리에만 수건을 두르고 있었다.

우금의 몸을 본 건 아주 잠깐이었는데도, 그 짧은 순간 눈에 박힌 광경이 뇌리를 점령했다.

물기 어린 머리카락. 촉촉하게 젖은 피부. 넓은 어깨. 육감적인 가슴. 복근 뚜렷한 배. 저 자식 머릿속 장르는 호러인데 몸뚱이는 포르노였다.

“옷 좀 입어.”

긴장한 나머지 목소리가 퉁명스럽게 나갔다. 나는 뒤늦게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뭘 부끄러워하고 그래. 우리 사이에.”

반라의 우금이 능글맞게 웃으며 다가왔다.

머릿속에 빨간 불이 켜졌다. 내가 지금 목숨만 걱정할 게 아니었다. 처음 나타났을 때부터 나한테 키스한 놈 아닌가. 내 집에서 나를 기다리는 동안 샤워를 하고 있던 의도가 달리 뭐가 있을까.

“네가 입혀 줄래?”

내 앞에 바짝 다가선 우금이 유혹적으로 물었다. 사방이 트여 있는데 구석에 몰린 기분이었다. 입 안이 바짝바짝 말랐다. 차마 우금을 쳐다볼 수 없었다.

“뭐라는 거야.”

나는 떨리는 손으로 우금의 가슴을 밀었다. 우금은 단단히 서서 내 손목을 붙잡았다. 단단하고 매끄러운 가슴이 손바닥에 달라붙었다. 흠칫 놀라 올려다보니 우금이 고개를 기울여 내 귓가에 속삭였다.

“너도 벗든가.”

귓가에서 뜨거운 숨결이 흩어졌다. 오싹한 전율이 목덜미를 훑고 등줄기로 미끄러졌다. 손바닥을 세차게 두드리는 맥박이 내 것인지 우금의 것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우금이 살피는 눈으로 나를 주시하며 얼굴을 천천히 가져왔다. 그 깊고 어둑한 눈길이 올가미처럼 나를 옭아맸다. 나는 사로잡힌 짐승마냥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이대로 사냥당하는 걸까. 두려움과 불안이 턱끝까지 차올랐다.

촉.

가볍게 닿았다가 떨어진 입술이 사납게 달려들었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우금은 신중한 사냥꾼이 아니었다. 굶주린 짐승이었다.

우금은 정신없이 내 입술을 탐했다. 뜨거운 혀가 여린 속살을 휘저었다. 머릿속까지 휘저어지는 것 같았다.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다.

우금에게 붙잡힌 손목에서 심장이 뛰었다. 붙들린 게 손목이 아니라 심장인 것만 같았다.

타액이 뒤섞이고 호흡이 뒤엉켰다. 숨이 막혔다. 가쁜 숨을 터트리며 키스를 피했으나 금세 쫓아온 입술이 나를 삼켰다.

나도 모르게 한 발짝 물러서자 우금이 내 손목을 틀어쥔 채 다른 손으로 내 허리를 바짝 끌어안았다. 그러면서 제 가슴에 붙이고 있던 내 손을 어깨 뒤로 넘겼다. 그러자 내가 우금의 목덜미에 손을 두른 형국이 되었다.

그로도 부족하다는 듯, 우금은 내 나머지 손을 붙잡아 제 허리에 둘렀다. 와중에도 키스는 멈추지 않았다.

안 돼. 잡아먹힌다. 목에서 신음이 흘렀다. 내 신음소리를 들은 우금이 맞닿은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고개를 기울여 내 안으로 더욱 깊이 침범했다. 독니에 물리면 이럴까. 몸에 힘이 풀리고 정신이 아득해졌다. 그런데 그때.

느닷없는 핸드폰 벨소리가 마비된 정신을 일깨웠다.

“...!”

화들짝 놀란 나는 우금이 멈칫한 틈에 얼른 물러섰다. 우금은 아쉬운 표정으로 나를 놓아 주었다.

나는 속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며 발신자를 확인했다.

"예연쌤"

완전히 잊고 있었다. 소개팅.

나는 슬금슬금 우금과 멀어지면서 통화 볼륨을 낮추고 전화를 받았다.

“네, 선생님.”

―지안쌤, 오늘 소개팅날인 거 기억하지? 이따 12시에 ○○레스토랑이야~.

나는 반사적으로 우금을 쳐다보았다. 우금이 왜 그러냐는 듯 눈썹을 올렸다. 내가 소개팅에 나가는 걸 알면 별로 좋아할 것 같지 않았다.

“선생님, 죄송한데.”

―어머, 안 돼!

아직 말도 안 꺼냈는데 예연쌤이 지레 거부했다.

―죄송하다고 하지 마, 안 받아 줄 거야. 당일 펑크 안 돼. 상대편 주선자 교장이란 말이야.

“아.”

―지안쌤 안 나가면 나 교장한테 찍혀.

“...”

솔직히 내 알 바 아니었다. 예연쌤하고는 별로 친하지도 않았다.

이런 속내를 간파한 걸까? 예연쌤이 나를 물고 늘어졌다.

―지안쌤도 찍힐걸. 지안쌤 교장 성격 알지? 뒤끝 장난 아니잖아. 지안쌤, 우리 학교생활 편하게 하자. 응?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인가 싶었지만, 계속 살려면 중요한 문제였다. 내일 당장 학교를 때려치울 것도 아니고.

이럴 때마다 전업 작가가 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내 책이 언제까지고 잘 팔릴 거라는 보장이 없다. 젊어서는 부족함 없이 살다가 부족한 것밖에 없는 노후를 맞이하고 싶진 않았다.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어요.”

―고마워! 잘 부탁할게.

예연쌤은 내가 말을 바꾸기 전에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누구야?”

우금이 턱짓으로 물었다. 나는 신중하게 대답을 골랐다.

“모예연 선생님. 나한테 부탁할 게 있다고 12시까지 나와 달래.”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었다. 우금의 눈길이 벽시계로 향했다.

“씻고 화장하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겠네.”

“으응. 미안한데 나중에 다시 올래?”

빈말이었다. 다시는 오지 마.

“알았어.”

다행히 우금은 순순히 옷을 챙겨 입고 나왔다. 나는 현관으로 향하는 우금을 배웅했다. 내심 안도하고 있는데 구두를 신던 우금이 불쑥 물었다.

“이래놓고 남자 만나러 가는 거 아니지?”

나는 얼어붙었다. 다른 사람이 물었으면 아니라고 잡아떼겠지만 내 앞에 있는 건 딱 하나 거짓말은 이해 못한다는 연쇄살인마였다.

아무 대답도 못하는 나를 추궁하듯 바라보던 우금이 돌연 장난스럽게 미소 지었다.

“농담이야.”

우금은 씩 웃으며 내 뺨에 입맞추고 떠났다. 나는 한숨을 쉬면서 주저앉았다.

이윽고 타자 소리가 그쳤다.

소개팅 장소는 인근 전철역 앞에 있는 레스토랑이었다.

집에서 걸어서 7분. 상대측의 배려였다.

그러나 가진 배려를 장소 선정에 다 써버렸는지 소개팅 자리는 불편하기 짝이 없었다.

말이 소개팅이지 거의 맞선이었다. 자기소개 후에 제일 먼저 받은 질문이 “연봉은 얼마나 받으세요?”였으니까.

소개팅 자리에서 주고받기엔 조금 민감한 내용 같다고 했더니 대뜸 내 나이를 지적하는 게 아닌가. 스물아홉이면 연애가 아니라 결혼을 해야 하는 나이 아니냐고.

아닌데요. 내가 결혼해야 하는 나이를 왜 네놈이 정하시는데요.

울컥 치민 반박을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하고 속으로만 쏘아붙였다. 애써 웃으면서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다고 했더니 소개팅남이 의외라는 투로 말했다.

“보기와는 다르게 드센 면이 있으시네요.”

살면서 처음 듣는 평가였다. 진짜 드센 게 어떤 건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정안을 소개시켜 주고 싶었다. 쌍욕 먹으면서 물벼락 좀 맞아보면 단박에 이해할 텐데.

‘뭐래, 이 미친놈이.’

정안이 어처구니없는 표정으로 소개팅남의 얼굴에 물을 끼얹는 장면이 떠올랐다.

큭. 나는 광대를 실룩이면서 비죽 새어나오는 웃음을 억눌렀다.

“칭찬이 아니었는데.”

소개팅남이 떨떠름하게 중얼거렸다. 덕분에 웃음기가 싹 날아갔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에 퇴짜를 놓고 싶었지만 불행히도 나는 사회인이었다. 교장한테 사사건건 트집잡히지 않으려면 이 고난을 원만하게 넘겨야 한다.

내 앞에 앉은 남자를 학부모라고 생각하고 비위를 맞췄다. 뭐라고 지껄이든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지으면서 식사에만 집중했다.

가뜩이나 졸려서 입맛도 없는데 밥맛없는 상대랑 얼굴 마주하고 먹으려니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수 없었다.

듣는 둥 마는 둥, 먹는 둥 마는 둥, 반쯤 정신을 놓고 있을 때였다.

따각따각따각.

어디선가 타자 소리가 들려왔다. 얼음물을 뒤집어쓴 듯, 칼날 같은 한기가 전신을 관통했다. 나는 화들짝 놀라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여긴 레스토랑이었다. 카페가 아니라. 키보드는커녕 노트북을 쓰는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마음속에서 시커먼 불안이 뭉게뭉게 부풀어 올랐다.

설마. 아니겠지.

“왜 그러세요?”

소개팅남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다.

“어디서 타자치는 소리가 들려서요.”

“잘못 들으신 거겠죠.”

그러나 타자 소리는 지금도 들리고 있었다. 심지어 아주 가까웠다.

아무래도 나한테만 들리는 것 같았다. 몸서리쳐지게 무서운 한편으로 다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안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내 정신에 문제가 생긴 걸지도. 나 혼자 환청을 듣고 환각을 보는 거라면. 키보드와 주우금이 모두 내 머릿속 망상에 불과하다면.

그러면 최소한 목숨은 안전하겠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환청이든 아니든, 이 소리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내 등 뒤에 있는 테이블 위에서 저 홀로 타자치는 검은색 유선 키보드를 발견할 수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게 왜 여기에 있는 걸까. 버려도 되돌아올 뿐 아니라 쫓아오기까지 한단 말인가?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었다.

잠깐, 이게 여기 있다는 건...

섬뜩한 예감에 입구를 쳐다보니 아니나 다를까, 우금이 들어오는 게 보였다.

입구 앞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던 직원과 손님들이 넋 나간 얼굴로 우금을 쳐다보았다.

환각은 개뿔. 저 자식은 진짜였다. 진짜 사람도 아니면서 현실에 존재하고 있었다.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걸까. 나를 쫓아온 걸까?

우금에겐 스토커 기질이 있었다. 사냥감을 점찍으면 오랜 기간 주위를 맴돌면서 감시하고 관찰하는 것이 우금의 취미였다.

설마 나한테도? 우금이 이곳에 나타난 게 애인도 사냥감이 될 수 있다는 뜻처럼 느껴져서 목구멍이 죄어들었다.

“화장실 안 가세요?”

소개팅남의 목소리가 정신을 일깨웠다. 나는 마지못해 화장실로 향했다.

화장실은 입구 근처에 있었다. 자연히 우금과 마주칠 수밖에 없었다. 나를 본 우금이 반색을 하며 멈춰 섰다.

“지안아.”

우금은 놀라지도 않았다. 마치 내가 여기 있는 걸 알고 온 사람처럼.

“당신이 여긴 웬일이야?”

나는 딱딱하게 물었다.

우금은 한마디로 반문했다.

“넌?”

거짓말로 모면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들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다.

나는 얌전히 실토했다.

“소개팅 왔어.”

우금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동료 선생 만나는 줄 알았는데.”

“미안해. 그 선생님 부탁이 이거였어. 소개팅 나와달라는 거.”

“내가 있는데?”

“남친 있다고 아직 말 못 했어.”

“안 한 건 아니고?”

우금이 차분한 목소리로 정곡을 찔렀다. 일순 말문이 막혔다.

안 한 게 맞다. 뭐라고 말해.

‘죄송한데 저 남자친구 있어요.’

‘어머, 정말? 언제 생겼는데?’

‘그제요.’

‘어떻게 만났는데?’

‘저주받은 키보드로 글을 쓰니까 갑자기 나타났어요.’

‘뭐하는 사람인데?’

‘연쇄살인마요.’

이럴까?

내가 대답을 안 하자 우금이 부드럽게 말했다.

“표정 풀어. 나 화 안 났어.”

“...진짜?”

“말 못할 사정이 있었겠지. 안 그래?”

우금이 관대하게 미소 지었다.

누가 보면 성자인 줄 알겠다. 살인잔데.

“내 걱정 말고 볼일 봐.”

다정하게 속삭인 우금이 내 옆을 지나쳐 갔다. 사방에서 날아와 꽂히는 시선을 무심히 외면하면서.

한 발 늦게, 우금의 대답을 듣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다. 여기 왜 왔는지.

우금을 뒤돌아보고 있는데 문득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다.

소개팅남이 미심쩍은 얼굴로 이쪽을 보고 있었다.

우금의 정체를 알면 그렇게 쳐다볼 수 없을 텐데.

나는 소개팅남의 의심을 떨치기 위해 화장실에 다녀왔다. 그런데 자리로 돌아와 보니 하나님 맙소사.

우금이 소개팅 테이블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소개팅남을 건너뛰고 얼굴이 마주 보이는 자리였다.

내 시선을 알아챈 우금이 싱긋 웃고는 손을 흔들었다.

대체 무슨 꿍꿍인가.

나는 자리에 앉으면서 우금을 힐끔거렸다. 소개팅남이 내 시선을 알아차리고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아는 분이세요?”

“네?”

소개팅남이 나를 보면서 뒷자리를 고갯짓했다. 우금을 가리키는 거였다. 무심결에 우금과 눈을 마주치자 장난스럽게 웃으며 어깨를 으쓱였다.

가슴이 선뜩했다. 우금은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을 때도 아무렇지 않게 웃을 수 있는 캐릭터였다. 저 자식이 웃는 게 웃는 게 아닐 때가 많았다.

사실은 화났으면 어쩌나. 으슥한 밤, 아무도 없는 뒷골목에서 우금이 소개팅남의 모가지를 비트는 장면이 떠올랐다.

기우라는 걸 안다. 우금이 아무나 죽이는 놈은 아니니까.

그래도 무서운 건 어쩔 수가 없다.

“아. 네...”

“어떻게 아는 분이세요?”

소개팅남이 집요하게 물었다.

뭐가 그렇게 궁금할까.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의 인간관계가 그렇게 궁금할 일인가?

우금도 내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였다.

뭐라고 대답하면 좋단 말인가. 우금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면 남자친구라고 해야 하고 소개팅 주선자에게 예의를 지키려면 거짓말을 해야 했다.

내가 이도저도 못하고 대답을 망설이고 있을 때였다.

어떤 여자가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다가오더니 대뜸 우금의 맞은편에 앉았다. 파마한 뒤통수에 가려 우금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얼떨떨했다. 날 쫓아온 줄 알았는데. 약속이 있었던 건가?

하지만 아니었다.

느긋하게 묻는 우금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신지.”

“그쪽이랑 친해지고 싶은 사람.”

헌팅이었다. 우금의 외모에 혹해 접근한 것이다.

짜증이 치밀었다. 차라리 악어 주둥이에 머리를 집어넣어라. 내 앞에서 이러지 말고.

“누구 기다려요?”

잘생긴 연쇄살인마한테 꽂힌 여자가 유혹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여자친구 기다립니다.”

머리카락이 쭈뼛 곤두섰다. 역시. 날 쫓아온 게 맞았다.

우금의 대답을 들은 소개팅남이 의심의 눈초리로 나를 건너다보았다. 설마 당신?

소개팅남의 뒤에서 여자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딱 봐도 있을 것 같더라니.”

“유감이네요.”

우금은 재미있다는 듯이 웃었다. 나는 하나도 재미없었다.

“지안씨.”

소개팅남이 뒷자리를 눈짓하며 대답을 독촉했다. 어쩔 도리가 없었다.

“제 남자친구예요. 저 사람.”

“남친이 있는데 소개팅을 나와요?”

소개팅남이 어이없다는 투로 따졌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민망하고 거북해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나는 사과를 연발하며 우금의 테이블로 도망쳤다.

나를 본 헌팅녀의 표정도 소개팅남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어이상실.

“뭐야. 여자친구 소개팅 끝나는 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가 우금을 향해 물었다.

우금은 대답하지도, 헌팅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빙글빙글 웃으며 나를 올려다보았다. 좀 전의 남친 선언이 만족스러운 듯했다.

나보다 어리고 예쁜 헌팅녀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아냥거렸다.

“수준도 안 맞는 것 같은데.”

초면에 무례하기 짝이 없었다. 기분이 상했지만 일을 키우고 싶지 않아서 군말 없이 우금의 팔을 잡아당겼다.

그런데 우금이 일어나지는 않고 헌팅녀를 조롱했다.

“눈이 장식인가 봐요.”

“뭐라고요?”

“귀도 장식인가? 기능을 못하는 부위는 없는 게 낫지 않겠어요?”

소름이 돋았다. 이 사이코가 조만간 저 여자의 눈을 뽑고 귀를 자를 것만 같아서.

우금의 에두른 위협에 겁먹은 헌팅녀가 입을 다물었다.

이건 또 무슨 상황인가. 찰나 간에 머리가 팽팽 돌았다.

내가 만든 우금은 자신을 향한 모욕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남자다. 도리어 웃으며 칭찬으로 받아들이는 남자다.

그런데 애인에 대한 모욕은 견디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나는 졸지에 시청각을 잃을 위기에 처한 여자를 위해 우금에게 애원했다.

“그냥 가자. 응? 제발.”

우금은 순순히 끌려나왔다.

나는 우금을 끌고 레스토랑을 나오면서 헌팅녀의 신변에 아무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다.

레스토랑을 나서자 우금이 다른 손으로 제 팔을 붙든 내 손을 잡아 내렸다. 그리고는 내 손을 맞잡았다. 그냥 잡은 것도 아니고 깍지를 꼈다.

우금의 손가락은 피아니스트처럼 길었고 손바닥은 부드러웠다. 살인자의 손 같지 않았다. 크고 따뜻한 손이었다. 뜻밖의 온기가 마음을 어지럽혔다.

대체 무슨 속셈인가. 할 수만 있다면 우금의 머리통을 열고 그 속을 들여다보고 싶었다.

내 손은 왜 잡은 건지.

내 편은 왜 든 건지.

나는 왜 쫓아온 건지.

나를 어떻게 할 생각인지.

묻고 싶은 말은 많은데 하나도 묻지 못하고 거리를 걸었다.

와중에 우금이 불쑥 말했다.

“바람피우지 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당부가 아니라 경고처럼 느껴졌다.

나는 황급히 변명했다.

“바람피운 거 아니야. 예연쌤이 사정사정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간 거야. 저 남자랑 다시 만날 생각도 없었어.”

목숨이 걸린 탓에 자꾸만 변명이 길어졌다. 우금은 변명하지 말라고 쏘아붙이거나 화내지 않았다. 그는 다만 빙글빙글 웃으며 말했다.

“바람피우면 죽는다?”

쿵. 심장이 곤두박질쳤다. 빈말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다.

나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우금의 손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왔다.

데려다주기만 할 줄 알았더니, 우금은 제 집인 양 따라 들어왔다.

들어오든지 말든지.

그저 자고만 싶었다. 몇 시간 못 잔 탓에 머리가 무거워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나는 비척비척 소파로 가서 쓰러졌다.

묵직한 체념이 눈꺼풀을 짓눌렀다. 될 대로 되라. 죽기밖에 더하겠는가.

나는 죽음만큼 까만 잠 속으로 서서히 잠겨 들어갔다.

“침대에서 자야지.”

부드럽게 타이르는 목소리가 아스라이 들려왔다.

나는 선잠 속에서 칭얼거렸다.

“내버려둬...”

얼핏 나직한 웃음소리를 들은 것도 같았다.

이윽고 몸이 두둥실 떠올랐다. 단단한 팔과 따뜻한 품이 내 몸을 감싸 안고 잔잔히 흔들렸다.

나는 까무룩 잠이 들었다.

나는 어둠 속에 있었다.

벽도 천장도 바닥도 없는 암흑 한가운데 혼자 서 있었다.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는 건 밑도 끝도 없는 검정 뿐.

“저기요!”

내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아무도 없어요?”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어쩔 줄 모르고 두리번거리는 와중에, 멀리서 어떤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나는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귀를 기울였다.

따다다닥...

그것은 타자 소리였다.

심장이 보이지 않는 손아귀에 붙잡힌 것처럼 꽉 조여들었다. 순식간에 손끝에서 발끝까지 차가워졌다.

나는 곧장 반대 방향으로 도망쳤다. 종아리가 터져라 내달렸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어둠 속을 미친 듯이 질주했다.

타자 소리가 점점 커지고 빨라지면서 내 뒤를 쫓아왔다.

폐가 터질 것 같은데 멈출 수가 없었다. 아무리 달려도 저 소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벌어진 입에서 거친 숨과 단내와 울음이 새어 나왔다. 아, 제발.

제발!

“허억!”

나는 소스라치며 깨어났다. 익숙한 천장. 내 방이었다. 잠결에 우금이 나를 안아 옮겼던 게 어렴풋이 기억났다.

방은 어두웠고 집 안은 잠잠했다. 인기척도 없었다. 돌아갔나?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와 거실로 나가 보았다. 거실과 부엌 모두 환하게 불 켜져 있었지만 우금은 없었다.

소개팅까지 쫓아와놓고 그냥 갔단 말인가? 우금의 행동을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

세상 다정하게 굴다가도 순간순간 살벌하게 돌변하고. 우금이 원래 이런 캐릭터였나?

그렇다. 우금은 원래 그런 캐릭터였다. 자상하고 사교적인 신사. 그 이면에서 비틀린 정의를 집행하는 연쇄살인마.

내가 그렇게 만들었지만 직접 겪어 보니 보통 섬뜩한 게 아니었다.

문득 밤 시리즈 습작들을 읽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우금을 만들었는데 그에 대해 아는 게 너무 없었다. 아까만 해도 그렇다. 저를 향한 모욕에는 눈 하나 깜짝 않는 우금이 나를 향한 비방에 그토록 날카롭게 반응할 줄이야.

방으로 돌아온 나는 컴퓨터를 켜고 밤 시리즈 습작들을 하나하나 훑어 보았다. 내가 잊고 있거나 간과하고 있는 우금의 설정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중요한 걸 찾아냈다. 데뷔 초에 썼던 주우금의 하나뿐인 러브스토리. ‘우금은 절대 자신의 연인을 죽이지 않는다’는 문장이 지워진 이유.

우금에겐 애인을 죽인 전적이 있었다.

바로 나.

포부 당당하게 로맨스로 시작했으나 결국 스릴러로 끝나버린 습작 한 편.

여주는 나였다. 그땐 그냥 주인공 한번 해 보고 싶었다. 평소 쓰는 공포 소설에서 말고.

결말은 배드엔딩이었다. 여주 하지안은 사실 우금이 계속 찾아다니던 악인이었고, 단 한 순간도 우금을 사랑한 적이 없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우금은 크게 상처받고 그녀를 죽였다.

문제는 마지막 문단이었다.

"끝내 지안을 죽인 이유를 우금 자신도 알지 못했다. 정의감 때문인지, 배신감 때문인지. 죽여야 했기 때문인지, 죽이고 싶었기 때문인지.

오로지 악을 사냥하는 우금에게 어쩌면 그녀는 단 하나의 예외였을지도 모른다.

...모른다."

모호하기 짝이 없는 마무리였다.

우금이 여주를 죽인 이유가 죽어 마땅한 악인이기 때문인지, 자기를 배신한 애인이기 때문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그게 문제였다. 후자라면 내 목숨이 위험하니까. 죽어 마땅한 놈만 죽이는 우금의 규칙에 예외가 있다는 뜻이고, 그 예외가 하필 우금의 애인, 즉 나라는 뜻이니까.

게다가 지금 내 상황도 이 습작이랑 똑같았다. 우금을 사랑하지 않는데 애인이 됐으니까. 이 사실을 들키면 우금은 나를 죽일 것이다.

들키면 죽는다. 배신하면 죽는다. 이래저래 죽을 일만 남은 것 같았다.

안 돼. 이렇게 죽을 순 없다. 앙다문 턱에 힘이 들어갔다. 나는 마지막 문단을 통째로 지워버렸다. 결말을 명확하게 수정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저주받은 키보드가 제멋대로 눌리며 내가 지운 문단을 되살렸다. 몇 번을 지워도 마찬가지였다. 보다못해 습작 파일을 삭제하려고 했더니 에러 메세지가 떴다. 파일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왜.

나는 저주받은 문서를 열었다.

"지안은 몇 번이고 백스페이스 키를 눌렀으나 소용없었다. 과거란 그런 것이었다. 지울 수도, 바꿀 수도 없는 것."

나는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쥐어뜯었다. 몰랐다. 시커먼 수렁에 머리끝까지 잠겨 있었다는 걸.

써 놓고 창피해서 다시 한번 들춰 본 적도 없는 이 습작이 이런 식으로 내 발목을 잡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내가 왜 이딴 걸 썼을까. 결말은 또 왜 이따위로 냈을까. 그냥 하지안이 악인이라서 죽였다고 쓸걸. 쓸데없이 애매하게 만들어서는...

살인마의 애인이 되는 것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빼도 박도 못할 황천길이었다.

애인 되지 말걸. 그러면 우금은 나를 절대 해치지 않았을 텐데. 굳이 애인을 자처해서 위험을 자초한 게 아닌가.

별안간 모골이 송연해졌다. 이제 보니 소개팅은 자살 행위였다. 심지어 들키기까지. 우금이 나를 살려둔 게 신기할 지경이었다.

바람피우면 죽는다?

우금의 경고가 새삼 섬뜩하게 귓가를 맴돌았다. 뱃속이 따끔따끔하게 아파왔다. 스트레스성 복통이 도진 모양이었다.

그때였다.

삑 삑 삑 삑.

밖에서 도어락 눌리는 소리가 들렸다.

우금이다.

그렇게 생각한 순간, 갑자기 뱃속이 뒤틀렸다. 찌르는 듯한 복통이 눈앞을 하얗게 물들였다. 누군가 내 창자를 걸레 짜듯 비트는 것 같았다.

“아악...”

비명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배를 부여잡고 방바닥에 쓰러졌다.

달려오는 발소리와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다. 우금이 와 있었다.

나를 내려다보는 우금의 눈빛은 지나치게 어둡고 깊어서, 뻥 뚫린 나락처럼 보였다.

안 돼. 그런 눈 하지 마. 날 죽이지 마.

나는 젖 먹던 힘까지 짜내서 우금에게 애원했다.

“살려줘...”

나에게 뻗어오는 커다란 손을 마지막으로 눈앞이 캄캄해졌다.

아득하게, 수런대는 말소리가 들렸다.

의식이 물속에 잠겨 있는 것처럼 혼곤했다. 나는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다.

눈을 뜨자 하얀 불빛들이 두 눈을 내리 찔렀다.

오른손을 들어 빛을 가리려는데 따끔한 통증이 팔을 잡아당겼다.

“아얏.”

내 팔에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다.

그제야 머리 위에 매달려 있는 링거팩이 보였다.

병원?

“일어났어?”

누군가의 다정한 목소리가 내게 물었다.

멍하니 고개를 돌리자 웬 잘생긴 남자가 보였다.

이 남자는 누굴까.

내가 아는 남자 중에 이런 미남은 없는데.

별안간, 번뜩 떠오른 기억이 뇌리를 할퀴었다.

주우금!

일어나려 버둥거리자 우금이 내 어깨를 가만히 내리눌렀다.

“좀 더 누워 있어.”

그를 거역할 수 없었다.

나는 힘없이 누워 마른 입술을 달싹였다.

“어떻게...”

어떻게 네가 여기 있냐는 물음이었는데 우금은 어떻게 내가 여기 있냐는 뜻으로 이해했다.

“너 쓰러져서 내가 응급실로 데려왔어. 급성 위경련이래. 먹는 것 좀 조심하지.”

우금이 넌지시 책망했다.

기가 막혔다. 먹는 것 때문이 아니다. 너 때문이다.

나는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다. 스트레스가 몸으로 온다. 스트레스성 두통, 복통과는 거의 더불어 사는 수준이었다. 전에도 악플 한 번 잘못 봤다가 응급실에 실려 온 적이 있었다.

내가 쓰러진 건 너 때문이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도 없고.

다시금 속이 쓰려왔다.

“아픈 건 좀 어때. 괜찮아?”

우금이 내 이마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물었다.

자기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것도 모르고.

“괜찮아.”

말투가 무뚝뚝해지는 걸 막을 수가 없었다.

“다행이네.”

우금은 내 앞머리 몇 가닥을 만지작거리다가 지나가듯 물었다.

“나한테 살려달라고 한 건 기억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물론 기억난다. 하지만 그걸 왜 묻는가. 설마 눈치챈 건가? 내가 자기 정체를 안다는 걸?

“아파서 죽는 줄 알았거든. 그래서 그랬어.”

나는 시선을 돌리고 변명했다. 눈을 마주치고 있으면 거짓말을 들킬 것만 같아서.

우금이 계속 내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다.

“너한테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좀 이상했어.”

당연히 그랬겠지. 너한테 그 말을 했던 인간 중에 네가 살려준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었으니까. 내가 처음이니까.

나는 짐짓 무심하게 화제를 돌렸다.

“응급실은 보호자 없으면 못 오는 줄 알았는데.”

“나 있잖아.”

우금이 태연한 얼굴로 헛소리를 지껄였다.

어찌나 황당한지, 나도 모르게 우금 쪽으로 고개가 돌아갔다.

“당신이 접수했어?”

“그럼?”

우금이 반문으로 시인했다.

무슨 수로? 나는 곧바로 튀어나온 의문을 또 다시 삼켰다. 우금은 자기가 진짜 사람인 줄 안다. 이런 질문은 자칫 우금의 정체성을 건드릴 소지가 있었다.

하지만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었다. 우금이 어떻게 내 보호자가 될 수 있는가. 허구의 인물인데 주민등록 따위 있을 리가 없잖아.

마음 같아서는 접수처에 가서 물어보고 싶었다. 저기요, 이 사람 주민번호 조회해 보셨어요? 조회가 되던가요?

잠시 후 간호사가 다가와 내 팔에 꽂힌 링거 바늘을 뽑았다.

“수납하고 퇴원하시면 되세요.”

그렇게 말하는 간호사의 눈길은 우금에게서 떨어질 줄 몰랐다.

주위에 있는 환자들과 보호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계속해서 우금을 흘끔거리며 연예인 아니냐고 수군거렸다.

연예인은 무슨. 사형 집행인이다.

나는 고개를 흔들면서 침대에서 일어나 주머니를 뒤적였다.

그런데 잡히는 건 공기뿐, 지갑은 물론 핸드폰조차 없었다.

그만 아연해져서 우금을 타박하고 말았다.

“여기 올 때 내 몸만 챙겼어?”

우금이 내 이마에 가볍게 딱밤을 때렸다.

콩.

“걱정 마.”

뭐가 이렇게 친근한가. 연쇄살인마랑 친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는데.

나는 불편한 기분을 숨기려고 애쓰면서 우금의 뒤를 따라 수납 창구로 향했다.

우리 차례가 오자, 우금이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들었다.

어디에서 났을까. 내가 작가지만 알 수 없었다. 밤 시리즈는 추리물이 아니라 공포물이기 때문에 우금이 가진 돈의 출처는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수납 직원이 결제하는 걸 기다리면서 이 카드는 분실 카드라든지, 해지됐다든지, 도난 신고가 들어온 카드라는 경고음이 뜨기를 바랐다.

우금이 경찰에 잡혀갔으면 했다.

그러나 카드는 정상 결제되었고 우리는 아무 일 없이 응급실을 나섰다.

병원 앞 택시 정류장으로 향하는데 우금이 내 손목을 붙잡았다.

“어디 가.”

“택시 타러...”

우금은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며 나를 주차장 쪽으로 끌어당겼다.

“바보야, 내가 너 데리고 왔다니까. 차 가져왔다고.”

우금이 가져왔다는 차는 검은색 포르쉐였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물론 우금은 재력가였다. 소설 속에서. 하지만 여긴 현실 세계란 말이다. 이 포르쉐는 대체 어디서 튀어나왔단 말인가.

“타실까요?”

조수석 문을 열고 장난스럽게 권하는 우금을 보니 현실감이 사라졌다.

하긴. 허구의 인물도 현실에 튀어나와서 쏘다니는 마당에 허구의 차랑 카드가 못 나올 건 뭔가. 이해하기를 포기하는 게 편했다. 나는 얌전히 조수석에 올라탔다.

집까지는 그야말로 순식간이었다.

차가 입주자 출입구로 들어서는데 차단기가 그냥 올라가는 걸 보고 눈을 의심했다. 저게 왜 올라가지?

설마하고 눈을 돌리자 운전석 앞유리에 붙어 있는 입주자 스티커가 보였다.

“아...”

신음 같은 탄식이 절로 흘렀다. 단박에 알 수 있었다. 우금에게 저 스티커가 있는 이유. 내 애인이니까.

지하주차장에 차를 댄 우금이 범퍼 앞을 빙 돌아와 조수석 문을 열어 주었다. 게다가 내 손을 잡아주기까지. 조금 과하지만 훌륭한 에스코트였다.

이래서 여성 독자들이 좋아하는구나.

아파트 단지까지 데려다주는 걸로 충분한데, 우금은 엘리베이터도 같이 탔다. 굳이 집 앞까지 쫓아온다 싶더니 집까지 따라 들어오려고 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집에 안 가?”

우금을 홱 뒤돌아보며 뾰족하게 묻자 봄바람처럼 온화한 대답이 돌아왔다.

“갈 거야. 너 죽 끓여 주고.”

“그냥 가. 나 입맛 없어.”

무심코 가시를 세웠다가 한 박자 늦게 우금의 정체를 떠올렸다. 연쇄살인마.

애인을 죽인.

나는 누그러진 목소리로 얼른 덧붙였다.

“마음만 고맙게 받을게.”

방심하면 안 되는데. 우금이 너무 자상하게 굴어서 자꾸 까먹는다.

“입맛 없어도 먹어야 돼. 너 오늘 하루 종일 굶었잖아.”

우금이 고집스럽게 밀고 들어왔다. 나는 속수무책으로 떠밀렸다.

하지만 이대로 우금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조금 있으면 밤 11시. 보통의 애인 사이라면 자고 갈 시간이었다.

저주 받은 키보드랑 한 집에 사는 것도 끔찍한데 연쇄살인마까지 더할 순 없다. 나는 이제 막 퇴원했단 말이다. 아까처럼 우금을 보고 급성 위경련을 일으키는 건 사절이었다.

“하루 종일 안 굶었어. 저녁만 굶었어. 아침 점심은 다 먹었는데...”

우금을 돌려보내려고 변명하는 도중에 점심 먹으면서 소개팅을 한 게 생각났다. 말끝이 절로 기어들었다.

잊지 말자. 이 자식은 배신한 애인을 죽여버린 남자다. 배신하면 죽는다.

“점심을 다 먹기는. 내가 너 파스타 거의 다 남긴 거 봤어.”

우금이 가소롭다는 표정으로 코웃음 쳤다.

그걸 언제 봤을까. 새삼 우금의 관찰력이 소름 돋았다. 나도 내가 점심을 얼마나 먹었는지 기억 못하고 있었는데.

“많이 안 남겼는데. 면이 불어서 그렇게 보인 거야.”

반사적으로 변명하다가 우금이 거짓말을 질색하는 게 떠올라 자신 없게 덧붙였다.

“...아마.”

우금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나를 지나쳐 부엌으로 갔다.

“죽 끓여 줄 테니까 조금이라도 먹어.”

애인이라는 설정 때문일까. 우금은 내 집 찬장에 뭐가 있는지 제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꿰뚫고 있었다.

그리고 못하는 게 없는 완벽남답게 요리에도 탁월한 솜씨를 발휘했다.

나는 쉬고 있으라는 우금의 권유를 무시하고 식탁에 앉아 우금이 독을 넣는지 안 넣는지 감시했다.

딱히 수상한 행동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정작 우금이 완성된 죽을 한 그릇 퍼서 내 앞에 내려놨을 때, 혹시나 하는 의심에 한 숟가락 뜨기도 힘들었다.

독이 들었을지도 모른다. 대놓고 안 넣었다 뿐이지, 이미 넣었을 지도 모른다. 쌀자루에, 밥솥에, 소금통에. 하다못해 이 그릇에 무색무취의 독을 발라놨을 수도 있지 않은가.

우금에겐 기회가 있었다. 소개팅 끝나고 나랑 같이 집에 돌아왔으니까. 내가 자는 동안 어딘가에 독을 넣었을지도 모르는 일 아닌가.

내 망설임을 간파한 우금이 농담조로 꼬집었다.

“왜. 독이라도 넣었을까 봐?”

나는 흠칫 얼어붙었다가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그럴 리가...”

내가 자기 정체를 안다는 걸 알고 하는 소리는 아니겠지.

“독 같은 거 안 넣었으니까 안심해. 봐.”

우금은 보란 듯이 한 술 떠서 먹고는, 한 술 더 떠 나에게 내밀었다.

“자.”

나는 주저주저 받아먹었다. 최대한 적게 먹으려고 입을 조금 벌린 탓에 수저에서 밀린 죽이 입가에 묻었다.

그러자 우금은 기다렸다는 듯이 내 입가를 엄지로 훔쳤다. 애인이 아니라 아이 취급을 받는 것 같았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우금이 나를 보면서 자기 엄지에 묻은 걸 핥아 먹었다. 관능적으로 꿈틀거리는 붉은 혀가 시선을 사로잡았다. 허리가 오싹하고 입 안이 바짝 말라붙었다.

거짓말처럼 심장이 두방망이질 쳤다. 어이가 없었다. 이런 게 흔들다리 효과인가.

나는 아랫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속지 마. 이건 설렘이 아니야.

“입술 깨물지 마.”

우금이 손을 뻗어 내 입술을 살며시 매만졌다.

그리고 의자에서 일어나 나를 향해 고개를 수그리며 짓궂게 속삭였다.

“내가 물어 줄게.”

곧바로 입술이 맞닿았다. 이를 세우고 내 아랫입술을 살짝 깨문 우금이 옅은 웃음을 흘리며 내 목덜미를 감쌌다.

뒤이어 숨결이 섞이고 혀가 얽혔다. 야릇한 전류가 척추를 타고 흘러내렸다. 눈이 절로 감겼다.

쾌감에 호응하는 육체와는 별개로, 내 머릿속에는 배신하면 죽는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렇다면 우금은 어디까지 용인할까. 무엇을 용납하지 못할까. 그걸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키스도 거부할 수 없었다.

어차피 나는 우금을 사랑하는 척해야 한다. 안 그러면 살해당할 테니까.

나는 고개를 젖히고 키스에 응했다.

젖은 입술. 뜨거운 숨결. 유영하는 혀. 오전에 했던 격렬한 키스와는 정반대로 부드럽게 애태우는 키스였다.

...애가 탄다고?

눈이 번쩍 뜨였다.

미쳤구나, 하지안. 이놈은 살인마야.

나는 우금의 어깨를 잡아 밀었다.

순순히 밀려난 우금이 아쉬운 표정으로 내 입술을 문질렀다.

“아프니까 어쩔 수 없지.”

내 몸이 안 좋아서 밀어낸 줄 아는 모양이었다.

“간다. 몸조리 잘해.”

우금은 내 이마에 뽀뽀한 뒤 미련 없이 떠났다. 죽만 끓여 주고 갈 거라더니 정말이었다.

우금이 그냥 가서 다행이다. 다행이긴 한데... 언제까지 다행일 수 있을까. 아직까진 아무 일도 없었다. 하지만 내일은 어떨까. 또 모레는?

우금은 나에게 무엇을 바라고 어디까지 바랄까. 가늠할 수 없어서 불안했다.

나는 가시 같은 불안을 품고 식탁에 앉아 우금이 끓이고 기미까지 하고 간 죽을 떠먹었다.

돈 주고 사 먹어도 안 아까울 맛이었다.

와중에 작은 소리가 신경을 거슬렸다.

타다다닥 타다닥...

“!”

타자 소리였다. 나는 벌떡 일어나 방으로 달려 들어갔다.

아니나 다를까, 키보드가 타자를 치고 있었다.

우금이 계속 활동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불길한 예감에 컴퓨터를 켜자 기다렸다는 듯 작성 중인 문서가 튀어 올랐다.

"우금은 지안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그녀의 고통에 찬 신음, 창백한 얼굴, 힘없이 늘어진 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우금의 가슴이 다시금 술렁였다.

몸속에 폭풍우가 치는 듯했다. 이제껏 겪어본 적 없는 동요가 그를 뒤흔들었다.

우금은 묵묵히 자동차의 속력을 높였다. 깊숙이 스며든 무력감을 떨치려면, 방법은 한가지뿐이었다.

사냥."

맙소사. 우금이 사람을 죽이러 가고 있었다.

나 때문에.

나는 반사적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우금을 불러들여야 했다. 차라리 내가 응급실에 가고 말지, 다른 사람을 영안실로 보낼 순 없었다.

하지만 막상 전화를 걸려고 보니 우금의 번호를 몰랐다. 우금은 내 번호를 아는데. 그 자식은 우리집 도어락 비밀번호까지 아는데. 내가 우금에 대해서 아는 게 대체 뭔가. 있긴 있나?

턱끝까지 차오른 자괴감 속에서 문득 우금과 통화했던 게 떠올랐다. 정안의 집에서 우금의 전화를 받지 않았나. 나는 곧바로 통화 목록을 뒤져 우금의 번호를 찾아냈다. 그런데.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숨이 턱 막혀왔다. 새카맣게 밀려오는 좌절감에 일순 눈앞이 캄캄했다.

아니야. 나한텐 이게 있어.

나는 아랫입술을 짓씹으며 저주받은 키보드를 두드렸다.

"우금이 핸드폰 전원을 켰다."

그러나 쓰기가 무섭게 지워졌다.

이번엔 지워진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우금이 사냥할 때 핸드폰을 끄기 때문이었다. 내가 만든 설정 때문에. 사람 죽이러 갔는데 전화라도 오면 낭패 아닌가.

통화는 글렀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우금은 차를 돌려 지안의 집으로 되돌아갔다."

돌아와, 주우금. 돌아오라고.

커서가 되돌아가며 내가 쓴 문장을 삭제했다.

"운전을 하다 보니 술렁임이 가라앉았다. 우금은 차를 돌려 집으로 향했다."

커서가 되돌아갔다.

어떻게 써도 소용없었다. 커서는 매번 백스텝을 하며 팩맨처럼 내가 쓴 모든 문장을 집어삼켰다. 우금이 사냥감을 죽이러 가는 전개로 굳어진 것이다.

나는 이를 악물고 저주받은 키보드와 노트북을 챙겼다. 나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걸 방치할 순 없었다.

나가면서 택시를 호출하려는데 목적지 입력칸에서 손이 멈췄다.

그 자식 목적지를 내가 어떻게 알아.

나는 짜증스럽게 현관에 주저앉아 노트북을 켜고 키보드를 연결했다.

"우금은 습관적으로 목적지를 되새겼다."

당장 불어, 주우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동 -2번지.’"

나는 곧바로 목적지를 입력했다.

택시에서 내려 골목으로 들어서기 무섭게, 뺨에 차가운 물방울이 떨어졌다. 비다. 엎친 데 덮친다더니 이 와중에 비까지 내리고 자빠졌다. 기분이 확 나빠졌다. 나는 비 오는 날이 무섭고 싫었다.

우금의 목적지는 철거 예정 건물이었고, 물 샐 틈 없이 잠겨 있었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핸드폰을 손에 쥐고 우금을 찾아 어두운 뒷골목을 헤맸다.

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주우금. 설마 벌써 죽인 건 아니겠지...?

그때, 빗소리 사이로 숨넘어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순식간에 몰아닥친 한기가 양팔을 쏴 훑으며 닭살을 일으켰다. 죽도록 무서웠다. 하지만 내가 안 가면 누가 죽는다는 게 더 무서웠다.

나는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다.

모퉁이를 돌자마자 희미한 가로등 밑에 붙어 있는 남자들이 보였다. 검은 모자와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괴한이 뒤에서 가느다란 끈으로 어떤 남자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내가 들은 소리는 눈이 뒤집힌 남자의 입에서 새어나오는 소리였다. 마약으로 보이는 하얀 비닐팩들이 두 남자의 발치에 어지럽게 떨어져 있었다.

우금이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우금의 이번 사냥감은 마약상이었으니까.

옷은 언제 갈아입은 건지, 아까까지만 해도 입고 있던 정장 재킷 대신 검은색 가죽점퍼를 입은 우금이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보았다.

눈이 딱 마주쳤다.

“그헉!”

다음 순간, 남자가 숨을 들이키며 우금을 확 뿌리치고 뒤돌아 우금의 얼굴을 갈겼다.

뻑!

눈 깜짝할 사이였다. 남자는 바닥에 쓰러진 우금을 뒤로 하고 내 쪽으로 달려왔다. 악귀처럼 일그러진 얼굴이 코앞으로 들이닥쳤다. 비명이 절로 터졌다.

“꺄악!”

나도 모르게 두 팔을 들어 얼굴을 막았다. 사나운 힘이 내 손에서 핸드폰을 가로채 갔다. 나는 반사적으로 남자를 돌아보았다.

“신고하면 뒤진다.”

독살스럽게 경고한 남자가 내가 왔던 길로 달아났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나는 젖은 땅바닥에 풀썩 주저앉았다.

“내 핸드폰...”

남자가 사라진 골목을 쳐다보며 넋 놓고 중얼거리는데 한발 늦게 달려온 우금이 내 앞에서 멈칫거렸다. 그러나 무섭지 않았다.

웃기는 일이었다. 연쇄살인마는 이 자식인데, 방금 사람을 목 졸라 죽이려고 했는데, 그걸 보고도 나는 이 자식이 무섭지 않다는 게.

우금은 내 옆을 지나쳐 남자가 달아난 길로 사라졌다. 기어이 죽이러 갔다.

나는 비틀비틀 일어나 우금을 뒤쫓았다. 혼란스러웠다. 도망친 사냥감을 곧바로 뒤쫓는 건 우금답지 않았다. 사냥감이 도망치는 게 드문 일은 아니었다. 우금이 나오는 글은 사냥감, 즉 화자 시점의 공포 소설이란 말이다. 무사히 도망친 줄 알고 안도한 순간에 우금이 나타나거나, 우금에게 다시 붙잡히는 전개도 여럿이었다. 그게 더 끔찍하니까.

최소한 나는 우금이 코앞에서 놓친 사냥감을 개처럼 쫓아가게 만든 적이 없었다. 도망칠 수 있으면 도망쳐 봐라, 느긋하게 지켜보다가 새로운 포위망을 펼치는 모략가로 만들었지.

영문을 모르겠다. 이건 캐릭터 붕괴 아닌가? 개연성을 그렇게 따지면서 주인공한테는 캐붕을 일으켜?

속으로 키보드를 욕하며 골목을 달리는데 자동차 시동 소리에 이어 타이어 바닥 긁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귀청을 할퀴었다. 나는 황급히 골목에서 뛰쳐나갔다.

텅 빈 대로를 쏜살같이 빠져나가는 차 한 대가 보였다. 반쯤 열린 운전석 문에 매달린 우금도.

운전자는 우금을 떨어트리려고 발악이었다. 갈지자로 달리면서 다리로 진입한 차가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를 내더니 난간을 뚫고 추락했다.

쾅!

나는 펄쩍 소스라쳤다. 일순 내 심장이 터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하지만 곧 빠르고 세찬 박동이 고막을 두들기며 심장이 건재함을 알렸다.

허겁지겁 다리로 달려가 난간 아래를 내려다보니 풀숲에 거꾸로 뒤집힌 차가 보였다. 보닛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다. 운전석에 있을 남자도, 차 문에 매달려 있던 우금도 보이지 않았다. 두 사람 다 도저히 살아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119, 119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핸드폰이 없었다. 남자가 훔쳐간 탓이었다. 다리 밑으로 내려가는 길도 보이지 않았다.

어떡하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해야 되나? 둘 다 죽었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도 저도 못하고 있는데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덜컥 겁이 났다. 여기 있다가는 목격자로 소환될 게 분명하다. 경찰에게 뭐라고 설명하면 좋단 말인가. 이렇게 야심한 밤에, 더구나 비까지 내리는데, 여기가 집 근처도 아니고, 우산도 없이 싸돌아다닌 이유는 뭐라고 둘러댈 것이며, 목격담은 어디에서부터 말해야 하나. 우금이 사냥감의 목을 조르는 걸 봤을 때부터? 거기 왜 갔냐고 하면? 키보드가 쓴 소설을 보여줘? 정신병자 취급당하게?

나는 몸을 돌려 사고 현장에서 도망쳤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쫄딱 젖은 몸을 닦고 컴퓨터 앞에 앉았다. 죽을 만큼 피곤했지만 두 남자의 생사를 확인해야 할 것 같았다.

바로 읽어 볼 걸. 노트북도 가져가 놓고. 그렇지만 아까는 너무 놀라 경황이 없었다.

나는 저주받은 문서를 열었다.

"골목에서 튀어나온 사람은 지안이었다. 우금은 깜짝 놀랐다. 집에서 쉬고 있어야 할 지안이 왜 이곳에 있는가.

당황한 우금의 손에서 힘이 풀린 순간, 사냥감이 목끈을 뿌리치고 우금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바닥에 쓰러진 우금이 몸을 일으켰을 때, 사냥감은 이미 모퉁이 뒤로 사라지고 있었다.

사냥감도 놓쳤고 사냥하는 모습까지 들켰다. 오늘은 이만 사라져야 한다.

하지만 그 전에 지안에게 묻고 싶었다.

여긴 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뭘 알고 왔는지.

그러나 아는 척도 할 수 없었다. 지안에게 정체마저 들킬 수는 없었다.

우금이 지안의 옆을 지나쳐 가려는 순간, 빗속에 주저앉은 지안이 넋 나간 얼굴로 중얼거렸다.

“내 핸드폰...”

우금의 눈길이 그녀의 빈손에 내리꽂혔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손에 쥐어져 있던 핸드폰이 온데간데없었다.

우금은 바로 깨달았다. 사냥감이 도망치면서 지안의 핸드폰을 훔쳤다는 걸.

이유도 뻔했다. 놈이 쏟은 마약 봉지들을 지안이 봤기 때문에.

자신을 따돌린 다음 지안의 신상을 알아내서 목격자를 처리할 심산이겠지. 누가 그렇게 둘 줄 알고. 우금의 눈에서 시퍼런 불꽃이 번뜩였다.

‘오늘 반드시 죽인다.’

우금은 놈을 쫓아 비 내리는 어둠 속을 내달렸다.

골목을 벗어나기 무섭게 놈이 대로변에 세워둔 차에 올라타는 모습이 보였다.

“히익!”

우금을 본 사냥감이 진저리를 치며 시동을 걸었다. 우금이 득달같이 달려가 운전석 문을 열었을 때, 차가 급발진하며 문을 내팽개쳤다. 우금은 반쯤 열린 문에 매달린 채 놈에게 손을 뻗었다.

“으아아! 떨어져! 떨어져, 이 미친 새끼야!”

놈이 비명을 지르며 운전대를 마구 꺾었다.

차가 갈지자로 질주하며 우금이 매달린 차 문도 덩달아 열렸다 닫혔다 흔들렸으나 우금의 시선은 흔들림 없이 놈의 재킷 주머니에 비죽 튀어나온 지안의 핸드폰에 꽂혀 있었다.

그녀의 핸드폰이 닿을락 말락 우금의 손끝을 스쳤다. 그러다 마침내 핸드폰을 잡아챈 순간,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가 고막을 찢어발겼다.

돌연 세상이 뒤집혔다. 발밑에서 밤하늘이 무서운 속도로 우금을 끌어내리다가 땅으로 내던졌다.

어둠이 그를 덮쳤다."

그게 끝이었다. 나머지는 공백이었고 키보드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나는 내 기분조차 알 수가 없었다.

우금이 그 남자를 쫓아간 게 나 때문이었다니. 나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니.

어쩐지 와 닿지가 않았다. 누굴 죽이러 간 것도 나 때문, 그러다 죽은 것도 나 때문. 다 나 때문이라는 게. 내가 뭐라고.

나는 진짜 애인도 아닌데. 너는 진짜 사람도 아닌데. 내 기분이 왜 이럴까.

겨우 3일 만난 남자. 동시에 지난 3년 동안 나를 24시간 지배한 남자.

눈물이 날 것 같은 한편으로 마음이 놓였다. 너는 죽었구나. 나는 살았구나. 죄책감과 안도감이 교차했다.

나는 아랫입술을 깨물고 기분을 추슬렀다. 이게 정상이다. 소설 캐릭터는 소설 속에서나 살아 움직여야 한다.

나는 컴퓨터를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이틀 만에 누운 침대는 내 기억보다 푹신하고 안락했다.

쨍그랑!

뭔가 깨지는 소리에 잠까지 깨졌다. 나는 파드득 소스라치며 일어났다. 컴컴하고 적막한 방에 내 심장 소리만 요란했다.

무슨 소리지? 거실에서 난 소리 같았는데. 우리집에서 난 소리 맞나? 진짜 들은 거 맞아? 꿈꾼 거 아니고? 아니야. 진짜 들은 것 같아. 신고. 당장 신고하자.

나는 얼른 머리맡을 더듬었지만 핸드폰은 잡히지 않았다. 핸드폰을 도둑맞은 사실이 떠오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떡하지? 나가서 확인해 볼까? 아니면 방문을 잠글까?

나는 살금살금 방문으로 다가가 문짝에 귀를 붙였다. 가만히 귀를 기울여 봤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내 마음이 가라앉으며 두려움이 가셨다. 아무래도 꿈을 꾼 것 같다. 다 끝나지 않았나.

나는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다.

어둠에 익숙해진 눈에 바닥에 깨져 있는 화병이 들어왔다. 가시 같은 불안이 돋아 뱃속을 콕콕 찔렀다.

나는 마른침을 삼키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아무도 없었다. 이놈의 화병은 왜 혼자 떨어지고 난리일까. 사람 간 떨어지게.

한숨이 절로 나왔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더니.

허리를 굽혀 깨진 화병 조각을 치우려고 손을 뻗은 순간.

“손대지 마.”

불쑥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화들짝 소스라쳤다. 날카로운 통증이 손끝을 할퀴었다.

“아얏.”

“손대지 말라니까...”

목소리가 탄식조로 책망했다.

나는 허리를 세우고 벌벌 떨었다.

“누, 누, 누구세요?”

“나야.”

어둠 속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신사가 스르르 스며 나왔다. 나는 눈을 의심했다.

다름 아닌 우금이었다.

차와 함께 다리 밑으로 추락한 우금이 멀쩡하게 살아 있었다.

믿을 수가 없었다.

너는 죽었다. 소설은 끝났고 키보드는 멈췄다.

그런데 네가 어떻게 여기에 있는가. 어떻게...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나?

불현듯 망할 놈의 키보드 소리가 들려왔다.

꿈이 아니었다. 그렇게 깨지기 쉬운 게 아니었다.

결코 깨부술 수 없는 현실이었다.

“미안해. 집안이 어두워서 화병을 못 봤어. 내가 치울게.”

태연하게 사과한 우금이 내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나는 제자리에 얼어붙었다. 어디로든 도망치고 싶은데 어디로도 도망칠 수 없었다.

내 손을 들어 올린 우금이 피 맺힌 손가락을 입에 넣고 빨았다. 그 모습이 마치 뱀파이어처럼 보였다. 야릇한 통증이 손끝을 파고들어 등으로 퍼져 나갔다.

“아...”

신음이 절로 나왔다.

고개 숙여 내 검지를 빨고 있던 살인마가 눈을 치뜨고 나를 바라보며 입꼬리를 끌어올렸다.

그 미소를 본 순간, 아찔한 깨달음에 다리가 풀렸다.

내가 간과하고 있던 사실 하나.

주인공은 죽지 않는다.

번개가 쳤다. 찰나의 순간 어두운 거실을 희게 물들인 불빛이 내 앞에 서 있는 남자의 얼굴을 선명하게 드러냈다.

반쪽짜리 하얀 미소와 그림자 속에서 번뜩이는 눈빛.

빛과 그림자가 양분한 얼굴이 자체로 우금을 나타내는 것 같았다. 이 얼굴이야말로 우금의 본질이었다.

주우금이 누군가. 내가 쓴 공포 소설의 연쇄살인마 아닌가. 우금의 역할은 귀신, 좀비, 괴물과 같다. 그리고 그들은 죽지 않는다.

우금도 죽지 않는다. 우금은 불사신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벗어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죽음으로부터 몇 번이고 되살아나 화자와 독자를 충격과 공포로 몰아가는 존재로.

나는 화자가 우금의 죽음을 확신하며 안도할 때 우금이 귀신처럼 나타나는 전개를 즐겨 썼다. 화자와 독자의 공포가 배가되기 때문이다.

바로 지금처럼.

오금이 저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쿵쿵거렸다. 피가 식는다는 게 이런 뜻이구나. 온몸의 혈관에 한기가 흐르는 듯하다.

바짝바짝 마르는 입으로 마른침을 삼키는데 내 검지에서 입을 뗀 우금이 짓궂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방금 신음 뭐야?”

장난스러우면서도 의미심장한 말투였다. 야한 걸 기대하는 남자 친구처럼.

웃기지도 않았다. 나는 공포 영화를 찍는 기분인데 네가 찍는 건 로맨스라도 되는 듯이.

“...!”

순간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다.

‘처럼’이 아니다. 나는 완전히 간과하고 있었다.

우금은 내 남자 친구가 맞고, 나랑 있을 땐 본인을 연쇄살인마가 아니라 로맨스 영화의 남자 주인공으로 여길 수 있다는 걸.

우금이 정말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아파서 나온 거야. 상처 핥아서. 막 핥지 마, 세균 들어 가.”

나는 애써 태연한 척 퉁명스럽게 둘러대면서 우금의 손에 잡힌 손가락을 잡아뺐다.

...빼려고 했다. 하지만 우금이 놓아주지 않았다. 우금은 그림 같은 미소를 입에 걸고 내 손가락을 당겨 보란 듯이 손등에 입 맞췄다.

“정말?”

낙인이라도 찍힌 것처럼 손등이 뜨거웠다. 손등으로 파고든 열기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한기가 흘렀던 혈관을 잠식하며 온몸으로 퍼져 나가는 게 느껴졌다. 마치 독이 퍼지는 것 같았다.

“정말.”

나는 우금의 손을 다소 매몰차게 뿌리쳤다.

좀전에 느낀 게 통증 뿐만은 아니었지만, 상대는 우금이다. 사람 죽이는 남자랑 뭘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다.

거실에 불을 켜자 깨진 화병과 엎질러진 물, 흩어진 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내 시선을 의식한 우금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치울게. 일단 약부터 바르자.”

나를 소파에 데려다 앉힌 우금이 TV장에서 구급함을 꺼내 왔다. 누가 내 애인 아니랄까 봐 내 집 구석구석을 꿰고 있었다.

우금은 내 손가락에 소독약과 연고를 꼼꼼하게 바른 뒤 밴드까지 붙여 주었다.

참 섬세한 남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우금의 섬세함은 기실 치밀함이었다. 완전 범죄의 밑바탕인만큼 마냥 좋게 보이지 않았다.

밴드가 잘 붙었는지 살피면서, 우금이 지나가는 말투로 물었다.

“어디 나갔다 왔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까 나랑 마주쳤으면서. 나한테 사냥 장면을 들켰으면서. 나를 못 본 척, 모르는 척, 마약상의 목을 조르던 괴한이 아닌 척 나를 떠보는구나.

혹시 내가 자기를 알아봤을까 봐.

뭐라고 대답해야 좋을까. 사실대로 말할 순 없었다. 살인 미수 현장을 들킨 연쇄살인마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다. 다른 건 다 이해하는데 딱 하나, 거짓말은 이해 못한다는 우금의 경고가 귀에 선했다. 나는 마른 입술을 핥았다.

“...어떻게 알았어?”

내가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 우금이 하게 만들겠다는 계산이었으나 막상 던지고 보니 절벽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기분이었다.

우금이 솔직하게 나오면 어떡하나. 사실은 사람을 죽이러 갔었다고, 거기서 나를 봤다고 하면? 내가 본 괴한이 저라고 인정하면? 어떻게 알고 왔냐고 다그치면? 뒤늦은 걱정이 숨통을 조였다.

우금은 대답 대신 내 목으로 커다란 손을 뻗어 왔다. 숨이 멎었다.

목을... 졸릴 줄 알았다. 하지만 우금의 손은 내 목이 아니라 목 옆으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렸다.

“머리가 젖어 있어서.”

나는 목으로 올라오는 신음을 삼켰다. 채 마르지 않은 머리카락이 우금의 손에서 사락거렸다. 아까 비를 맞은 탓이었다.

“당신 쫓아 나갔었어.”

나는 한숨과 함께 실토했다.

“왜?”

사람 못 죽이게 하려고.

그러나 이것만은 입이 찢어져도 곧이 말할 수 없었다. 나는 최대한 유혹적인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다.

“가지 말라고...”

우금은 얼떨떨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이내 의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그냥 가라더니.”

“마음이 바뀌었어.”

“왜 갑자기?”

“아파서 혼자 있기 싫었어.”

대충 둘러대려고 꺼낸 말이었는데 말하고 보니 정말 아팠다. 온몸이 얼얼한 게 몸살 기운이지 싶었다.

우금의 얼굴에서 미소가 씻은 듯이 사라졌다. 우금이 내 배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아직도 아파?”

“배 말고.”

“어디가 아픈데.”

“몸살 기운이 좀 있네.”

대답하기가 무섭게 우금이 내 목덜미를 감싸며 얼굴을 가져왔다.

“...!”

나도 모르게 눈을 감았지만, 맞닿은 건 입술이 아니라 이마였다. 눈을 뜨자 인상을 쓰고 있는 우금의 얼굴이 보였다. 까맣고 긴 속눈썹이 닿을 듯 가까웠다.

우려하던 상황이 아닌데도 긴장이 풀리지 않았다. 심장이 맹렬하게 뛰고 얼굴에 열기가 올라왔다. 거울을 안 봐도 얼굴이 시뻘게진 걸 알 수 있었다.

“너 열나.”

우금이 심각하게 말했다.

“…당신이 차가운 거 아니고?”

나는 작게 반문했다.

비를 맞은 건 나뿐만이 아니다. 우금의 머리도 젖어 있었다. 지금 입고 있는 정장은 물기 하나 없이 뻣뻣했지만, 주인과 함께 빗속을 활보했던 검은색 가죽 점퍼는 푹 젖어 있을 게 뻔했다.

내 목덜미를 감싸고 있는 손도 얼음장 같았다. 점점 열이 오르고 있긴 하지만.

“비 맞았어?”

우금은 내가 우산 없이 빗속을 쏘다닌 걸 다 보고도 못본 척 시치미를 뗐다.

나 역시 아무 것도 모르는 척 대답했다.

“비 올 줄 몰랐거든.”

“다음부터는 우산 사서 쓰고 다녀. 비 맞고 다니지 마. 몸도 약하면서...”

우금이 내 목덜미를 감싸고 있던 손으로 내 뺨을 어루만지며 책망조로 중얼거렸다. 우금의 눈빛과 표정과 목소리에서 한결같은 걱정이 묻어났다.

나는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다.

“지금 나 걱정하는 거야?”

“그걸 말이라고 해?”

우금이 어이없다는 투로 내뱉은 반문이 죄책감을 자극했다.

나는 네가 죽은 줄 알고 안심했는데. 네가 죽길 바랐는데. 너는 나를 걱정하는구나. 고작 감기 따위에 걸릴까 봐.

나는 잘 열리지 않는 입술을 가까스로 달싹였다.

“난 괜찮아.”

“괜찮기는. 너 몇 시간 전만 해도 응급실에 누워 있었어. 왜 이렇게 몸조심을 안 해, 누굴 애태워 죽이려고.”

우금이 나를 나무랐다. 걱정과 책망이 반반 섞인 목소리였다.

쓴웃음이 나왔다. 죽지도 않으면서.

“안 되겠다. 들어가자.”

벌떡 일어난 우금이 내게 손을 내밀었다.

맥이 탁 풀리며 안도감이 밀려왔다. 의구심도 함께였다. 왜 그냥 넘어가는 걸까. 제대로 묻지도 않고. 나를 봤으면서. 혹시 들켜도 상관없는 걸까?

그러나 차마 물어볼 수는 없었다. 지금은 그저 우금이 더 이상 캐묻지 않는 게 고마울 뿐이었다.

그럼에도 눈앞에 내밀어진 손을 선뜻 잡을 수가 없었다. 사람을 죽이려던 손 아닌가.

하지만 이 손을 안 잡으면 우금이 내 마음을 의심할 것이다. 나는 망설인 적 없는 척 우금의 손을 잡고 일어났다.

우금은 나를 방으로 이끌었다. 저홀로 타자 치는 키보드가 책상 위에서 우리를 맞이했으나 우금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침대로 직진했다.

설마.

내가 멈칫거리자 우금이 나를 돌아보며 헛웃음을 지었다.

“그런 거 아니야.”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나는 우금이 이끄는 대로 머뭇머뭇 침대에 올라가 누웠다. 우금이 기다렸다는 듯 이불을 덮어 주었다. 비로소 마음이 놓였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괜한 걱정이었구나. 오늘도 무사히 넘어가는구나.

자다 깬 탓일까. 순식간에 의식이 몽롱하게 잠겨 들었다. 아득하게, 사락거리는 소리와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갑자기 뜨거운 팔이 뒤에서 온몸을 끌어안았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불 속으로 들어온 우금이 나를 껴안고 있었다.

“...!”

나는 기겁해서 몸부림쳤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러자 우금이 나를 꽉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가만히 있어.”

몸이 절로 굳었다. 우금이 나직이 덧붙였다.

“이러고 있는 게 더 따뜻할 거야.”

따뜻한 수준을 넘어 뜨거웠다. 온기가 아니라 열기가 느껴졌다.

내 팔을 움켜쥔 손아귀.

내 배를 감싸 안은 팔.

귓가를 적시며 목덜미로 흘러내리는 숨결.

등에 달라붙은 몸의 체온.

모든 게 너무나도 뜨거워서 녹아버릴 것만 같았다. 속이 울렁거렸다. 하지만 나는 착각하지 않았다.

나를 안고 있는 게 보통 남자라도 떨릴 상황인데 애인을 죽인 연쇄살인마라면 어떻겠는가.

“나더러 이러고 자라는 건 아니겠지, 설마.”

모든 용기를 쥐어짜내서 투덜거리자 나직한 웃음 소리가 귓등을 간질였다.

“자장, 자장.”

우금은 웃음기 어린 목소리로 같은 구간을 반복하며 내 팔을 다독였다.

기가 막혔다. 아기도 아니고, 자장 소리 좀 듣는다고 살인마 품에서 잠들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여기 있었다. 나는 아연한 기분으로 천장을 바라보았다. 언제 잠들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연쇄살인마를 상대로 한껏 방심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

이게 다 피로 때문이다. 그리고 몸살 때문이다. 또 수면 부족 때문이다. 이 모든 게 재수없게 겹쳤을 뿐이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금은 없었다. 다행히도.

시계를 보려고 고개를 돌리는데 이마에서 젖은 수건이 떨어졌다.

비몽사몽 간에 우금의 간호를 받은 기억이 났다. 자다가 열이 올랐고, 우금이 상비약과 물을 가져다 줬는데...

‘지안아. 일어나 봐. 못 일어나겠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내 입에 알약을 집어넣고 입술을 겹친 게. 나는 우금이 머금고 있던 물과 함께 약을 삼켰다.

뒤늦게 얼굴이 달아올랐다. 그 자식은 왜 그렇게 하는 행동마다 야한 걸까.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내가 쓴 건 공포 소설인데.

우금이 사냥에 미인계를 쓰는 에피소드는 많았지만 그렇게 노골적, 관능적, 퇴폐적으로 행동하는 장면을 쓴 적은 없다. 무엇보다 나한테 그런 걸 쓸 역량이 없었다.

내가 작간데. 내가 만들었는데. 주우금의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정말이지 하나도 모르겠다.

한숨을 쉬며 몸을 일으키자 간호의 흔적들이 눈에 들어왔다. 머리맡에 떨어진 젖은 수건, 협탁 위 물병과 유리잔, 그 옆에 못 보던 핸드폰까지.

보자마자 몸이 굳었다.

주우금 핸드폰 같은데. 집에 안 갔나?

하지만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다.

핸드폰 놓고 갔나?

나는 곧 핸드폰 밑에 깔려 있는 메모를 발견했다.

"가져.

죽 끓여 놨으니까 데워 먹고."

이걸로 위치 추적하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 설마.

나는 도리질 치며 컴퓨터 앞으로 가서 앉았다. 어젯밤의 진상을 알아내기 위해서였다. 우금이 어떻게 살아 돌아왔는지.

"사이렌 소리가 정신을 일깨웠다. 우금이 눈을 떴다.

그는 무성한 수풀 속에 처박혀 있었고, 손에는 여전히 지안의 핸드폰을 쥐고 있었다.

그새 더 굵어진 빗줄기가 온몸을 사정없이 내리쳤다.

우금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빗소리와 사이렌 소리 사이로 두런대는 말소리가 들렸다.

사냥감을 들것에 싣고 있는 구급대원들과, 손전등을 들고 주변을 수색하는 경찰들이 보였다. 아쉽지만 사냥을 미뤄야 했다.

우금은 어둠과 비바람을 틈타 자리를 피했다.

낮은 자세로 강줄기를 따라 달아나던 우금이 문득 멈춰 섰다. 지안에게 핸드폰을 돌려줄 순 없었다. 검은 옷의 괴한이 저라는 걸 가르쳐 줄 순 없으니까.

우금은 지안의 핸드폰을 주저없이 강에 던져넣었다.

풍덩."

“아아...!”

탄식이 절로 나왔다. 내 핸드폰. 아직 할부가 10개월이나 남았는데. 망할 주우금.

하지만 중요한 건 남은 할부 따위가 아니었다. 우금이 사냥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내버려두면 우금은 기어코 사람을 죽이고 말 것이다. 이 상황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잠깐만. 내가 지금 남 걱정할 땐가? 까딱 잘못하면 이 남자보다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다.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나는 양손으로 머리를 움켜쥐고 어떡하지 소리만 되풀이했다.

그런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는 암흑 속에서 돌연 섬광이 번쩍이듯, 언젠가 우금이 했던 말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왜 이렇게 무서워 해, 난 네가 원하는 대로 한 건데.’

‘이게 네가 바란 모습이잖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란 모습. 미처 생각을 정리하기도 전에 머리가 팽팽 돌았다.

그 말대로였다. 우금은 내가 만든 연쇄살인마였다.

그렇다면 내가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어쨌든 나한텐 이 빌어먹을 키보드가 있지 않은가. 개연성 더럽게 따지지만.

그럼 어떻게 바꾸지.

우금의 과거는 바꿀 수가 없다. 해 봤지만 소용 없었다. 우금은 빼도박도 못할 연쇄살인마다.

...그렇다고 앞으로도 죽여야 된다는 법은 없지.

그 순간, 머릿속 전구에 불이 켜졌다.

우금과 나를 제멋대로 써내려가는 이 글을 로맨스로 바꾸는 거다.

물론 로맨스에도 살인은 나오지. 그래도 최소한 남주가 여주를 죽이지는 않잖아. 왜? 사랑하니까.

그런데 우금은 날 사랑할까?

모른다.

작가의 권능으로 우금의 애인 자리를 꿰찼지만 우금의 마음까지 꿰찼는지는 알 수가 없다.

나는 습관적으로 엄지 끝을 잘근잘근 깨물었다.

우금이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야 로맨스가 될 텐데. 안 사랑하면 어쩌지?

어쩌긴. 사랑하게 만들어야지.

자문자답을 마치기가 무섭게 한숨이 나왔다.

난이도가 너무 극악하잖아...

사람 죽일 궁리만 하던 인간을 무슨 수로 사랑에 빠트릴 것이며, 사냥도 잊을 만큼 정신 못 차리게 할 것인가.

방법을 골몰하느라 잠을 거의 못 잤다.

요 며칠 내 수면 패턴은 둘 중의 하나였다. 잠을 아예 못 자거나, 수면 부족이 쌓여 기절하거나. 주우금 때문에 불면증까지 도졌다. 만병의 근원 같으니.

월요일인데, 일주일의 시작이 영 찌뿌둥하다.

학교로 출근하자 옆자리 다정쌤이 심각한 얼굴로 귀띔해 주었다.

“지안쌤, 주말에 교장 주선 소개팅 퇴짜 놨다며. 그 일 때문에 교무실 분위기가 안 좋아. 교장이 벌써 한바탕하고 갔어.”

“아...”

맞다. 소개팅. 또 잊고 있었다.

당일 펑크 안 된다고, 내가 안 나가면 교장한테 찍힌다고 간청하던 예연쌤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소개팅 파투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우금이 쫓아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지만, 나 때문에 예연쌤 입장이 퍽 곤란해졌겠구나.

나는 예연쌤에게 사과하러 2학년 교무실로 찾아갔다. 하지만 예연쌤은 자리에 없었다. 한참 기다려도 오지 않았다.

수업 시간을 5분 남기고, 1학년 교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교장실에서 나오는 예연쌤을 맞닥뜨렸다.

“예연쌤.”

예연쌤은 못 들은 척, 못 본 척 나를 지나쳤다. 아무래도 나 때문에 기분이 상한 것 같았다.

나는 얼른 그녀를 뒤쫓았다.

“예연쌤.”

다시 한 번 부르자 복도에 우뚝 멈춰 선 예연쌤이 표독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째려보았다.

설마 소개팅 건으로 깨졌나? 공사 구분 못하는 교장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아니.”

조심스럽게 묻자 칼같은 거절이 돌아왔다.

“드릴 말씀이 있는데...”

“나는 지안쌤한테 들을 얘기 없는데.”

예연쌤의 반응은 냉랭하기 짝이 없었다. 그래도 사과는 해야 했다.

“소개팅건, 사과드리고 싶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럴 생각으로 나간 건 아니었는데...”

예연쌤은 내게 변명의 여지조차 주지 않았다.

“죄송하면 다야?”

“네?”

“지안쌤 되게 웃긴다. 이제 와서 사과하면 무슨 소용이야? 찍힐 거 다 찍힌 마당에. 지안쌤만 마음 편해지면 그만이지?”

말문이 막혔다. 예연쌤이 표출하는 날선 분노와 적의가 두려워 그저 도망치고만 싶었다.

예연쌤은 나를 똑바로 노려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지안쌤한테 사과받기 싫어. 용서할 생각도 없고. 애초에 사과할 일을 말아야지. 이제 업무 외적으로는 말 걸지 말아 줬으면 좋겠어.”

사실상 절교 선언이었다.

점심 시간이 되어, 나는 혼자 급식실로 향했다.

평소 함께 밥을 먹던 선생님들이 앞다퉈 오늘은 같이 못 먹는다는 메시지를 보내 온 탓이었다. 내가 예민한 건지도 모르지만, 어쩐지 예연쌤의 입김이 작용한 것 같다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었다.

내가 혼자 밥 먹는 걸 본 아이들이 선생님 왕따냐고 놀리며 지나갔다. 말이 씨가 된다고 진짜 왕따 될 것 같아서 더럭 불안해졌다.

점심 시간이 끝나고 수업이 비는 시간에 예연쌤과 친한 선생 두 명이 나를 찾아왔다.

“지안쌤. 우리 잠깐 얘기 좀 할까?”

나를 아니꼽게 쳐다보는 눈초리가 고난을 예고했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두 여자를 따라 뒤뜰로 나가는데 일진들에게 끌려가는 왕따가 된 기분이었다.

뒤뜰로 나가자 두 선생은 범인을 취조하는 형사들처럼 나를 에워싸고 사정없이 몰아세웠다.

“지안쌤. 왜 그랬어?”

“네? 제가 뭘...”

“소개팅 말이야. 예연쌤이 주선해 준.”

“아.”

제3자들이 이런 식으로 간섭하는 게 좀 황당했다. 어린애들도 아니고. 예연쌤과 내가 풀 문제 아닌가.

하지만 이 여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듯했다.

“남친이 있으면 있다고 했어야지.”

“그게, 너무 갑자기 생겨서요...”

“그래도 말을 해 줘야 될 거 아냐. 예연쌤 입장이 뭐가 돼.”

“아예 말을 말던가.”

다른 선생이 시누이처럼 맞장구쳤다.

“백번 양보해서 남친 있어도 소개팅 나갈 수 있다고 치자. 굳이 나가서 파투내는 건 무슨 심보야?”

“죄송합니다.”

“우리한테 죄송할 건 아니지.”

나더러 어쩌라는 걸까. 피로감이 몰려왔다. 당사자는 사과 받기 싫다는데.

“말해 봐, 지안쌤. 일요일에 예연쌤 연락은 왜 씹은 거야?”

씹었다니. 교사라는 사람의 어휘 선택이 너무 저열하지 않은가. 하지만 지적하면 더 화내겠지.

나는 침착하게 해명하려고 애썼다.

“일부러 무시한 건 아니고요, 제가 토요일 밤에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그 말을 믿으라고?”

나는 다시 합죽이가 되었다. 말해도 안 믿을 거면서 뭐하러 추궁하는지 모르겠다.

“소개팅도 지안쌤이 부탁한 거라며.”

다른 선생이 뱁새눈으로 힐난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억울하고 당황스러웠다.

“네? 아니, 그건 아니에요.”

서둘러 부정하자 나를 향해 도끼눈을 뜨고 다그쳤다.

“그럼 예연쌤이 거짓말했다는 거야?”

네. 라는 대답은 입 안에서만 맴돌았다.

어차피 이 여자들은 나를 믿지 않는다. 사실을 밝혀 봤자 싸우자는 소리로 받아들일 것이고, 나에겐 남과 싸울 용기가 없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먼저 문책하던 선생이 말했다.

“예연쌤이 그러던데. 지안쌤이 소개팅 시켜달라고 하도 졸라서 어려운 자리 만든 거라고.”

기가 막혔다. 계속 거절하는 사람 억지로 소개팅 내보낸 게 누군데.

내가 잘못한 것 이상으로 덤터기를 쓰고 싶진 않았다. 나는 있는 용기 없는 용기 다 끌어모아 힘겹게 반박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부탁 한 적 없어요.”

그러자 나를 몰아세우던 선생 둘이 일제히 기가 막힌 표정을 지었다.

“와. 예연쌤 말이 맞네. 지안쌤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실망이다. 이젠 거짓말까지 해?”

“거짓말 아니에요. 저는 계속 거절했는데 예연쌤이―.”

“그만해. 지안쌤 때문에 예연쌤 교장한테 엄청 깨지고 운 건 알아?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두 선생은 나를 철천지원수 보듯 째려보며 떠나갔다. 뒤뜰에 홀로 남은 나는 우두커니 서서 앞으로 닥칠 파란을 예감했다.

우금이 소개팅에 쫓아오지만 않았어도.

아니, 애초에 내 앞에 나타나지만 않았어도.

주우금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

뒤뜰에서 문책당하고 온 뒤로도 몇 사람이나 찾아와서 소개팅 건을 책망하고 돌아갔다. 예연쌤의 인맥이 새삼스럽게 와 닿았다. 이래서 여왕벌 타입은 적으로 돌리면 안 된다. 벌떼한테 쏘이니까.

퇴근 무렵 나는 스트레스가 한계치까지 달한 상태였다. 좋아하지도 않는 술이 땡길 만큼.

나는 정안에게 전화를 걸었다.

“술 사 줄게, 나와.”

―얼, 하선생, 웬일이야. 음주와 흡연을 인류 최악의 악덕으로 생각하시는 분께서?

“잔말 말고 나와. 나 오늘 안 마시면 홧병 나서 죽을 것 같으니까.”

정안은 총알처럼 날아와 줬다.

나는 정안과 함께 치킨집에서 치맥을 먹으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소연했다. 술이 땡겨서 그런가 오늘따라 술이 술술 넘어갔다. 나는 금세 주량을 넘겼다.

정안은 우금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믿지 않았지만 모예연과 그 일당에 대해서만큼은 제 일처럼 격분했다.

“모예욘지 뭔지 그 여자 진짜 웃긴다. 완전 또라이 아냐? 그놈의 소개팅 나가달라고, 나가달라고 애원할 땐 언제고 너한테 그딴 누명을 씌워!”

“모오예요 아니고오 모오예연.”

“넌 이 와중에도 그 여자 이름이 중요하냐?”

정안이 어이없는 표정으로 되물었다.

“아니이.”

나는 헤벌레 웃으며 고개를 흔들었다. 정안이 내 편을 들어줘서 기분이 좋았다.

맥주 마시고 얼굴이 발그레해진 정안이 나에게 눈을 흘겼다.

“그러게 토요일에 같이 병원 가자니까. 너 자꾸 환각 보여서 어떡해.”

기지배 1절만 하지. 또 환자 취급이었다.

나는 이맛살을 찌푸리며 반박했다.

“환각 아니라고오. 그 자식 진짜라고오. 카드도 되고오 통화도 된다고오. 볼래애?”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는데 돌연 세상이 뒤흔들렸다. 어지러워서 머리가 핑 돌았다.

“지진...?”

나는 휘청이다가 고꾸라졌다. 테이블이 내 이마를 세게 후려쳤지만 일어날 힘이 없었다. 맞은편에서 정안이 헛웃음 쳤다.

“지진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따각따각따각...

“어? 타자 소리 들린다아.”

나는 멍하니 중얼거렸다.

“얘 또 환청 듣네.”

정안이 탄식한 순간, 핸드폰 벨소리와 함께 테이블이 진동했다. 내가 꺼낸 핸드폰이 울리고 있었다.

주우금이다.

나는 풀린 눈으로 지켜보기만 했다.

주우금 나쁜 놈. 네 전화 안 받아.

“야. 전화 받아. 야, 하지안.”

정안이 내 어깨를 흔들었지만 나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만사가 다 귀찮았다.

“여보세요...”

나 대신 전화를 받는 정안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졌다.

눈을 뜨자 낯익은 천장이 보였다. 집이다.

집까지 어떻게 왔더라. 치킨집에서 정안과 술 마신 것까진 기억나는데.

불현듯 숙취가 엄습했다. 보이지 않는 송곳이 뇌를 쿡쿡 쑤셨다.

“아으...”

욱신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있는데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진 타자 소리가 귓가를 두드렸다. 나는 고개를 홱 돌려 책상 위를 확인했다.

저주받은 키보드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치킨집에서 타자 소리를 들었던 게 생각났다. 정안이 나 대신 주우금 전화를 받은 것까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밖에서는 뭔가 써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칼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

지금 썰리고 있는 게 내 친구는 아니겠지.

나는 불안에 떨면서 방을 나섰다.

“일어났어?”

맛있는 냄새 가득한 부엌에서 검은색 앞치마 차림의 우금이 부드러운 미소로 나를 맞이했다. 하나도 놀랍지 않았다.

다행히 우금이 썰고 있던 건 파였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나를 보며 우금이 식탁을 턱짓했다.

“앉아. 콩나물국 끓여 줄게. 너 해장해야지.”

나는 얌전히 식탁에 앉아 조심스레 간밤의 일을 물었다.

“당신이 어제 나 데리고 왔어?”

팔팔 끓는 콩나물국에 이런저런 간을 하던 우금이 멈칫 나를 뒤돌아보았다.

“기억 안 나?”

“응. 어제 너무 과음했나 봐.”

“하나도?”

“어어...”

“아쉽네.”

“...뭐가?”

“그런 게 있어.”

우금이 피식 웃으며 냄비로 돌아섰다.

그런 게 뭘까. 뭐가 아쉬운 걸까. 꼬치꼬치 캐물으면 괜한 의심을 살까 봐 더 묻지도 못하고 애꿎은 엄지만 잘근거렸다.

나는 우금이 끓여 준 콩나물국을 먹고 출근 준비를 한다는 핑계로 방에 틀어박혀 저주받은 원고를 확인했다.

원고에는 내가 술에 취해 뻗었을 때 정안이 겪은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야. 전화 받아. 야, 하지안.”

정안이 팔을 뻗어 지안의 어깨를 흔들었다. 그러나 지안은 도통 움직일 줄 몰랐다. 정안은 지안의 눈이 가물가물한 것을 보고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맛이 갔네, 맛이 갔어.”

이윽고 벨소리가 끊겼다. 정안은 심드렁한 표정으로 지안의 핸드폰을 내려다보았다.

“핸드폰 바꿨네.”

최신형이었다. 구경이나 할 요량으로 집어든 순간, 지안의 핸드폰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정안은 액정화면에 뜬 발신인을 보고 헛웃음 쳤다.

"주우금"

‘별명이야, 동명이인이야.’

불쑥, 주우금 목소리나 한 번 들어 보자는 충동이 치솟았다. 정안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수화기 너머에서 뇌쇄적인 저음이 반문했다. 정안은 딱 한 번 들어 본 그의 목소리를 단박에 알아들었다.

그 남자였다. 지난 주 토요일 아침에 지안을 불러낸 남자.

“그건 제가 할 소리 같은데요.”

정안은 부러 어이없다는 투로 받아쳤다.

―그거 지안이 핸드폰인데.

“지안이 핸드폰 맞아요. 저는 지안이 친구고요. 그쪽은 누구신데요?”

―지안이 남친입니다.

‘어라?’

정안의 눈길이 테이블에 엎어져 잠든 지안에게 내려갔다.

남친이 생겼다고 했다. 주우금이 현실에 튀어나와서 살려고 여친 됐다고.

허무맹랑한 이야기였다. 당연히 믿지 않는다. 그런데 이름이 주우금이고, 지안이 남친이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나타났다. 참으로 공교롭게도.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정안은 상식적으로 이해하려고 애썼다. 우금이 모니터에서 튀어나왔다는 게 이 뜻이었나? 실존하는 동명이인을 만났다고?

그사이 수화기 너머의 남자가 지안이를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죄송한데 지안이가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태라서요. 많이 취했거든요.”

―데리러 가겠습니다.

정안은 남자한테 위치를 가르쳐줄지 말지 잠시 고민했다. 불러도 될까?

고민은 길지 않았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안이 남친이라는데. 정안에게는 지안의 남친이 어떤 놈인지 확인할 의무와 권리가 있었다.

“잠깐만요, 여기 주소가.”

―괜찮아요. 가는 중입니다.

남자의 즉답이 소름끼쳤다. 오는 중이라고? 여기를 어떻게 알고? 스토커 아냐?

하지만 곧 과한 의심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안이 설마 스토커 연락처를 저장해 놨을까.

정안이 못 본 새 지안이 남친한테 말했을 수도 있다. 어디에 있다고.

그래도 혹시 몰라 정안은 지안의 옆에 가서 앉았다.

얼마 후, 치킨집에 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를 본 정안의 턱이 아래로 뚝 떨어졌다.

‘헐. 겁나 주우금.’

주우금은 미남이다.

처음에 정안은 지안이 왜 공포 소설의 연쇄살인마를 미남으로 설정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데 밤 시리즈 첫작을 읽고 이해했다. 갭에서 오는 공포가 크다는 걸.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그러면 무섭다. 안 죽일 것 같은 사람이 죽이면 무섭다.

주우금은 살인이라는 행위와 백만 광년은 떨어져 있을 듯한 미남이었다.

파리 한 마리 못 죽일 것처럼 섬약한 인상이라는 게 아니다. 오히려 우금의 인상은 강인하고 냉정하며 날카로운 편이다.

다만 세간에는 편견이 있었다. 그런 미남이 뭐하러 사람을 죽이겠어.

지안은 그 간극을 효과적으로 파고들었고, 독자들은 공포를 만끽하며 우금의 반전 매력에 열광했다.

정안도 개중 한 명이었다. 밤 시리즈를 수없이 반복해서 읽었고 주우금 팬아트를 잔뜩 모았다. 활자로 묘사된 외모는 상상의 영역에 있지만, 그럼에도 모든 독자가 공통적으로 떠올리는 주우금의 이미지가 있었다.

정장을 입은 흑표범. 덩치 큰 고양이인 양 무해한 척 굴다가 불시에 사냥감의 목줄기를 물어뜯는 맹수.

그래서 우금을 보자마자 한눈에 알아보았다.

건장하고 훤칠한 몸에 검은 정장이 그림같이 어울리는데, 어딘지 모르게 어둡고 위험한 분위기를 풍기는 신사.

그야말로 책을 찢고 튀어나온 듯한 주우금이었다.

“대박...”

정안이 넋 나간 얼굴로 중얼거렸다. 생김새가 저러니 지안이 착각할 만도 했다.

그사이 우금의 길고 날카로운 눈매가 가게 안을 쓱 훑어보다가 정안에게서 멈췄다. 아니, 정확히는, 그녀의 옆에 엎어져 있는 지안에게.

그가 곧은 자세로 저벅저벅 다가오는데 괜히 입이 말랐다. 지안의 헛소리 때문이었다. 소설 캐릭터가 현실에 튀어나올 리 없는데.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테이블 앞에 멈춰 선 우금이 정중한 인사를 건넸다. 흘깃 지안을 내려다보는 눈빛이 꿀에 절인 듯 달콤했다.

그때까지도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던 정안이 긴가민가하며 물었다.

“주우금씨?”

“네.”

네, 란다. 실명일까 별명일까. 지안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남자는 소설 속에서 튀어나온 연쇄살인마였다. 생각을 거치지 않은 질문이 목구멍까지 솟아올랐다.

연쇄살인마세요?"

“헉.”

나는 헛숨을 들이키며 스크롤바를 멈췄다. 정안은 직설적인 성격이었고, 툭하면 돌직구를 던지기 일쑤였다. 이번에도 그랬다면... 정안은.

그리고 나는.

바짝 죄어든 심장이 터질 것처럼 고동쳤다. 나는 숨 쉬는 것도 잊은 채 서서히 스크롤바를 내렸다.

"하지만 초면에 그렇게 몰상식하고 무례한 질문을 던질 수는 없었다."

“하아.”

참았던 숨이 터져나왔다.

진정안, 내가 진짜 너 때문에 제 명에 못 살지.

"대신 정안은 상식적인 선에서 정황을 알아보기로 했다.

“지안이 남친이시라고요?”

“네.”

“지안이랑 언제부터 사귀셨어요?”

“이제 4일 됐습니다.”

4일 전이면 금요일. 우금이 나타났다는 날이었다. 팔뚝에 오소소 닭살이 돋았다. 하지만 정안은 멈추지 않았다.

“누가 고백했는데요?”

“아무도요.”

“아무도 고백을 안 했는데 사귄다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어쩌다 그렇게 됐는데요?”"

거침없으면서도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어쩌다 사귀게 됐는가.

우금은 뭐라고 대답할까. 심장이 두방망이질 쳤다. 설마 아는 건 아니겠지. 내가 저주받은 키보드로 자기 애인이 됐다는 걸...

"고분고분 대답하던 우금이 별안간 피식 웃었다.

“지금 청문회 하시는 겁니까?”

“네?”

“심문하시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베프 남친을 검사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우금의 장난스러운 미소가 정안의 경계심을 허물어뜨렸다. 정안은 우금을 떠보려던 것도 잊고 초면에 날을 세운 것을 반성했다.

“불쾌하셨다면 죄송해요.”

“사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혀 불쾌하지 않아요.”

점잖게 대꾸한 우금이 빙긋 웃으며 덧붙였다.

“그래도 심문은 다음 기회로 미뤄 주시죠. 지안이 내일 출근해야 돼서요.”

“그건 저도 마찬가진데요.”

“그럼 이만 일어나실까요.”

우금은 지안의 가방을 챙긴 다음 능숙하게 지안을 안아 들었다. 술에 취해 곯아떨어진 지안은 공주처럼 안아 올려지고도 깨어날 줄 몰랐다.

“죄송합니다. 잠깐 지나가겠습니다.”

우금은 매너 있게 양해를 구하며 출입구로 향했다. 정안에게는 그 모습이 믿음직하게 보이는 한편으로 더없이 소름 끼쳤다.

소설 속 주우금과 너무나 똑같아서."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다.

내용이 더 있었다. 우금이 나를 집에 데려온 이후의 내용이.

"우금은 품 안의 지안을 조심스럽게 침대에 내려놓았다. 그런데 그녀를 눕히려는 순간.

덥석.

갑자기 눈을 번쩍 뜬 지안이 그의 멱살을 붙잡았다. 우금은 등허리를 구부린 자세 그대로 움직임을 멈췄다. 놀란 것도 잠시, 그의 입꼬리가 그림 같은 호선을 그렸다.

“깼어?”

지안이 풀린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술이 깬 건 아니었다.

“주우금.”

“응.”

“너 때문에 내가...”

지안의 눈이 순식간에 젖어들었다.

그걸 본 우금의 미소도 씻은 듯이 지워졌다. 우금은 굳은 표정으로 지안의 눈꼬리를 타고 흐르는 눈물을 내려다보았다.

“내가.”

말을 잇지 못하는 지안의 눈에서 눈물만 방울방울 배어 나왔다.

“괜찮으니까 말해 봐.”

우금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종용하며 지안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무 무서워.”

지안이 울음과 함께 진심을 토했다. 참고 참고 또 참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또한 억울했다.

“왜 내가 널 무서워해야 돼. 내가 널...”

만들었는데.

차마 뒷말까지 꺼내지는 못하고 지안은 펑펑 울었다. 사실 우금은 작가 하지안의 자랑이자 자부심이자 업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아니었다. 우금이 현실에 나타나고부터 모든 게 어그러졌다. 이제 그녀에게 우금은 공포의 화신, 만병의 근원, 살아 있는 저주에 지나지 않았다.

지안은 그게 너무나도 서러워 우금에게 원망을 쏟아냈다.

“왜 내가 널 무서워하게 만들어, 왜...!”

와락, 우금이 지안을 끌어안았다. 그의 커다란 품에 파묻힌 가냘픈 몸에서 주체할 수 없는 설움과 울음이 꾸역꾸역 비어져 나왔다.

우금은 잘게 떨리는 어깨를 다독이며 나직이 물었다.

“내가 무서워?”

“어! 무서워. 무서워 죽겠어.”

지안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래도?”

우금은 지안의 얼굴을 부여잡고 둥근 이마에 입 맞췄다.

깜짝 놀란 지안의 울음이 잦아들었다. 지안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우금을 올려다보았다.

“이래도?”

다정히 속삭인 우금의 입술이 반사적으로 눈을 감은 지안의 눈꺼풀에 살포시 내려앉았다. 부드럽고 얇은 눈꺼풀이 나비 날개처럼 바르르 떨렸다.

가볍고 짧은 입맞춤 끝에 지안이 눈을 뜨자 우금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그녀의 코끝에 입술을 찍었다.

“이래도?”

지안의 눈꼬리에 매달려 있던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다.

제 얼굴을 들여다보는 우금의 코앞에서, 지안이 흠뻑 젖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래도 무서워...”

우금의 눈빛이 어둡게 가라앉았다. 그가 지안의 뺨을 어루만지며 타일렀다.

“나 무서워하지 마, 지안아.”

“무서운데 어떡해.”

“옛날엔 나 안 무서워 했잖아.”

지안이 우금의 가슴을 밀어내고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옛날에?”

우금은 아무 말없이 그녀에게 입술을 겹쳤다. 짜디짠 눈물이 배어든 입술을 달게 빨면서, 서서히 지안을 침대에 눕혔다.

지안은 저항하듯 그의 등에 매달렸으나 결국 두 팔을 떨어뜨렸다. 뜨거운 혀가 그녀의 속을 집요하게 탐닉했다. 깊고 진득한 입맞춤이 이어졌다.

입술 닿는 소리와 혀 빠는 소리, 젖은 숨소리가 침실을 가득 메웠다. 키스는 점점 농밀해졌고 지안의 의식은 점점 아득해졌다.

이성을 녹이는 열기와 취기 속에서, 지안은 우금이 주는 쾌감에 굴복했다. 어느덧 그녀의 목에서는 눅진한 신음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 소리를 들은 우금의 숨이 거칠어졌다. 그의 눈 속에서 불 같은 욕망이 뜨겁게 타올랐다. 우금의 입술이 지안의 입술에서 목으로, 다시 아래로 천천히 미끄러졌다.

그렇게 밤이 깊어갔다."

이... 이게 뭐야. 그렇게? 그렇게가 뭐야. 대체 나한테 무슨 짓을...!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았다. 나는 허둥지둥 거울 앞으로 달려갔다. 거울을 보니 목에 불긋한 흔적이 있었다. 어떻게 봐도 모기 물린 자국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조심스럽게 라운드넥을 잡아 내렸다. 쇄골 아래, 가슴 윗부분에도 불긋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아연한 기분에 순간 어지러웠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기겁해서 윗도리도 들춰 보고, 바지도 벗어 봤지만 더는 없었다. 키스 마크 두 개만 가지고는 우금과 잤는지 안 잤는지 알 수 없었다. 우금에게 물어보기도 민망했다. 아니, 사실은 우금과 잤을까 봐 무서워서 물어볼 수가 없었다.

출근 준비를 마치고 방을 나서자 앞치마를 벗은 우금이 기다렸다는 듯이 다가왔다.

“학교까지 태워 줄게.”

“나도 차 있어.”

나는 우금의 호의를 거절하고 도망치듯 출근했다.

우금은 배부른 맹수처럼 나른한 미소를 띤 채 선선히 나를 보내 주었다.

학교 분위기는 싸늘하기 그지없었다. 소개팅 건으로 내게 앙심을 품은 교장은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고 모예연의 선동에 넘어간 동료 교사들은 나를 없는 사람 취급했다.

그러나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다. 온 신경이 딴 데 쏠려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우금에게.

‘옛날엔 나 안 무서워 했잖아.’

저주받은 원고에 적혀 있던 우금의 대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옛날 언제?

영문을 모르겠다. 물론 우금이 현실에 튀어나오기 전에는 무섭지 않았다. 나는 작가고 우금은 내가 만든 캐릭터에 불과했으니까.

하지만 우금이 그 사실을 알 리는 없다. 우금이 말한 옛날은 도대체 언제인가. 나로선 오리무중이었다.

...옛날은 무슨.

정신차리자. 우금은 달변가고, 속임수에도 능하며, 상대방을 홀리는 데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다. 그저 나를 달래려고 한 말에 내가 너무 연연하고 있는 듯했다.

그 자식한테 휘둘리지 말자. 그 자식을 어떻게 바꿀지나 생각하자.

저주받은 키보드가 제멋대로 두드리는 주우금 하지안 주연의 공포 스릴러를 어떻게 로맨스로 바꿀 건지를.

잠깐만, 그 키스씬.

그러고 보니 간밤에 쓰여진 내용은 완전히 15금 로맨스 아닌가?

내가 미쳤지. 어떻게 주우금이랑. 그 자식이 어떤 놈인지 뻔히 알면서. 이게 다 술 때문이다. 내가 또 술 마시면 개다.

그렇지만 키보드가 써 놓은 원고는 누가 봐도 로맨스의 한 장면이었다.

그렇다. 그 부분만큼은 공포도 스릴러도 미스테리도 아니었다. 온전히 로맨스였다. 나도 모르게 소설의 장르를 바꾼다는 목적을 달성했던 것이다.

충격적인 깨달음에 멍하니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취해서. 속된 말로 꽐라 돼서. 정신줄 놓고 우금이 하는대로 몸을 내맡겨서. 내가 우금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로맨틱한 분위기를 깨지 않고 편승했기 때문에.

캐릭터가 로맨틱하게 행동해서 글이 로맨스가 된 것이다.

그럼 앞으로도 그래야 하나? 우금의 손길을 피하지 않고, 그의 품에서 도망치지 않고, 때로는 내가 먼저 우금의 뺨을 감싸면서,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나?

그러고 싶지 않았다. 주우금이 아무리 잘생기고 몸 좋고 다정해도, 그 안에 든 건 악을 악으로 처단하는 사이코였다. 간밤에 내가 우금에게서 도망치지 않은 건 순전히 취기 때문이었다.

과연 나는 맨정신으로도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맨정신으로 우금과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까 궁리하다 보니 하루가 쏜살같이 흘러갔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 보니 우금이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문 닫힌 내 방에서는 저주받은 키보드가 저홀로 타자 치는 소리가 따각따각 흘러나왔다.

“어서 와.”

우금이 반가운 미소로 나를 맞이했다.

하지만 나는 웃을 수가 없었다. 로맨틱이고 뭐고, 도저히 그럴 기분이 아니었다.

학교에서도, 퇴근길에도 빌어먹을 타자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우금이 세상에 나타나는 동시에 갑자기 내 곁에 나타나 저절로 울리기 시작하는 타자 소리가.

그건 우금이 다시 나타난 게 아니라는 뜻이다.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쭉, 한 번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뜻이지.

설마 하루 종일 내 집에 있었나?

“여태 집에 안 갔어?”

“너 오는 거 보고 가려고.”

우금이 태연한 얼굴로 대꾸했다.

당신은 일도 안 해? 목구멍까지 올라온 핀잔을 얼른 삼켰다. 우금도 일을 한다. 사람 죽이는 일. 저 자식은 일하러 가면 안 된다.

나는 일 얘기를 꺼내는 대신 속에 쌓인 불만을 털어놓았다.

“나 없는 집에 당신 들어와 있는 거 불편해. 비번 안다고 막 들어오는 것도 불편하고. 여기가 당신 집은 아니잖아. 나 있을 때, 초인종 누르고 들어왔으면 좋겠어.”

하고 싶은 말을 와르르 쏟아낸 다음에야 나를 물끄러미 보고 있는 남자가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나는 뒤늦게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좋든 싫든 매일같이 얼굴 맞대고 종종 입술도 맞대다 보니 자꾸 방심하게 된다.

“알았어, 미안해. 앞으로는 네 허락 받고 들어올게. 초인종도 꼬박꼬박 누르고.”

다행히 우금은 기분 나빠하지 않고 순순히 사과했다.

덕분에 기분이 누그러져서 분위기를 환기할 생각이 들었다. 로맨틱하게. 로맨스로.

“뭐 읽고 있었어?”

나는 최대한 다정한 목소리를 내려고 애쓰며 우금이 앉아 있는 소파로 다가갔다.

우금은 대답 대신 읽고 있던 책을 들어 표지를 내보였다.

<사로잡힌 밤>

털썩.

소리를 듣고서야 알았다. 가방을 떨어뜨렸다는 걸.

힘 풀린 손이 덜덜 떨렸다. 다리도 후들거렸다.

온몸의 피가 급속도로 식어서 순식간에 발끝까지 차가워졌다. 산 채로 얼려지는 기분이었다.

우금이 읽고 있던 건 밤 시리즈였다. 연쇄살인마 주우금의 모든 범죄가 피해자 시점에서 낱낱이 적혀 있는.

책장을 덮은 우금이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 책 어디서 났어?”

섬뜩한 한기가 등골을 타고 내려갔다. 우금이 내 책의 출처를 묻는 저의가 너무나도 뻔했다.

자기가 나와서. 그것도 실명으로 나와서. 거기다 자기가 죽인 사람이 주인공이라서. 자기가 사냥하는 과정이 사냥감 시점으로 자세히 나와 있어서.

작가가 누군지 언제 들켰는지 어디서 봤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무엇을 더 아는지 왜 이런 책을 썼는지 몹시 궁금할 것이고, 집필과 출간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겠지.

그러면 어떻게 막으려고 할까. 나로서도 알 수 없었다. 우금은 사냥감 말고는 아무도 해친 적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나를 모욕한 헌팅녀에게 우금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눈이 장식인가 봐요. 귀도 장식인가? 기능을 못하는 부위는 없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 말이 진심이었다면?

눈과 귀가 있어야 할 자리에 검붉은 구멍만 남은 얼굴이 자꾸 머릿속에 어른거렸다.

사람이 더 이상 글을 못 쓰게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열 손가락을 자를까, 두 눈을 뽑을까, 뇌를 도려낼까.

등에선 한파가 몰아치는데 입에는 가뭄이라도 든 것 같았다. 입술이 바짝바짝 말랐고 목이 타들어갔다.

나는 마른 입술을 핥고 짐짓 태연하게 대꾸했다.

“어디서 났겠어. 책 파는 데가 서점 밖에 더 있나.”

이건 거짓말이 아니다. 서점에서 샀다고는 안 했으니까.

우금에게 거짓말을 할 수도, 내가 쓴 책이라 출판사에서 보내 줬다고 실토할 수도 없는 나로선 어물쩍 대답을 회피하는 게 최선이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바닥에 떨어트린 가방을 집어들면서, 방금 전 너무 티 나게 놀란 것을 죽도록 후회했다.

“이거 시리즈물이던데. 나머지 빌려가도 돼?”

우금이 <사로잡힌 밤>을 들고 여상하게 물었다.

절대 안 돼.

그러나 거절할 핑계가 없었다.

“그럼. 다 빌려가.”

나는 흔쾌히 허락하는 것처럼 함박 미소를 지었다. 스트레스 때문에 왼쪽 눈꺼풀이 경련하는 게 느껴졌다. 제발 들키기 전에 멈춰라.

다행히 우금은 내 눈떨림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우금이 저녁을 먹고 돌아간 뒤, 나는 곧바로 저주받은 원고를 확인했다.

"지안이 출근한 뒤, 우금도 바로 돌아갈 생각이었다. 그런데 지안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였다. 문득 호기심이 일었다.

지안은 그가 방에 들어오는 걸 제법 꺼렸다. 우금이 올 때마다 방문을 꼬박꼬박 닫아 두는 게, 방 안에 꿀단지라도 숨겨 놓은 것 같았다.

헐벗었다는 핑계로 방문을 안 열어 준 적도 있었다. 우금은 헐렁한 박스 티를 원피스처럼 걸치고 있던 지안의 다리를 떠올리고 피식 웃었다. 덕분에 좋은 구경을 하긴 했다."

좋은 구경... 얼굴이 화끈거렸다. 볼품없이 삐쩍 마른 내 다리를 보고도 용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보다 이거 완전 남주 시점 로맨스 같은데.

우금이 혼자일 때 오히려 원고가 로맨스에 가깝다는 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나랑 같이 있을 때도 그렇고, 내 집에서도 그렇고, 그 주우금이 사람 죽일 궁리를 안 한다는 게.

"어디 꿀단지 한 번 찾아볼까. 우금은 슬렁슬렁 지안의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건 없었다. 지안이 급성 위경련으로 쓰러졌을 때, 지안이 몸살 걸렸을 때, 만취한 지안을 침대에 데려다 눕힐 때, 이미 몇 번이나 들어와 본 방이었다.

우금은 둘이 쓰기엔 약간 비좁은 퀸 사이즈 침대와 새하얀 옷장, 정리되지 않은 화장대, 컴퓨터 책상을 무심한 눈으로 둘러보았다.

그런데 그때, 책장 맨 윗줄에 꽂혀 있는 책들이 우금의 시선을 잡아끌었다.

<끝나지 않는 밤>, <사로잡힌 밤>, <붉은 밤>, <울부짖는 밤>, <벗어날 수 없는 밤>, <가라앉는 밤> 등등... ‘밤’으로 끝나는 제목의 소설책들이 줄지어 꽂혀 있었다.

이렇게나 모아둔 걸 보니 지안이 무척 좋아하는 듯해서, 한번 읽어 볼 생각으로 밤 시리즈 1권을 뽑아 들었다.

그런데.

“...!”

주인공이 그의 첫 사냥감이었다. 이름도 나이도 외모도 모든 게 똑같았다.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었다. 대한민국에 남편을 세 명이나 연달아 죽인 여자가 또 있진 않았으니까.

책장을 넘기는 우금의 손이 점점 빨라졌다. 그러다 우뚝 멈췄다.

주우금, 그 자신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히 그가 아는, 아니, 그가 겪은 이야기가 사냥감 시점으로 펼쳐졌다.

우금은 눈을 의심했다.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건가. 그의 모든 행동은 철저한 계획과 알리바이 속에 이루어졌으며 사냥감은 죽었고 목격자는 없었다. 그런데 이 책은 대체 뭐란 말인가. 거대한 혼란이 그를 덮쳤다.

설마 다른 책들도? 우금의 손이 다급하게 나머지 책들을 뽑아냈다. 휘리릭 넘어가는 책장 속에서, 그가 집행한 단죄의 역사가 빠짐없이 펼쳐졌다.

믿을 수가 없었다. 이 책에 적혀 있는 건 그 자신과 죽은 사냥감들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더 이상은 아니었다. 이 책을 읽은 독자들. 그들 모두가 목격자였다.

그리고 지안도 개중 한 명이었다."

숨이 멎었다. 심장도 멎은 느낌이었다. 사람이 너무 무서우면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골수에 사무쳤다.

찰나 멎었던 심장이 가슴을 뚫고 나올 것처럼 발광했다.

"지안은 우금의 연인이면서도 항상 겁먹은 표정으로 그의 눈치를 살폈다. 왜일까. 그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가?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소설 속 인물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착각할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무엇보다 지안은 상대가 연쇄살인마라는 걸 알면서 사귈 수 있을 만큼 무감하고 대담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금은 혹시나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지난 주 토요일 밤, 지안이 사냥터에 나타났던 건 과연 우연이었나?

지안은 그때 그곳에 어떻게 찾아왔을까. 애써 묻어둔 의문이 고개를 처들었다.

그녀는 무엇을 알고 있을까.

그녀는 과연 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자기가 좋아하는 공포 소설 속 연쇄살인마랑 이름, 생김새, 스타일, 말투, 태도까지 똑같은 그를.

우금은 그녀의 작은 머리를 열고 그 속을 들여다보고 싶었다."

몸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다. 새삼 우금의 포커페이스가 소름 돋았다. 이런 의심을 품고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나를 대했다는 게...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스크롤바를 마저 내렸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보다 더 궁금한 건 이 책을 쓴 작가의 정체였다.

우금은 책장을 덮고 책등에 적혀 있는 작가의 이름을 확인했다.

<문성원.>

우금은 예리하게 날이 선 눈빛으로 그 이름을 노려보았다.

누군지는 몰라도 반드시 찾아내리라.

우금이 작가의 이름자를 검지로 톡톡 두드리며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더는 이런 글 못 쓰게 될 거야.”"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온 정신이 다 아찔했다.

내가 예상했던 대로였다. 우금은 밤 시리즈 작가를 어떻게든 찾아낼 생각이었다. 그다음 무슨 일이 벌어질 지는 우금만 알았다.

나는 얼른 담당 편집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담당 퇴근 시간 이후에 연락하는 건 처음이었다. 퇴근한 뒤에 업무 관련 전화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있을까.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우금이 내가 문성원 작가라는 걸 알아낼까 봐 불안해서 미칠 것만 같았다.

―네, 작가님.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담당이 의아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담당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작가님. 무슨 일이세요?

“저기, 혹시 누가 제 정체를 궁금해 하지 않던가요?”

거두절미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담당이 아무렇지도 않게 반문했다.

―어떻게 아셨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우금이 벌써?

하지만 담당이 곧 농담조로 덧붙였다.

―작가님 정체야 온 국민이 궁금해 하죠. 잡지나 신문, 방송 같은 데서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요.

난 또 뭐라고.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데 담당이 반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왜요? 정체 밝히시게요?

담당은, 아니, 담당을 내세운 출판사 사장은 밤 시리즈 첫작이 대박을 터트린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내가 정체를 밝히기만을 고대하고 있었다.

내가 복면 작가에서 스타 작가로 탈바꿈하기를, 그래서 각종 매체에 얼굴을 비추고 인터뷰를 하고 강연을 다니며 적극적으로 작품을 홍보해 주기를.

하지만 나는 대인 관계가 제일 어렵고 남들한테 주목당하는 게 제일 거북한, 내성적이고 소심한 사람이었다. 잠자고 딴짓하는 아이들 상대로 수업하는 것도 버거운데 기대에 찬 대중 앞에서 강연을?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나는 정색하고 대꾸했다.

담당은 늘 그랬던 것처럼 아쉬운 티를 잠깐 내다가 사근사근한 목소리로 나를 안심시켰다.

―작가님 정체를 아는 건 우리 출판사에서도 저랑 사장님밖에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절대 누설 안 할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럼...”

전화를 끊으려는데 담당이 불쑥 물었다.

―그런데 작가님, 신작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실까요?

나는 멍하니 입을 벌렸다. 신작.

이제는 내 손을 떠난 원고가 떠오르며 저주받은 키보드와 살아 숨쉬는 주우금에게 생각이 미쳤다.

뭐라고 대답해야 좋을까. 신작 집필에 들어간 첫날 주우금이 현실에 튀어나왔다고? 지금은 나 대신 저주받은 키보드가 신작 원고를 쓰고 있다고? 그놈의 신작 주인공이 내가 되는 바람에 살아남으려고 발악하는 중이라고?

어쨌거나 결론은 하나였다.

“죄송하지만 더 이상 밤 시리즈 못 쓸 것 같아요.”

―네? 작가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담당은 몹시 당황한 눈치였다. 무슨 문제라도 있냐, 자기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돕겠다며 나를 달래도 보고, 이미 계약하셨지 않냐, 계약 파기 위약금이 결코 적지 않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번복하지 않았다.

“계약 파기해 주세요.”

화수분을 버리는 셈이라 나로서도 입이 썼다. 그래도 돈보다 목숨이 중했다.

어차피 우금이 현실에 나온 이상 밤 시리즈 신작은 물 건너간 셈이었다. 우금이 사람 죽이는 이야기를 쓰면 현실에서 죽일 테니까. 악인이라고 해도, 사람을 죽이면서 돈을 벌 순 없는 노릇이니까.

담당은 착잡한 목소리로 사장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나는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로 통화를 마무리했다.

어쨌든 담당에게 입단속을 시키고 나니 마음이 놓였다.

우금은 절대 내 정체를 알아내지 못할 것이다.

다음날, 퇴근하고 돌아와 보니 모르는 남자가 우리 집 현관문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다.

누구지? 덜컥 겁이 났다. 나는 괜히 옆집 앞에서 미적거리며 남자의 행색을 곁눈질했다.

반테 안경. 수더분한 인상. 회색 양복. 검은색 서류가방. 양쪽에 내려놓은 홍삼 쇼핑백과 과일바구니.

남자는 영업 사원, 홍삼이며 과일은 미끼상품 또는 증정품으로 보였다. 아마 보험이나 학습지를 팔러 왔겠지. 아니, 어쩌면 홍삼을 팔러 왔는지도 모르겠다.

요즘 외판원은 빈 집 앞에서도 버티나? 안쓰러우면서도 징글맞았다.

아니지. 외판원을 가장한 강도일 지도 모르지. 누가 아나, 저 서류 가방 속에 칼이라도 들어 있을지.

내가 집에는 안 들어가고 자꾸 자기를 힐끔거리자 남자도 내가 신경 쓰이는 모양이었다. 머쓱한 표정으로 나한테 꾸벅 고개를 숙이더니 어색한 웃음을 흘렸다.

서류 가방에서 칼을 꺼낼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덕분에 말을 붙일 용기가 났다.

“누구신데 저희 집 앞에서...”

쭈뼛쭈뼛 다가가 묻자 남자가 얼떨떨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이 집 사시는 분이세요?”

“그런데요.”

남자가 허둥지둥 일어나 명함을 내밀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가 늦었습니다. 오해준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건넨 명함에는 눈에 익은 출판사 로고가 박혀 있었다.

"책동네. 대리 오해준."

“...!”

깜짝 놀랐다. 책동네는 밤 시리즈 계약 출판사였다. 계약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출판사 직원이 집까지 찾아온 건 처음이었다.

갑자기 집에는 왜 찾아왔지? 설마 날 붙잡으려고? 아니, 내 담당은 어디로 가고? 머릿속에 온갖 의문이 휘몰아쳤다.

나는 개중 하나를 끄집어냈다.

“담당자 분은 어디 가시고...”

“며칠 전에 교통사고 나서 입원했어요.”

그럼 어제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던 걸까? 되게 미안하네...

“문성원 작가님 아내분 되시나요?”

오해준이 불쑥 물었다.

“네?”

나는 귀를 의심했다.

오해준은 아무 것도 모르는 얼굴이었다. 내 정체를 아는 건 자기랑 사장밖에 없다던 담당의 말이 사실이었나 보다.

“아, 네.”

나는 상대의 오해를 바로잡지 않았다.

원래 복면 작가이기도 했고, 계약 출판사 직원이라고 해도 내 정체를 모르는 사람에게 굳이 밝히고 싶진 않았다.

“문성원 작가님을 만나 뵙고 싶은데요. 출타 중이신가요?”

오해준이 다시 물었다.

출타는 무슨. 지금 만나 뵙고 있다.

“무슨 일로...”

“어제 작가님이 밤 시리즈 집필을 중단하시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셔서요. 사모님도 알고 계시죠?”

사모님. 오해준의 입에서 튀어나온 존칭이 귓속에서 불편하게 걸리적거리며 양심과 자존심을 모두 찔렀다.

스물아홉이면 아직 사모님 소리 들을 나이는 아닌데.

“그런데요?”

“작가님께서 무슨 심경의 변화로 계약을 파기하시겠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출판사 편집자이기 이전에 밤 시리즈 애독자로서 제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오해준은 구구절절 말이 길었다.

여기가 문성원 작가 집이라고 동네방네 소문낼 셈인가?

나는 초조하게 아파트 복도를 두리번거리며 누가 듣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했다.

이대로는 언제까지고 떠들어댈 것만 같아서, 나는 일단 오해준을 집에 들이기로 했다.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말씀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나는 오해준에게 커피를 대접하면서 이야기를 들었다.

오해준은 밤 시리즈 신작 계약 파기를 철회해 달라는 요청을 굉장히 길게 돌려서 말했다.

“사모님께서 작가님을 좀 설득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 사모님이 그 작가님이라는 걸 알면 이 남자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소용없을 거예요. 제, 남편 의지가 워낙 확고해서...”

하마터면 제 의지라고 말할 뻔했다. 제풀에 놀란 가슴이 벌렁거렸다.

“그래도 사모님 말씀은 귀담아 들으실 것 같은데요. 사모님께서도 아깝지 않으세요? 밤 시리즈 같은 대박작을 포기한다는 게.”

나도 아깝다. 하지만 대박작이면 뭘 하나. 우금이 사람 죽이는 이야기를 쓰면 그게 현실에서 이루어질 텐데.

심지어 그 자식 손에 죽는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마당에 뭘 어떻게 더 쓰라고.

나는 착잡한 심정으로 식탁 맞은편에 앉아 있는 오해준을 건너다보았다. 순박한 인상과 다르게 쉽게 물러나질 않는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같은 편인 척하면서 포기시키는 게 좋겠다.

“저도 아깝죠. 저도 얼마나 남편을 말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데 갑자기 방에서 타자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따닥따닥 따다다닥...

그 순간, 날카로운 냉기가 온몸의 혈관을 주파했다.

우금이 움직이고 있었다. 딱 한 번, 사냥감을 보러 클럽에 갔을 때 말고는 나를 만나러 왔던 우금이.

하필 이 남자랑 있을 때.

“어디 불편하세요?”

오해준이 내 눈치를 살피며 뭐라고 말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해준. 밤 시리즈 작가를 만나러 온 편집자.

우금이 오해준을 만나면 단박에 내 정체를 알아차릴 것이다.

‘더는 이런 글 못 쓰게 될 거야.’

‘내가 딱 하나 이해 못 하는 게 있어. 거짓말.’

들키면 죽는다. 배신하면 죽는다. 심장이 맹렬하게 폭발하고 또 폭발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오해준이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지금 당장 이 남자를 치워야 한다.

딩동.

초인종이 울렸다. 나와 오해준이 동시에 고개를 돌려 인터폰을 쳐다보았다.

우금이 와 있었다.

“...!”

나는 까무러치게 놀랐다. 이렇게 빨리!?

“작가님이신가요?”

오해준이 반색을 하며 물었다.

나는 다짜고짜 그의 팔뚝을 잡아 일으켰다. 홱홱 두리번거리며 사람 숨길 데를 찾았지만 부엌과 거실에는 마땅한 데가 없었다. 왜 내 집에는 거실 붙박이장 같은 게 없는 걸까.

화장실? 우금이 들어갈 수도 있어, 안 돼. 베란다? 아니야, 위험해.

“사모님, 왜 이러세요?”

오해준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다.

딩동.

우금이 다시 한 번 초인종을 눌렀다.

깜짝 놀란 심장이 펄떡 튀어올랐다. 시간이 없었다. 나는 허겁지겁 오해준을 방으로 끌고 갔다.

“죄송한데 아무 것도 묻지 말고 좀 숨어 주세요.”

“아니, 사모님, 저는 작가님을 봬러 온 건데―.”

나는 황당하다는 투로 항의하는 오해준을 방 안에 밀어넣으며 다급하게 애원했다.

“담당님이랑 같이 있는 거 들키면 제가 큰일나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오해준은 난처한 얼굴로 입만 벙긋거렸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모양새였다. 그 틈에 방문을 닫아버렸다.

커피, 커피는 오해준 것만 찬장에 숨기고 내 건 남겨둬야지. 부엌에서 커피향이 나니까.

오해준이 앉아 있던 의자 밑에서 묵직한 존재감을 자랑하는 검은색 서류 가방과 빨간색 홍삼 쇼핑백과 알록달록한 과일 바구니를 보니 짜증이 솟구쳤다. 뭘 이렇게 바리바리 들고 왔어.

나는 그것들도 몽땅 방에다 집어넣었다. 오해준의 얼빠진 얼굴이 문틈으로 사라졌다.

마지막으로 현관에 있는 오해준의 구두를 신발장 속에 숨긴 다음 현관문을 열었다.

검은색 수트 차림의 우금이 성큼 현관에 들어서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뭐하고 있었어?”

나는 행간에 숨겨진 책망을 읽었다. 뭐하고 있었는데 문 여는 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려.

“미안. 화장실에 있었어.”

반사적으로 둘러댄 다음에야 내가 우금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걸 깨달았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었다. 거짓말을 들키는 게 내가 문성원 작가라는 걸 들키는 것보다는 나았다.

“자기야.”

나는 구두를 벗으려는 우금의 팔을 얼른 붙잡았다.

우금은 드물게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자기?”

왜 이렇게 놀래. 괜히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나는 우금의 나이를 모른다. 연령 미상. 신원 불명. 우금의 설정이 그랬다. 모든 게 베일에 싸여 있다는 게 설정이었다.

나보다 연상인지 연하인지도 모르는데 오빠라고 하거나 이름을 막 부를 수는 없잖아. 애칭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 씨가 될까 봐 여보라고 부르긴 싫었다.

맨날 우금한테 당신 당신 하긴 했지만 부를 때도 당신이라고 하자니 좀 이상했다. 그래서 자기야, 라고 한 건데...

“다시 한 번 말해 봐.”

나를 현관문에 밀어붙이고 두 팔 사이에 가둬 세운 우금이 뜨거운 눈빛으로 속삭이는 걸 보니 적잖이 후회되었다.

살려면 로맨스를 만들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지금은 청취자가 있었다. 절대 우금과 만나면 안 되는 청취자가.

“자기야, 나 지금 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 싶어서 그러는데 좀 사다 줄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나긋나긋한 목소리를 내면서 부탁했다.

그러자 우금이 한 손으로 내 아랫입술을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다.

“나는 널 먹고 싶은데.”

나는 얼어붙었다. 이럴 땐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 이 자식을 어떻게 내보내야 하나. 그저 막막하기만 했다.

나를 잡아먹을 것처럼 바라보던 우금이 돌연 피식 웃었다.

“사다 줄게.”

우금은 내 입술을 매만지던 손으로 내 뺨을 살짝 꼬집고는 선뜻 집을 나갔다. 하여간 사람 갖고 노는 데 선수였다.

나는 현관문에 귀를 붙이고 멀어지는 발소리와 엘리베이터 도착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까지 전부 확인한 다음에야 방으로 달려갔다.

“숨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리님. 이제 그만 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편 오기 전에 빨리요.”

“사모님,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작가님을 만나러 온 건데요.”

오해준이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다.

“제가 한번 설득해 볼게요. 그럼 되죠?”

오해준은 불만과 의문과 체념이 어린 얼굴로 떠났다.

혹시 우금이 눈치챈 건 아닐까, 1층에서 저 남자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불안해서 저주받은 원고를 확인해 보았다.

다행히 우금은 아무 것도 눈치 못 채고 아이스크림 심부름을 가는 중이었다.

그런데 원고에 오해준 시점도 있었다.

"“문성원 작가님을 만나 뵙고 싶은데요. 출타 중이신가요?”

해준이 공손하게 물었다.

“무슨 일로...”

지안의 떨떠름한 반문이 오늘 아침에 있었던 비상대책회의를 다시 생각나게 했다.

사장은 회의 시간에 지난 밤 전해 들은 문성원 작가의 집필 중단 선언을 전달하며 망연히 중얼거렸다.

‘우린 망했어.’

사장의 염려는 지당했다. 지금은 공포 소설 명가로 자리잡고 서울에 건물을 세웠지만, 밤 시리즈를 출간하기 전에는 10년 된 오피스텔에 세 들어 크라우드펀딩으로 책을 내던 초소형 출판사였으니까.

게다가 밤 시리즈 매출은 출판사 전체 매출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만약 해준이 문성원 작가를 붙잡는다면, 진급은 물론 월급 인상에 포상금까지도 기대해 볼 만했다.

‘황금 거위가 도망쳤다고 해서 붙잡으러 왔지.’

해준은 욕심을 감추고 점잖게 대답했다. 작가님을 설득하러 왔다고."

그랬구나... 진짜 나를 잡으러 왔구나. 절대 포기하지 않겠구나.

골치가 아팠다. 나는 습관적으로 관자놀이를 감싸 쥐었다.

알고 보니 오해준은 야욕에 불타는 인간이었다.

이런 사람이 왜 순순히 숨어 줬을까. 마저 읽다 보니 정답이 나왔다.

"지안에게 떠밀려 얼결에 숨고 만 해준은 한발 늦게 후회했다.

‘내가 왜 숨었지? 나는 작가님을 만나러 온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니다. 해준이 다시 나가려고 방문 손잡이를 붙잡는 순간, 지안의 절박한 목소리가 떠올랐다.

‘담당님이랑 같이 있는 거 들키면 제가 큰일나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해준은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자신은 출판사 편집자에 불과하고, 그녀와는 초면이었다.

심지어 자신은 작가를 만나러 온 건데, 작가한테 둘이 같이 있는 모습을 보인다고 큰일날 건 뭔가?

그러다 문득 머릿속이 번뜩였다. 작가가 의처증이구나.

그렇다면 지안이 저렇게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이해가 갔다. 문성원 작가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같이 있는 모습만 봐도 눈이 뒤집히는 모양이었다.

혹시 밤 시리즈 집필 중단 선언도 아내와 관련이 있나?

해준의 추측이 가지를 뻗어나갈 때, 밖에서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뿔싸. 늦었다.

해준은 속으로 탄식하며 방문 앞에서 물러났다.

이제 나가면 꼼짝없이 내연남으로 몰릴 판국이었다. 그러면 밤 시리즈 신작이고 나발이고 직장까지 죄다 날아가리라."

오해준의 시점은 나한테 쫓겨나는 것으로 끝났다.

헛웃음이 나왔다. 오해준씨, 이름값 톡톡히 하는구나. 덕분에 내가 오늘 여러 사람 해 본다. 나 자신의 아내로도 모자라 의처증 걸린 남편까지.

어쨌든 오해준이 숨어 줘서 천만다행이었다. 만약 오해준이 문성원 작가를 찾으며 튀어나왔다면...

3초. 딱 3초 만에 우금은 모든 걸 간파했을 것이다. 사람을 죽이려고 마음먹을 때 으레 그랬듯,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노려보겠지.

‘나를 속였구나.’

실제로는 한번도 들어 본 적 없는데도, 우금이 처형을 집행할 때 내는 고저 없는 목소리를 들은 것만 같았다. 그리고 눈앞으로 다가오는 커다란 손아귀...

딩동.

갑작스러운 초인종 소리가 귓등을 후려쳤다.

“...!”

나는 거의 튀어올랐다. 놀란 심장이 목구멍으로 튀어나오려고 기를 썼다.

허둥지둥 컴퓨터를 끄고 거실로 나가 보니 인터폰 화면에 우금이 비쳤다.

우금은 씩 웃으며 아이스크림이 가득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화면 가까이 들이댔다.

이번에는 얼른 가서 현관문을 열어 주었다.

제 발 저린 도둑의 기분이 딱 이럴 것이다. 찔리는 구석이 많아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우금은 아이스크림 봉지를 통째로 냉동실에 집어넣고는 뭔가 바라는 얼굴로 나를 돌아보았다.

나는 떨떠름히 되물었다.

“왜?”

“심부름값 줘야지.”

우금이 점잖게 요구했다.

심부름값이라니. 천하의 주우금이 저렇게 하찮은 단어를 입에 올릴 줄은 몰랐다. 애도 아니고...

잔뜩 곤두섰던 신경이 수그러지며 내가 심부름값 운운하는 남자를 죽을 만큼 무서워한다는 게 조금 한심하게 느껴졌다.

“얼마?”

“돈 말고.”

우금이 늑대같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암시하는 걸 생각하니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또다. 이 자식은 자꾸 이렇게 몸을 들이민다.

하지만 그렇게는 안 되지.

나는 우금에게 내려오라고 손짓했다.

“머리 좀 숙여 봐.”

우금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분고분 몸을 숙였다.

나는 우금의 머리를 조심조심 쓰다듬었다. 왁스로 고정된 머리카락은 빳빳했지만 굉장히 좋은 향기가 났다.

“고마워. 잘했어. 착하다.”

“...”

우금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얼굴이 뚫릴 것 같았다.

어색한 기분에 우물쭈물 손을 떼자 가만히 있던 우금이 별안간 내 손목을 턱 붙잡았다. 당연히 나는 깜짝 놀랐다.

허리를 세운 우금이 나를 내려다보며 자상하게 타일렀다.

“지안아. 이런 건 애들한테나 하는 거야. 어른한테는...”

손목을 확 당기는 힘에 몸이 끌려갔다. 다음 순간 나는 우금의 품에 안겨 있었다.

놀라서 고개를 젖혔을 때, 우금이 입술을 겹쳐 왔다. 단단한 혀가 입술 사이를 가르고 입 안으로 파고들었다. 순식간에 정신이 아득해졌다.

허리를 감싸는 뜨거운 손길이 느껴졌다. 내 손목을 잡고 있던 손은 어느새 내 목덜미를 감싸고 있었다.

늘 생각하는 거지만 이 자식은 참 손이 빠르고... 나는 더 이상 생각을 이어나갈 수가 없다.

입천장을 훑고 속살을 간질이며 혀를 얽는 감각이 전류처럼 흘러 온몸으로 퍼져 나갔다. 구름 속을 부유하는 것처럼 몽롱하다가도 벼랑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아찔했다.

너무 아찔해서 나도 모르게 우금의 등을 움켜잡고 말았다.

한참 만에 입술을 뗀 우금이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내려다보며 나른하게 속삭였다.

“이렇게 해야지.”

나는 멍청히 우금을 올려다보았다.

주우금이 이렇게 욕망에 충실한 캐릭터였나?

그렇다. 악인을 없애고 싶은 욕망에 충실하게 따랐지.

그렇지만 과정은 치밀하고 끈질겼다. 신중하게 물색하고 세심하게 탐색한 뒤 충분히 공 들이고 뜸을 들인 다음에야 단칼에 숨통을 끊었다.

마치 뱀처럼. 사냥감을 오래도록 지켜보다 소리없이 접근해서 한입에 삼켜버리는 스타일이었다.

그런데 나한테는 왜 이러는 걸까. 매번 불도저처럼 밀고 들어온다. 할 줄 아는 게 직진과 돌진밖에 없는 양.

독자들이 생각하는 주우금의 이미지는 정장을 입은 흑표범인데, 나를 대하는 태도는 무슨 멧돼지 같다.

솔직히 버거웠다. 하지만 내가 우금의 페이스에 맞췄을 때만 원고가 로맨스가 되었다.

내가 초를 치지만 않는다면, 지금 이 순간도 로맨스가 될 것이다.

...잠깐만. 과연 그럴까?

자칫 포르노가 되는 건 아닐까?

로맨스는 남녀가 사랑하는 이야기잖아. 만약 우금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럼 난 안전하겠지. 우금이 전 여친을 죽인 건 사랑에 배신당해서니까.

지금처럼 우금의 말 한마디, 일거수일투족에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고, 굳이 로맨스를 만들 필요도 없다.

먼저 떠 보자.

나는 다시 키스하러 다가오는 우금의 입술을 손으로 막았다. 우금이 왜 그러냐는 듯 한쪽 눈썹을 추켜올렸다.

“당신... 나 좋아해?”

태연하게 물어 본다는 걸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그래도 우금이 애교로 착각하길 바랐다. 속뜻은 이거였으니까.

나 죽일 수도 있어?

나는 조마조마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우금의 대답을 기다렸다.

우금은 다소 놀란 표정을 짓더니, 내 손을 잡아 내리고 의외라는 투로 되물었다.

“웬일로 그런 걸 다 물어 봐?”

일순 어이가 없었다. 굳이 날짜를 센다면 우리가 사귄 지는 이제 고작 일주일째인데.

누가 들으면 몇 년 사귄 줄 알겠네.

“그냥. 나 좋아하냐구.”

“아니.”

어?

찰나 멍했다가, 긴장이 확 풀리며 마음이 놓였다.

솔직히 기대한 대답은 아니었다. 나는 내심 우금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닌가 의심했었다. 아니라서 천만다행이다.

우금이 나를 안 좋아한다. 나랑 사귀는 건 그저 내가 급조한 설정 때문이었다.

나는 안 죽이겠구나.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 우금이 나직하게 덧붙였다.

“좋아한다는 말로는 부족하지.”

이게 무슨 소리야.

날벼락 같은 한기가 단숨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파했다.

놀라서 쳐다보자 우금이 깊은 눈빛으로 고백했다.

“나는 널 사랑해, 지안아.”

못 박듯이 한번 더.

“사랑해.”

우금이 나를 보는 눈빛과 표정, 목소리, 내 뺨을 어루만지는 손길, 그 모든 것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그리고 나는... 귀신한테 머리채를 붙잡힌 기분이었다. 온몸의 털이 곤두서고 피가 얼었다.

주우금이 나를 사랑한다. 진심으로.

그건 이 자식이 얼마든지 나를 죽일 수 있다는 뜻이었다.

내가 우금을 배신하면.

혹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들키면.

나는 이 손에 살해당할 것이다.

다음날, 점심 시간.

나는 점심도 굶고 혼자 운동장 스탠드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마음이 하도 뒤숭숭해서 배도 안 고팠다.

어제 우금에게 들은 사랑 고백 때문이었다. 아니, 살해 경고라고 해야 할까.

지금은 차라리 혼자라서 다행이었다. 동료 교사들이 내 안색을 보고 뭐 안 좋은 일 있냐며 꼬치꼬치 캐물었다면 스트레스가 배가됐을 테니까.

혼자 스탠드에 앉아 있다 보니 자연스레 옛날 생각이 났다.

“옛날에는 맨날 혼자 운동장 스탠드에서 밥 먹었었는데...”

학창 시절 나는 왕따였다. 초중고를 다니는 동안 쭉. 나의 왕따 이력은 고2 때 정안과 친해지기 전까지 철통처럼 유지되었다.

내 별명이 개불이었기 때문이다. 개불쌍한 애.

아이들은 나를 대놓고 따돌리진 않았지만 나와 어울려 주지도 않았다. 그 애들은 내 몸에서 나는 불행의 냄새를 맡는 것 같았다. 자기들한테 옮을까 봐 무서워 한 것 같기도 하다.

그래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왕따도 졸업했는데.

그런데 성인이 돼서, 그것도 교사씩이나 돼서 다시 왕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내 사주가 학교랑 안 맞나. 내가 무슨 덕을 보겠다고 여기서 이러고 있나.

사표 쓸까. 이참에 전업 작가로 전향하는 건 어떨까.

아 참. 밤 시리즈 못 쓰지, 이제...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데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어, 지안쌤이다.”

나는 뒤를 흘깃 돌아보았다.

작년에 가르쳤던 2학년 남학생이었다.

“호중이 안녕.”

호중이 씩 웃으며 내 옆에 앉았다.

“쌤 왕따죠?”

요 며칠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었다.

뻔히 알고도 묻는 저의가 뭘까. 확인하는 건지, 놀리는 건지. 이유가 뭐든 이제는 지긋지긋했다.

“아니야. 까불지 말고 가던 길 가.”

“에이, 왕따면서. 뒤뜰에서 영어쌤이랑 일어쌤이 쌤 욕하고 있던데요.”

영어와 일어라면 며칠 전 나를 뒤뜰로 끌고 나갔던 여자들이었다.

나는 떫은 표정으로 되물었다.

“뭐라고.”

“쌤 꽃뱀이라고요.”

“뭐? 내가 왜...”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혔다.

호중은 무신경한 18살 남자애답게 태연한 얼굴로 대꾸했다.

“쌤이 돈 많은 남자들만 골라서 어장 관리 한다던데요?”

“내가? 누가 그래. 그 선생님들이?”

“그 선생님들이랑 다른 선생님들도 그러고 애들도 그러고. 다들 그러던데요.”

머릿속이 새하얗게 물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교에서 꽃뱀 취급 당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나에게 왕따냐고 놀렸던 아이들의 면면이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가며 혼란을 몰고 왔다.

뻔히 알고도 묻는 저의. 조소와 조롱이었나. 가슴이 난도질을 당한 듯 쓰리고 아렸다. 비참하고 참담했다.

나는 붕어처럼 입만 뻐끔거렸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호중이 내 눈치를 보면서 덧붙였다.

“학교에 소문 쫙 퍼졌는데. 쌤 모르셨구나.”

호중에게 자초지종을 들어 보니 결국 소문의 진원은 모예연이었다.

남친이 있는데도 소개팅을 부탁하더라는 거짓말이, 여러 사람의 추측과 망상을 입고 눈덩이처럼 부풀었던 것이다.

왜 그랬을까. 바람피우려고? 남친한테 질렸나? 교장이 주선한 남자가 대기업 다닌다더라. 노렸네. 돈 보고 어장 관리하나 보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추문이 퍼지는 동안 나한테 와서 진위를 확인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내가 인망이 없는 탓이었다. 학교에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고 이대로 누명을 방치할 수는 없었다.

나는 그 길로 모예연에게 따지러 갔다. 모예연은 자리에 없었다.

아직 점심을 먹고 있거나, 친한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고 있겠지. 어쩌면 지금도 내 뒷담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요량으로 남는 의자를 끌어다 앉자 2학년 교무실에 남아 있던 몇몇이 곱지 않은 시선을 쏘아보냈다.

나는 이 악물고 버텼다. 따갑게 날아드는 시선이 그대로 가시가 되어 가슴에 박혔지만 여기서 물러날 수는 없었다.

나는 꽃뱀이 아니다. 평생 그 언저리에도 가 본 적이 없다. 남자를 등쳐먹기는커녕 남자랑 제대로 사귀어 본 적도 없는 나다.

모예연에게 내 잘못을 책망할 권리는 있어도 나를 모함할 권리는 없었다.

잠시 후, 모예연이 칫솔 케이스를 들고 2학년 교무실에 들어섰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를 본 모예연이 와락 인상을 구겼다. 하지만 곧 나를 못 본 척 무시하며 자리로 돌아왔다.

“예연쌤. 저랑 잠깐 얘기 좀 해요.”

모예연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칫솔 케이스를 서랍에 넣으며 대꾸했다.

“내가 저번에 말했을 텐데. 지안쌤이랑 할 얘기 없다고.”

속에서 화가 끓었다. 머리에 열이 올라 얼굴이 뜨거워지고 심장이 투우처럼 날뛰었다.

나랑 할 얘기는 없고, 남한테 할 내 얘기는 있고?

하지만 모예연이 여론을 장악하고 있는 마당에 흥분해서 좋을 게 없었다.

나는 애써 침착하게 따졌다.

“소개팅 건은 제가 잘못했고, 지금도 죄송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선생님은 왜 없는 얘기를 지어내세요?”

모예연이 비로소 나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뻔뻔한 얼굴로 오리발을 내밀었다.

“내가 언제? 난 그런 적 없어.”

“어떤 학생이 그러던데요. 제가 돈 있는 남자들 어장 관리한다고, 꽃뱀이라고 소문났대요.”

“원래 소문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

얄밉게 빈정거린 모예연이 어이없다는 투로 성을 냈다.

“그리고, 그 소문 내가 퍼트렸어? 왜 나한테 와서 이래?”

네가 퍼트려서 이런다.

나는 머리끝까지 솟구친 화를 꾹꾹 억누르며 차분하게 말했다.

“저도 귀 있어요.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 제 귀에도 다 들어와요.”

“무슨 얘기.”

“제가 먼저 선생님한테 소개팅을 부탁했다면서요.”

움찔한 모예연이 적반하장으로 언성을 높였다.

“그랬잖아!”

“제가 언제요. 저는 거절했는데 선생님이 끈질기게 부탁하셨잖아요.”

“지안쌤 웃긴다. 이제 와서 말 바꾸면 뭐가 달라져?”

모예연은 목청 높여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제가 언제 말을 바꿨다고...”

“지금 바꾸고 있잖아, 지금! 지안쌤, 나한테 소개팅 시켜달라고 부탁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봐! 했으면서 안 했다고 오리발 내밀고 있잖아! 나한테 증거가 이렇게 떡하니 있는데!”

모예연이 핸드폰을 들어 메세지창을 내보였다.

"지안쌤! 12시, ○○레스토랑이야. 소개팅 잘해~.

하지안: 감사합니다."

소개팅 장소와 시간을 알려 준 메세지와 그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전부인데 대단한 증거라도 되는 것처럼.

“두 사람 다 그만해. 특히 지안쌤. 2학년 교무실까지 와서 시비를 걸어야겠어?”

말리듯이 끼어든 교사가 못마땅한 얼굴로 쏘아붙였다.

누가 그랬나. 한국에서는 목청 큰 사람이 이긴다고. 과연 그랬다. 주위에 있는 교사들 전부 나만 흘겨보고 있었다.

내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입을 꾹 다물고 돌아섰다.

어차피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을 사람들이었다.

다음 발령까지는 2년. 2년이나 이 수모를 견뎌야 한다고 생각하니 교직을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더더욱 간절해졌다.

그날 저녁, 나는 불발탄 같은 몸뚱이를 끌고 퇴근했다.

터져나오지 못한 분노가 속에서 폭발을 거듭하며 오장육부를 깡그리 불태우는 것 같았다.

집에 가면 우금이 기다리고 있거나, 늦게라도 나를 보러 올 줄 알았는데 웬일로 우금은 오지 않았다.

저주받은 키보드가 타자를 치는데도.

어제 나한테 사랑한다고 해 놓고도.

혹시나 지난번 마약상한테 갔을까 걱정되어 원고를 확인해 보니 상황이 더 안 좋았다.

우금은 집에서 밤 시리즈를 읽으며 소설 내용과 제 기억을 대조하고 있었다. 노트에 정리까지 해 가면서.

그리고 제 기억과 100% 일치하는 내용을 보면서 작가를 향해 강렬한 의구심과 적개심을 불태우고 있었다.

그걸 보자 날카로운 통증이 뒷골을 쑤셨다. 스트레스성 두통이었다.

미니 주우금과 미니 모예연이 각각 투명한 송곳을 들고 내 뒷골을 쿡쿡 찍는 것 같았다.

이놈이고 저놈이고 나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구나.

나는 두통약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 옛날 꿈을 꿨다.

오래도록 나를 괴롭혔던 해묵은 악몽을.

“야.”

쿡.

누가 책상에 엎드려 있는 내 어깨를 찔렀다.

“개불.”

쿡.

“자는 척하지 말고 일어나.”

쿡.

“뭐야.”

마지못해 고개를 들자 험상궂은 얼굴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일진들이 보였다. 순식간에 간이 쪼그라들었다.

“너 어제 내 남친한테 꼬리쳤다며? 내 친구가 봤다는데.”

가운데 선 깻잎머리가 눈을 부라리며 다그쳤다.

어제.

어제 나는 새아빠한테 죽도록 맞았는데.

계속 맞다간 진짜 죽을 것 같아서 집을 뛰쳐나왔다.

한밤중에 폭우가 쏟아지는데, 우산도 없이 빗속을 울면서 돌아다녔다. 돈 없어서 어디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다 너무 추워서 비 피하러 들어간 건물이 하필 학원 건물이었다.

늦게까지 학원에서 공부하고 나온 애들이 쫄딱 젖은 채 입구에서 떨고 있는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며 지나갔다.

개중 어떤 남학생이 나한테 비닐 우산을 사다 줬다. 하지만 그건 선물이 아니라 적선이었다.

그 애의 얼굴, 목소리, 옷차림, 뭐 하나 뚜렷이 생각나는 게 없는데 딱 하나 눈만 선명하게 떠올랐다.

나를 불쌍하게 쳐다보던 눈.

아마 그 애가 얘 남친이겠지.

“그런 거 아니야.”

나는 담담하게 사정을 설명했지만, 깻잎머리는 사람 말을 곡해하는 재주가 있었다.

“불쌍한 척 꼬리쳤다는 거잖아. 일부러 비 다 맞고, 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뭘 어떻게 들으면 저런 해석을 할 수 있는지.

황당하고 억울했다.

“아냐.”

“아니긴 뭐가 아냐? 거지 같은 게 관심 받고 싶어서 별 짓을 다해. 나가서 밥 먹으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는데 맨날 스탠드 나가서 밥 먹고. 허구한 날 양호실 전세 내고. 다 하복 입는데 너 혼자 블라우스 입는 것도 쇼잖아!”

깻잎머리가 바락 성을 내며 내 어깨를 밀쳤다.

쇼.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끊어졌다. 뒤이어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내 눈과 코와 입으로 터져 나왔다.

“쇼 아니야!”

나는 벌떡 일어나 양쪽 소매를 걷어붙였다. 그렇게 내 치부를 드러냈다. 온통 검고 푸르고 붉은 멍들로 얼룩진 양팔을.

내가 내보인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데도 주위에선 헉 소리가 났다. 깻잎머리도 말문이 막힌 얼굴이었다.

나는 아이들의 눈에 동정심과 거부감이 떠오르는 걸 보면서 악에 받쳐 쏘아붙였다.

“너는 이렇게 쇼할 수 있어?!”

어떤 인간들은 죽어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깻잎머리도 그랬다. 내 몸에 가득한 폭행의 흔적들을 보고도 제 억측을 단단히 움켜쥐었다.

“...집에서 맞고 살면 남의 남친한테 꼬리쳐도 되냐? 이게 얻다 대고 큰소리야!”

깻잎머리가 대뜸 내 따귀를 갈겼다. 눈앞에서 번쩍 불꽃이 튀었지만 고개가 돌아갈 정도는 아니었다.

새아빠의 솥뚜껑 같은 손에 비하면 가소로운 수준이었다.

그걸 알아챈 순간 머리가 회까닥 돌았다. 나를 둘러싼 일진들이 하나도 무섭지 않았다.

나는 괴성을 지르며 깻잎머리에게 달려들었다. 내 인생 첫 반격이었다.

나는 새아빠한테 배운 대로 깻잎머리를 때렸다. 머리채를 움켜쥐고 따귀를 갈겼다. 깻잎머리가 비명을 질렀고 일진들이 쌍욕을 내뱉으며 나를 뜯어냈다.

나는 교실 바닥에 나동그라져 뭇매를 맞았다. 안 그래도 멍든 몸뚱이, 여럿한테 맞으니까 더 아팠다. 그래도 버틸 만했다. 알고 보니 나는 맷집이 좋았다. 새아빠한테 하도 맞아서 단련된 모양이었다.

나는 내 몸을 걷어차던 다리 하나를 붙잡고 힘껏 물었다. 물린 애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다른 일진들이 그 애를 부축하는 틈에 나는 다시 일어났고, 가장 가까운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그렇게 지렁이도 밟히면 꿈틀한다는 걸 몸소 증명했다. 그리고 일진들과 함께 교무실로 불려갔다.

나는 담임 앞에 일진들과 나란히 서서 발끝만 내려다보았다. 나까지 불려온 게 억울하기만 했다.

담임은 다 알고 있었다. 내가 집에서 학대 당하는 것도, 반에서 왕따 당하는 것도. 그걸 다 알면서도 감안하지 않았다.

담임은 모두의 부모를 호출했다. 나도 예외는 아니었다.

“여보세요. 지안이 아버님 되시나요? 저는 지안이 담임 교사인데요. 오늘 지안이가...”

담임이 귀에 붙인 수화기에서 새아빠 목소리가 흘러나오는데 덜컥 겁이 났다.

학교로 불려온 새아빠가 열받아서 나를 때릴 것 같았다.

하지만 곧 차라리 잘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차피 매일 맞는 거, 나는 내심 새아빠가 와서 남들 다 보는 앞에서 나를 때리길 바랐다.

누구도 다시는 내가 쇼한다고 말하지 못하게.

나는 몰랐다. 그조차도 너무 큰 바람이었다는 걸.

―그거 내 자식 아닌데.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심드렁한 목소리가 내 기대를 무참히 짓밟았다.

담임이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정학을 먹이든 퇴학을 시키든 당신네 맘대로 하쇼.

담임은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 새아빠에게 엄마를 바꿔 달라고 청했지만, 새아빠는 한마디로 일축했다.

―내 마누라는 아무 데도 안 가.

통화는 그걸로 끝이었다.

시간이 지나 일진들의 부모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그들은 자기 자식을 끼고돌면서 한목소리로 나를 비난했다.

나를 노려보고 손가락질하는 어른들로 교무실이 가득 찼다.

개중 한 사람이 독살스러운 눈초리로 비아냥거렸다.

“하여간 에미 애비 없는 것들이 문제야.”

그 말이 대못이 되어 가슴에 박혔다.

그래, 나한텐 애비가 없었다. 옛날에 죽었다. 그래도 에미는 있었다. 그러나 없느니만 못했다.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았다. 아니, 나 혼자였다.

나만 혼자였다.

꾹꾹 누르고 밟아 가슴 깊숙이 구겨 놓았던 서러움과 외로움이 해일처럼 일어나 눈으로 쏟아져 나왔다.

억울하고 자존심 상하는데, 울기 싫은데, 터져 나오는 울음이 너무 크고 세차서 막을 수가 없었다.

“흐윽...”

여자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눈 떠 보니 나였다. 눈꼬리에서 미끄러진 눈물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 귀를 적시는 게 느껴졌다.

나는 축축한 귀를 문질러 닦으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재수가 없으려니까 별 꿈을 다 꾼다. 벌써 12년이나 지난 일을...

꿈자리가 사나운 탓일까. 어쩐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제발 빗나가라. 제발.

나는 꿈틀거리는 불안을 품고 학교로 출근했다.

그토록 빗나가길 바랐건만, 내 예감은 불행히도 적중하고 말았다.

점심 시간이 되자 모예연을 필두로 그녀와 친한 교사들이 1학년 교무실로 우르르 몰려온 것이다. 그중에는 물론 영어와 일어도 있었다.

나는 졸지에 그들과 대치하게 되었다.

중립인 척 직장 내 따돌림을 방관하는 1학년 교사들이 점심 먹으러 나가다 말고 흥미와 걱정이 반반씩 섞인 눈으로 우리를 구경했다.

“지안쌤. 어제 2학년 교무실까지 찾아와서 예연쌤 거짓말쟁이로 몰았다며?”

영어가 양손으로 허리를 짚고 따졌다.

어이가 없었다. 지금 거짓말쟁이로 몰린 사람이 누군데.

“저는 사실 관계를 따지러...”

“여기 사실 관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지안쌤이 남친 있는데도 소개팅 나가서 깽판 친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냐고.”

“그게 아니라―.”

“지안쌤이 소개팅 부탁한 거 아니라고? 예연쌤이 거짓말 했다고?”

일어가 내 말을 끊고 선수를 쳤다. 대놓고 빈정거리는 말투였다.

“...네.”

“지안쌤, 정말 너무한다.”

모예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목소리를 떨었다. 같이 온 교사들이 모예연을 위로하며 한입으로 나를 책망했다.

“지안쌤, 적당히 좀 해.”

“사람이 대체 왜 그래?”

“꼭 상황을 이렇게까지 키워야겠어?”

화살받이가 된 느낌이었다.

나를 비난하는 입이 너무 많았다.

나를 노려보는 눈이 너무 많았다.

쿡.

날카로운 통증이 배를 찔렀다.

쿡. 쿡.

따끔따끔한 통증 속에서, 학교까지 쫓아온 간밤의 악몽이 내 발목을 붙잡고 제 아가리 속으로 게걸스레 끌어당겼다.

나는 절망의 구렁텅이로 속절없이 끌려들어갔다.

교무실의 풍경에 12년 전 그날이 덧씌워졌다.

모예연과 동료 교사들 자리에 나를 때린 일진들과 그 애들의 부모들, 그리고 그들에게 쩔쩔매는 선생들이 들어찼다.

내 옷차림도 교복으로 바뀌었다.

교사 하지안은 사라지고 왕따 하지안이 남았다. 가족이 있지만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친구도 없고, 세상에 내 편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외톨이가.

나는 혼자였다.

여전히.

또는 영원히.

불현듯 죽고 싶었다. 이대로 증발해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따다닥 따다닥 따닥따닥따닥.

설상가상으로 타자 소리까지 들려오기 시작했다.

주우금, 너까지...

제발 가만히 좀 있어라. 지금만이라도.

그러나 내 마음의 소리가 우금에게 들릴 리 만무했다.

타자 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해졌다.

짐작이 갔기 때문이다. 우금이 굳이 내가 학교에 있는 시간을 골라서 나온 이유.

어제 나한테 오지도 않고 밤 시리즈 내용과 자기 행적을 대조했으니 오늘은 작가를 찾으러 나왔겠지.

바로 나를.

이제 보니 세상에 내 편이 없는 수준이 아니었다. 온 사방이 적이었다. 직장에는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싶어하는 인간들뿐이었고 바깥에는 나를 육체적으로 매장하려는 놈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지안쌤, 할 말 있으면 해. 어제 보니까 나한테 할 말 많은 거 같던데.”

동료들의 비호를 등에 업은 모예연이 착한 척, 순한 척, 연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이곳에서.

“정작 멍석 깔아 주니까 한 마디도 못하네.”

누군가 코웃음 치며 빈정거리는 소리에 기가 막혔다. 멍석을 깔아 줬다니. 나는 멍석에 말려 있었다. 멍석에 돌돌 말려 옴짝달싹도 못 하고 뭇매만 죽어라 맞고 있었다.

그때였다.

똑똑.

느닷없는 노크 소리가 나에게 쏠린 이목을 흩뜨렸다. 나를 찌르던 시선들이 방향을 돌려 교무실 문에 꽂혔다.

잠시 후, 교무실 문이 열리며 뜻밖의 인물이 등장했다.

검은 정장을 화보처럼 소화하는 신사.

...의 탈을 쓴 연쇄살인마.

우금이었다.

왜, 왜 여기에? 입이 절로 벌어지며 머릿속에 물음표가 가득 찼다. 문성원을 찾으러 나온 게 아니었나?

우금은 뱀파이어처럼 주위의 시선을 빨아들였다. 교무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우금을 넋 놓고 바라보았다. 우금에게는 그런 힘이 있었다. 사람을 홀리는 힘.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우금은 나를 둘러싼 교사들의 면면을 천천히 눈에 담았다. 미소 띤 입꼬리와 휘어진 눈꼬리로.

일견 온화해 보이지만, 한쪽 눈매가 살짝 샐그러져 있었다. 그리고 오직 나만이, 연쇄살인마 주우금을 창조한 작가 문성원만이 가면 속에서 번뜩이는 칼날을 볼 수 있었다.

소름이 쫙 끼쳤다. 이 사람들을 왜 그런 눈으로 봐. 이들이 네 사냥감이 될 만큼 악한 것도 아닌데.

“누구... 어떻게 오셨어요?”

모예연이 얼굴을 붉히며 머뭇머뭇 정적을 밀어냈다. 우금은 아무런 대답 없이 교사들 틈으로 성큼 파고들었다. 모예연을 비롯해 나와 대치하고 있던 교사들이 양옆으로 비켜서면서 홍해처럼 갈라졌다.

우금은 오롯이 나만 바라보면서 내게 다가왔다. 하지만 나는 차마 그 눈길을 마주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렸다. 우금이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질 때마다 밤 시리즈가 현실이 될 것만 같아서.

마침내 우금의 두 발이 내 앞에 멈춰섰다.

“지안아.”

믿을 수 없을 만큼 따스한 목소리에 모든 긴장이 거짓말처럼 녹아내렸다. 나는 퍼뜩 고개를 들어 우금을 올려다보았다.

우금의 눈에서 번득이던 살기와 광기는 오간 데 없이, 온화한 애정만 영글어 있었다. 처음부터 그런 건 없었던 것처럼...

내가 잘못 본 걸까? 또 피해망상이었나? 나의 긴장과 공포와 스트레스가 실재하지 않는 위험을 만들어낸 걸까?

“나랑 점심 약속 해 놓고 왜 전화를 안 받아.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걱정했잖아.”

“...?”

우금이 다정한 목소리로 나를 나무랐다. 어안이 벙벙했다. 점심 약속이라니? 그런 약속 한 적 없다.

전화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반사적으로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부재중통화 표시는 없었다.

황당해서 다시 올려다본 우금은 태연한 얼굴로 주위 교사들을 휘둘러보고 있었다.

“혹시 무슨 문제 있습니까.”

우금은 눈치가 빠르고 명석한 캐릭터였다. 교무실 문을 연 순간, 나를 둘러싸고 있던 모예연 패거리를 본 순간, 부자연스러운 침묵이 찬물처럼 끼얹어진 순간... 그 한순간에 이 모든 상황을 알아차렸으리라.

“...”

조금 전까지 나를 몰아세우던 교사들이 찔린 기색으로 우금의 시선을 피했다.

“점심 시간 맞지? 밥 먹으러 가자.”

빙긋 웃으며 내 손을 잡은 우금이 주위를 향해 물었다.

“여자친구 좀 빌려가도 되겠습니까.”

여기저기에서 헛숨 삼키는 소리가 새어 나왔다. 교사들이 놀란 눈빛을 교환하며 수근거렸다.

모예연 패거리가 서로서로 눈치만 보는 가운데, 사태를 방관하던 1학년 교사 몇이 그러라고 대답했다.

나는 우금의 손에 이끌려 양쪽으로 갈라선 교사들 사이를 지나쳤다.

우금의 손을 잡고 복도로 나가자 지나가던 학생들이 놀란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았다.

정확히는 우금을.

“대박. 지안쌤! 남친이에요?”

내가 가르치는 1학년 여학생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어? 어...”

남친. 공개 연애. 교권 추락.

내 머리가 익숙하게 최악의 가정을 떠올리는 동안 우금이 나 대신 대답했다.

“안녕. 지안쌤 남친이야.”

“꺄아악!”

근처에 있는 여학생들이 자지러지게 환호했다.

“완전 멋있으세요!”

“목소리도 잘생겼어요! 성우 하세요!”

“남친분 얼굴에 김 묻었어요! 잘생김!”

우금이 웃음을 터트렸다.

무슨 아이돌 콘서트라도 온 것 같았다. 우금이 말하면 말한다고, 웃으면 웃는다고, 손 흔들면 손 흔든다고 사방에서 난리였다.

기분이 이상했다.

얘들아, 너희가 잘생겼다고 좋아 죽는 이 남자는 사실 공포소설 속 연쇄살인마란다...

우리는 호들갑 떠는 학생들을 지나 밖으로 나왔다.

학교 주차장에서는 검은색 포르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주차했을까. 원래는 관계자만 들어올 수 있는데.

모르겠다. 우금이 사람도 아니고. 이 차가 허공에서 뿅 나타났다고 해도 놀랍지 않았다. 우금부터가 홍길동처럼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니까.

우금은 항상 그랬듯이 조수석 문을 열어 주고 본넷 앞을 빙 돌아 운전석에 올랐다.

모 영화의 슬로건처럼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면, 우금은 사람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나는 묵묵히 차창을 바라보다가 우리가 탄 차가 교문을 빠져나올 때 나직이 물었다.

“어떻게 알고 왔어?”

“뭘?”

“내가... 곤경에 처해 있던 거.”

“곤경에 처해 있었어?”

우금이 나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내 눈엔 시치미로만 보였다.

“몰랐다고?”

“몰랐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

하지만 분명 알고 왔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절묘한 타이밍에 나타난단 말인가.

“그럼 왜 갑자기 찾아왔는데? 우리 점심 약속 안 했잖아.”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추궁하자 우금이 멋쩍게 미소 지었다.

“그냥 너랑 같이 먹고 싶어서 핑계 댄 거야.”

거짓말 같은데, 지금 그 말이야말로 핑계 같은데, 혹한의 적의 속에 단단히 얼어붙었던 마음이 흐물흐물 녹아내렸다.

나는 자꾸만 풀어지는 표정을 억지로 찡그리며 괜스레 투덜거렸다.

“당신은 친구도 없어?”

우금이 천연덕스럽게 대꾸했다.

“나한텐 너밖에 없어.”

어떻게 들으면 소름 끼치는 말인데. 우금이 스토커처럼 느껴져야 하는데.

틀렸다. 지금은 그저 기뻤다.

나한테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나밖에 없다는 사람을 어떻게 마다할 수 있을까.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나에게 주우금이 있었다.

우금과 마주 앉아 점심을 먹는 내내 차에서 들었던 말을 곱씹었다. 나밖에 없다는 말.

그건 감언이설이 아니었다. 사실이었다. 우금에겐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었다. 하다못해 공범조차 없었다.

나의 외로움이 나도 모르는 새 캐릭터에게 반영된 걸까. 우금이 활자일 땐 전혀 미안하지 않았는데, 사람이 되어 내 앞에서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니 괜히 짠했다.

우금은 철저하게 혼자였다. 우금의 인간 관계는 전부 사냥에 필요해서 맺은 거짓된 관계뿐이었다. 심지어 우금의 본명을 아는 인물도 없었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우금은 공포의 화신이니까. 무서운 존재여야 하니까.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소리소문 없이 나타나 악인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귀신을 만들고 싶었다.

우금의 말이 맞았다. 우금에게 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의 본명을 알고, 처음으로 그와 진실된 관계를 맺은 사람. 그게 비록 조작일지라도.

텁텁한 죄책감에 입 안에서 씹히는 밥알이 모래 알갱이처럼 까끌까끌하게 느껴졌다.

식사를 마친 뒤 우금은 나를 다시 학교에 태워다 주었다.

데려다줘서 고마워, 짧게 인사하고 차에서 내리려는데 우금이 나를 불러 세웠다.

“지안아.”

멈칫 뒤돌아보자 우금이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힘든 일 있으면 말해.”

“...”

순간 말문이 막혔다. 최근엔 힘든 일밖에 없었고, 그렇게 말하는 우금이야말로 내 모든 고난의 원인이었으므로.

그래도 마음 써 주는 건 고마워서, 열없이 웃으며 되물었다.

“말하면. 해결해 주게?”

우금이 웃음기 없는 얼굴로 대답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덩달아 입가에 머금었던 웃음이 싹 증발했다. 우금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나쁜 일들만 떠오른 탓이었다. 납치, 살인, 암매장.

“마음만 고맙게 받을게. 나중에 봐.”

나는 차에서 내렸다.

우금이 탄 차를 뒤로 하고 학교로 돌아가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수록 발이 무거워졌다. 정말, 진짜, 너무, 가기 싫었다. 또 어떤 냉대와 멸시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가슴이 답답하고 숨 쉬기가 버거웠다. 나는 연거푸 한숨을 몰아쉬며 학교로 들어갔다.

점심 시간이 끝나 복도는 적막했다.

5교시 수업은 없지만 아무래도 눈치가 보여서, 따갑게 쏟아질 눈총을 각오하며 교무실에 들어섰다.

그런데 아무도 나를 쏘아보지 않았다. 도리어 어쩌다 눈이 마주치면 미안한 표정으로 눈인사를 보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모예연과 틀어진 이후로 대부분의 교사들이 나만 보면 냉기를 풀풀 날렸는데, 지금은 어디서 훈풍이 부는 듯했다.

어안이 벙벙한 채 자리로 돌아가 앉자, 줄곧 원만하게 지냈으나 최근 들어 냉담해진 동료들이 겸연쩍은 표정으로 다가와 말을 붙였다.

“지안쌤. 남친이랑 점심 맛있게 잘 먹고 왔어?”

무슨 꿍꿍이지. 비꼬려고 이러나.

경계심이 가시처럼 곤두섰다.

“...네.”

“있잖아. 우리가 그동안 지안쌤 서운하게 한 거 알아. 미안해.”

느닷없는 사과에 맥이 풀렸다. 내가 얼떨떨한 눈으로 쳐다보자 나머지 동료들도 하나둘 입을 열었다.

“우리가 지안쌤을 오해했어.”

“예연쌤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참 교활하더라. 지안쌤을 그렇게 모함하고.”

“그러니까 말이야.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금세 모예연 험담이 시작됐다. 그 모습이 곱게 보이지 않았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이런 식으로 내 욕을 했겠지.

그런데 왜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 내 쪽으로 돌아섰을까.

“저기.”

나는 참지 못하고 대화를 끊었다.

“저 없는 사이에 무슨 일 있었나요?”

"지안이 우금의 손에 이끌려 교무실을 나간 뒤, 모예연을 편들며 지안을 비난했던 교사들이 모예연 주위를 둘러쌌다.

“예연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지안쌤이 먼저 소개팅 부탁했다며.”

모예연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녀도 알았다. 거짓말이 탄로났다는 걸.

그녀를 에워싼 교사들의 얼굴에는 정말 그랬냐는 의혹도 아니고 그럴 리가 없다는 확신이 짙게 깔려 있었다.

이게 다 우금 때문이었다. 모예연은 몰랐다. 하지안 남친이 그렇게 잘났을 줄은. 학교까지 찾아올 줄은. 미리 알았다면 소개팅을 부탁한 게 하지안이라는 거짓말을 얹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고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이럴 땐 시치미를 떼는 게 상책이었다.

“그런데요?”

“예연쌤 눈 없어? 지안쌤 남친 봤잖아. 누가 저런 남친을 두고 다른 남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해?”

하지만 모예연은 고집스럽게 대꾸했다.

“지안쌤 취향이야 우리가 모르는 거죠.”

여기저기에서 헛웃음이 터졌다. 모예연의 말을 들은 교사들이 전부 어이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와중에 과묵한 수학 선생이 조용히 끼어들었다.

“제가 들었어요. 모선생님이 하선생님한테 소개팅 부탁하는 거요.”

“거짓말 마세요! 그럼 왜 이제야 나서시는 건데요?”

모예연이 독살스럽게 쏘아붙이자 그가 무덤덤하게 대꾸했다.

“모선생님이 이렇게 불똥 튀기실까 봐요.”

아무 말 못하고 굳어버린 모예연의 곁을, 배신감에 찬 눈빛들과 경멸 어린 얼굴들, 콧방귀와 헛웃음과 혀 차는 소리가 쌩하니 지나쳐 갔다.

텅 빈 교무실에 홀로 남은 모예연이 싸늘한 적막 속에서 두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녀는 너무나도 잘 알았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저주받은 원고를 다 읽고 난 뒤에도, 나는 컴퓨터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기분이 이상했다. 우금이 얼굴을 비춘 것만으로 상황이 해결됐다는 게...

따지고 보면 우금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주우금 눈치 보느라 그놈의 소개팅을 파투내지만 않았어도 모예연한테 찍히진 않았을 테니까.

나의 모든 곤경이 우금 때문에 벌어지고 우금 덕분에 풀렸다. 주우금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는 기분이었다. 그러고도 몰랐다. 그걸 모르고... 좋았다.

내 편이라곤 아무도 없는 교무실에 우금이 나타났을 때, 나를 보며 내 이름을 불러 줬을 때, 내게 다가와 손 잡아 줬을 때, 솔직히 우금이 구세주처럼 느껴졌다. 나밖에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땐 순수하게 기뻤다.

돌이켜 보니 소름 돋았다. 조금 잘해 준다고 홀딱 넘어가서는 마음 푹 놓고 있었다. 정신줄 놓은 거나 마찬가지였다. 이러다 들키면 죽을 수도 있는데. 들키는 게 내 감정이 됐든, 정체가 됐든 결과는 똑같을 것이었다.

따각따각 따각따각.

불현듯 저주받은 키보드가 저홀로 타자를 치기 시작했다. 우금이 움직이고 있었다.

삽시간에 뒷목이 뻣뻣해졌다. 나한테 오나 싶어서.

그런데 원고를 확인해 보니 우금은 집에서 메일을 쓰고 있었다.

메일? 무슨 메일.

눈썹을 찌푸린 순간 띠링, 하는 알림음이 들렸다. 컴퓨터 옆에 놔둔 핸드폰 화면에 팝업창이 떠 있었다. 메일 알림이었고, 원고 송부용으로만 쓰는 문성원 계정이었다.

피가 식었다. 메일을 열어 보기도 전에 우금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마른침을 삼키며 메일을 열었다.

"보낸 사람: 이름없음<nightdeath@jmail.com>

받는 사람: 문성원<Imscared@never.com>

안녕하세요, 작가님.

저는 작가님께서 집필하신 밤 시리즈를 인상 깊게 읽은 독자입니다.

글을 어쩌면 그렇게 생생하게 쓰시는지.

주우금이 죽어 마땅한 화자를 추적하고 처단하는 모든 과정이 눈에 선히 펼쳐져서 마치 제가 직접 처단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작중 벌어지는 사건들과 등장하는 인물들이 제가 아는 바와 몹시 유사한데, 실화 바탕이라는 이야기가 없더군요.

밤 시리즈를 쓸 때 등장인물 및 사건을 어떻게 구상하셨는지, 혹 모티브가 있다면 어디서 어떻게 얻으셨는지, 작가님만 괜찮으시다면 직접 만나 뵙고 집필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긍정적인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팬레터의 허울을 쓰고 있지만 이건 덫이었다. 문성원을 꾀어내려는 덫.

메일 주소는 어떻게 알아낸 걸까. 몇 개월에 한 번, 담당한테 원고 보낼 때 말고는 전혀 안 쓰는데.

과연 주우금...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어디서든지 어떻게든지 반드시 손에 넣고 마는 만능 캐릭터다웠다. 현실에서도 똑같구나.

그러나 감탄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우금이 내 정체를 알아내는 것도 시간 문제 같았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불안과 더불어 심장 소리도 점점 커졌다. 쿵. 쿵. 쿵. 쿵. 온몸이 울리고 온 정신이 흔들렸다.

우금이 나한테 자상하고 다정한 건 모르기 때문이다. 내가 자길 안 사랑한다는 걸 모르고, 내가 문성원이라는 걸 모르고, 내가 상황을 조작해서 자기 애인이 됐다는 걸 모르니까.

우금이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나한테 무슨 짓을 할까.

우금에게 거짓말한 혀. 우금을 농락한 열 손가락. 우금의 사랑을 기만한 심장. 밤 시리즈 작가 문성원으로서 장담하건대, 이 세 가지는 확실하게 잃을 자신 있다.

나는 꼼짝없이 살해당할 것이다. 사랑이 뒤집히면 증오가 되는 법. 사건사고의 단골 손님 아니던가. 치정.

안 돼. 가만히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릴 순 없다. 우금이 나를 찾아내기 전에 로맨스 남주로 만들어야 한다.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나는 급히 우금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칫했다. 문성원한테 메일을 보내자마자 내가 전화를 걸면 의심을 살 수도 있을 테니.

내일까지 기다리는 게 좋겠다.

―응, 지안아.

우금은 다정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나는 곧장 본론을 꺼냈다.

“오늘 나랑 데이트 할래?”

―어쩌지, 오늘은 안 되는데.

당연히 오케이 할 줄 알았더니, 우금은 할 일이 있다며 내일은 어떠냐고 반문했다.

우금이 할 일은 뻔했다. 사냥 아니면 추적. 죽일 놈을 고르거나 문성원을 찾으러 다니겠지.

“내일은 내가 안 되는데.”

나는 이제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다. 우금은 거짓말은 이해 못하고, 배신은 용서 못하는 남자였으므로. 신뢰를 저버리는 게 목숨을 잃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다.

―그럼 어쩔 수 없지. 월요일에 보자.

거짓말한 보람도 없이, 우금은 쿨하게 물러났다.

어쩐지 억울해졌다. 사랑한다더니. 이 자식이 나한테 거짓말한 거 아닐까.

우금이 무슨 일 하나 보려고 저주받은 원고를 주시하고 있는데 띠링, 하는 알림음이 들렸다. 새 메일이었다.

뭔데, 또.

나는 습관적으로 엄지를 짓씹으며 메일을 열었다. 우금인 줄 알았는데 이번엔 오해준이었다. 스팸 메일이나 다름없었다. 밤 시리즈와 문성원을 향한 기나긴 찬사 끝에 만나 달라는 간청이 붙어 있었다.

이 인간도 있었지, 참.

골치가 아팠다. 나는 쿡쿡 쑤셔 오는 관자놀이를 꾹꾹 누르며 메일 페이지를 닫고 원고로 돌아왔다.

원고 속 우금은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통화 상대가 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다.

"-오늘 방문하고 싶습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어려운데요. 저희도 주말은 쉬거든요.”

-전화 받으시는 분은 회사에 계시잖습니까.

“저밖에 없어요. 저도 지금 하는 일만 처리하고 퇴근할 예정이고요.”

우금의 고집에 해준이 난색을 표하면서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런데 이 목소리, 어디서 들어 본 거 같은데?’"

오해준. 이 인간이 여기 왜 나오는 걸까.

우금의 목소리가 오해준 귀에 익은 이유도 알 만했다. 내 방에 숨었을 때 방문 너머로 들렸겠지.

우금의 목소리를 기억해낸 오해준이 “문성원 작가님?!” 하고 놀라 소리치는 상상이 떠올랐다.

그런데 내 심장이 지레 터지기도 전에 우금이 먼저 쥐어 터트렸다.

"-제가 문성원 작가 지인이라고 해도 어렵습니까?

우금이 다시 물었다."

가슴속에서 폭탄이 터진 것 같았다. 쾅, 쾅, 쾅, 심장 터지는 소리에 온몸이 뒤흔들렸다.

들켰나?!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들켰다면 나한테 오겠지. 출판사가 아니라. 저건 거짓말이다. 문성원 이름을 팔아서 출판사에 가려는 속셈이 빤했다.

"“어유, 진작 말씀하시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절대 두 사람을 만나게 둘 순 없었다. 우금의 목적은 문성원이고, 오해준이 문성원 정체는 몰라도 주소는 아니까. 오해준이 우금의 청에 못 이겨 우리 집 주소를 알려 주기라도 한다면 오늘이 내 제삿날이 될 것이다.

나는 곧장 오해준의 명함을 찾아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오해준 대리님. 저 문성원 작가 와이프인데요.”

―아, 예! 사모님.

“지금 바로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어, 그건 좀 어렵겠는데요. 제가 오늘 출근을 했거든요. 지금 회사입니다.

“급한 일인데요.”

―무슨 일이신데요?

“...”

덜컥 말문이 막혔다.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내 목숨이 달린 일이라고? 머릿속이 하얗게 탈색돼서 아무런 변명거리도 떠오르지 않았다.

―죄송하지만 조금 이따 손님이 오시기로 해서 자리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손님 때문에 만나자는 거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사모님? 여보세요?

안 되겠다. 오해준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제가 이따 퇴근하고 댁으로―.

나는 전화를 끊고 차키를 챙겨 현관으로 내달렸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금보다 먼저 출판사에 도착해야 했다.

어떻게 운전해 왔는지도 모르겠다. 신호 대기에 걸릴 때마다 짓씹은 엄지 끝에서 피가 비쳤다.

헐레벌떡 출판사로 뛰어들어가자 아무도 없는 사무실을 지키고 있던 오해준이 놀란 얼굴로 나를 맞이했다.

“아니, 사모님! 여기까진 어쩐 일이세요? 제가 이따 댁으로 가려고 했는데.”

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오해준의 팔을 붙잡았다.

“급한, 헉, 급한 사정이 생겨서요. 잠깐 저랑 같이 좀 가 주세요.”

“지금요?”

오해준이 황당한 얼굴로 되물었다.

“네, 지금 당장.”

“사모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손님을 기다리는 중이라―.”

“남편이!”

버럭 언성을 높이자 오해준이 놀라 말을 멈췄다. 나는 눈을 질끈 감고 최후의 수단을 사용했다.

“남편이 대리님을 만나고 싶어해요.”

“정말요? 같이 오셨어요?”

오해준이 반색을 하며 출입문을 쳐다보았다. 문성원이 곧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보여 어처구니가 없었다.

어딜 보시나. 난 여기 있는데.

“같이 왔다고 해야 할지...”

“잠시만요. 먼저 손님한테 전화 좀 드리겠습니다.”

오해준이 사무실 전화기를 들고 버튼을 눌렀다.

그런데 잠시 후, 바깥에서 핸드폰 벨소리가 들려왔다. 놀란 심장이 팝콘처럼 튀었다. 설마.

“어. 벌써 오셨나 보네.”

오해준의 말대로, 벨소리는 그치지 않고 점점 가까워졌다. 차마 출입문을 뒤돌아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제발, 제발 우금이 아니기를, 제발...

이윽고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성원 작가님 지인분이세요?”

전화를 끊은 오해준이 반색을 하며 물었고,

“예.”

우금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나는 얼어붙은 목을 천천히 움직여 뒤를 돌아보았다. 출입문 앞에 서 있는 우금이 보였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몸이 쑥 꺼지는 착각이 들었다. 발밑이 무너진 듯 아찔하고 막막했다.

당장이라도 우금이 나를 향해 ‘맞죠? 문성원 작가님.’ 하며 비아냥거릴 것 같았다.

하지만 우금은 그러지 않았다. 나를 보고 놀란 듯 표정을 굳혔을 뿐.

“지안아. 네가 왜. 아니, 여긴 어쩐 일이야?”

우금이 딱딱한 목소리로 물었다.

입 안에 가뭄이 몰려왔다. 순식간에 혀가 마르고 목이 탔다. 대답, 대답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이든지, 아니, 아무 말이라도. 그러나 텅 비어버린 머리는 어떤 변명도 떠올리지 못했다.

“난, 나는.”

마른 입술을 달싹이면서 생각을 짜내는데 옆에서 오해준이 나와 우금을 번갈아 쳐다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아, 이 목소리...!”

생각났다는 신호였다. 이 인간이 기어코 우금의 목소리를 기억해 낸 모양이었다.

우금이 문성원인 줄 아는 오해준의 만면에 화색이 돋았다.

‘작가님! 문성원 작가님 맞으시죠?’

‘뭐?’

우금의 미간이 확 일그러진다. 아랑곳 없이, 오해준은 우금에게 달려가 멋대로 악수를 청한다.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사모님께 들었습니다. 저를 만나러 오셨다고요?’

‘사모님?’

우금은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보고, 겁에 질린 내 얼굴을 보자마자 모든 것을 간파한다.

다음 순간, 우금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오해준의 머리를 갈긴다. 뻑! 소리와 함께 오해준이 종이인형처럼 픽 쓰러진다... 아니다, 오해준은 건드리지 않는다. 그는 악인도 배신자도 아니니까.

우금은 심각한 분위기에 얼어붙은 오해준을 무시하고 비명도 못 지르는 내게로 뚜벅뚜벅 다가온다.

‘으... 흐으...’

나는 울음에 가까운 신음을 흘리면서 주춤주춤 물러서다가 벽에 부딪친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내 앞에 다가선 우금이 한손으로 내 목을 틀어잡는다. 숨이 턱 막힌다. 나는 눈물 콧물 침을 죄다 흘리면서 우금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친다.

그러나 손을 할퀴고 팔을 때리고 정강이를 차도 우금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내가 숨이 넘어가는 걸 보면서 부드럽게 타이를 뿐이다.

‘내가 말했지. 거짓말 이해 못한다고.’

전신에 소름이 쫙 끼쳤다. 단 3초 만에 펼쳐진 상상이 현실이 되기 전에, 아무도 없는 출판사에서 시체로 발견되기 전에, 나는 오해준의 팔을 꽉 붙잡았다. 오해준이 움찔 놀라 나를 쳐다보았다.

“채, 책이 안 와서! 이번 달 책동네 독자 평가단으로 선정됐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책이 안 와 가지고. 이분한테 물어 보니까 우리 집 주소가 누락됐다네?”

마음이 급해지니까 머리가 팽팽 돌고 말이 술술 나왔다.

“...?”

오해준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다행히 거짓말을 지적하지는 않았다.

“내가 먼저 왔으니까 먼저 볼일 봐도 되지?”

나는 애써 태연한 척 억지 웃음을 지으며 우금에게 양해를 구했다.

“그럼.”

우금이 부드러운 미소로 대답했다.

나는 그대로 오해준을 끌고 멀찍이 떨어진 회의실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참았던 숨을 시근시근 몰아쉬는데 오해준이 눈치를 보면서 물었다.

“사모님, 왜 거짓말하세요? 남편분한테...”

살려고.

하지만 우금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마당에 구구절절 설명할 수도 없고, 해 봤자 믿지도 않을 거고. 필히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잘할 자신이 없었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길게 내뱉으며 마인드 컨트롤을 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다. 소설이다. 소설은 자신 있다. 나는 소설가니까. 이제부터 나는 말로써 소설을 쓸 것이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급한 사정이 이거예요.”

“예?”

당연히 오해준은 알아듣지 못했다. 나는 침착하게 부연했다.

“남편한테 들켰어요.”

“뭘요?”

“대리님이 제 방에 숨으셨던 거요.”

“그건...!”

네가 시켰잖아. 듣기도 전에 뒷말이 읽혔다. 나는 오해준이 항의하기 전에 선수를 쳤다.

“제 남편, 오해준 대리님 잡으러 온 거예요.”

오해준은 얼이 나갔다.

“저를요? 왜요?”

“제... 외도 상대인 줄 알고.”

나는 단어를 고른 척, 일부러 뜸을 들였다. 오해준은 충격에 빠진 얼굴로 검지를 들어 저와 나를 번갈아 가리켰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지금 바로 해명하겠습니다.”

분연히 선언한 오해준이 회의실을 나가려고 했다. 나는 화들짝 놀라 그의 앞을 막아섰다.

“안 돼요!”

“왜요?”

오해준이 황당히 되물었다.

“왜냐하면, 왜냐면...”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해야 이 인간이 납득할까. 고민할 시간이 없었다. 초조함에 속이 타들어갈 때, 불현듯 원고로 봤던 오해준의 착각이 생각났다.

"작가가 의처증이구나."

“의처증 때문에요.”

정답이었다. 오해준의 눈에 이해의 빛이 어리는 게 보였다.

“남편한테 의처증이 있어요. 해명해도 안 믿을 거예요.”

그러자 마침내 내가 기다리던 질문이 나왔다.

“그럼 어떡하죠?”

“본인 아닌 척하세요. 저 사람 모르는 척하세요. 남편 정체 아는 사람, 사장님하고 담당님하고 대리님, 세 분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저는 작가님을 설득해야 되는데요. 계약 파기하지 마시라고.”

오해준이 난처한 기색으로 항변했다.

“이미 남편이 대리님을 제 내연남으로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데 대리님 설득이 먹힐까요?”

“...”

“지금 대리님이 나서시는 건 불난 집에 기름 끼얹기밖에 안 돼요. 일단 제가 남편 오해를 풀고, 나중에 자리 마련해 드릴게요.”

나는 고민에 빠진 오해준에게 간절히 애원했다.

“제발요. 저를 봐서라도... 남편이 절 죽일 거예요.”

이 말만큼은 진심이었다.

갈등 어린 표정으로 침묵하던 오해준의 입에서 이윽고 땅이 꺼질 듯한 한숨이 흘러나왔다.

“알겠습니다.”

살았다.

나 역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금을 데리고 나갈 차례였다.

어떻게 해야 우금이 오해준과 말 한 마디 안 섞고 나가게 만들 수 있을까.

화를 내 볼까? 여기 오려고 데이트도 거절한 거냐고.

아니다. 그러면 오해준한테 한 거짓말과 부딪친다. 남편이 내연남을 잡으러 왔다고 해놓고 데이트 운운할 순 없다.

화난 척 연기할 자신도 없었다. 나는 배우가 아니니까.

그래도 딱 하나, 연기할 자신 있는 게 있긴 있었다. 하도 자주 겪어 봐서 눈 감고도 재연할 수 있는 것.

나는 회의실에서 나오자마자 등허리를 구부리며 배를 싸쥐었다.

“으윽...!”

“지안아!”

우금은 안색이 돌변해서 달려왔다.

“왜 그래, 배가 아파?”

허리를 숙인 우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내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나는 꾀병이 탄로날까 무서워 눈을 내리깔았다. 눈을 마주치면 우금이 거짓말을 꿰뚫어 볼 것 같았다.

‘너 하나도 안 아프잖아. 진짜 아프게 만들어 줄까?’

상상 속 우금이 무표정한 얼굴로 묻자마자, 실제로 날카로운 통증이 배를 찔렀다.

“허억.”

나는 헛숨을 들이키며 주저앉았다. 콩벌레처럼 등을 말고 헐떡이는데 나를 뒤따라 나온 오해준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으세요? 119 부를까요?”

“아닙니다.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우금이 나를 번쩍 안아들고는 내 귓가에 속삭였다.

“조금만 참아.”

나는 앓는 소리를 내며 우금의 어깨에 고개를 박았다. 뱃속에서 송곳이 굴러다니는 것 같았다. 아픈 척하다가 진짜로 아파진 것이다.

우금은 나를 안은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성큼성큼 출판사를 나왔다. 오해준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복통도 서서히 가라앉았다.

지하 주차장에서, 나를 조수석에 태운 우금은 운전석에 오르자마자 내비게이션에 근처 병원을 검색했다. 나는 다급히 우금의 손목을 붙잡았다.

“병원 안 가도 될 것 같아. 괜찮아졌어.”

우금이 다른 손으로 내 손을 부드럽게 떼어냈다.

“통증 가라앉았다고 괜찮아진 거 아니야. 아프면 병 있는 거야. 병원 가서 검사 받자.”

“검사 결과가 너무 뻔해서 그래. 만성 위염, 스트레스성 복통, 나 그런 거 달고 살잖아. 자기도 알지?”

나는 일부러 자기라는 호칭까지 써 가면서 우금을 간절하게 쳐다보았다.

너는 안다. 우리 집 현관문 비밀번호도 알고 부엌 찬장에 뭐뭐 있는지도 알고 구급함이 TV장에 있는 것도 다 안다. 내가 온갖 잔병과 더불어 사는 것도 아마 알 것이다.

잠시 후 우금이 한숨을 내쉬며 물었다.

“정말 괜찮아?”

“응. 근데 쉬긴 해야 될 것 같아. 집에 좀 데려다 줄래?”

“그래.”

우금이 운전을 시작했다. 출판사 건물이 빠르게 밀려나고, 고층 빌딩들 틈으로 쏟아지는 햇살과 인파로 뒤덮인 거리와 가로수 그림자들이 차창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며 걱정에 잠겼다. 이번엔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지만 다음에 또 우금이 오해준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와중에 우금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심기를 긁었다.

“넌 나 없으면 정말 큰일나겠다.”

뭐라는 거야. 너 때문에 아픈 거야. 너랑 사귀는 게 내 인생 가장 심각한 큰일이야.

뱉을 수 없는 울화가 속을 태웠다. 조용히 화를 삭이는데 우금이 지나가는 말투로 물었다.

“그런데, 지안아. 나는 왜 거기 갔었는지 안 물어 봐?”

어깨가 흠칫 떨렸다. 가급적 출판사 얘기는 안 하고 싶었다. 긁어 부스럼이라고, 문성원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화제는 피하고 싶었다.

하지만 우금이 먼저 물어 본 이상 피할 방도가 없었다.

“왜 갔는데?”

마지못해 물어 보자 우금이 기다렸다는 듯 이야기를 꺼냈다.

“네가 빌려 준 책 있잖아. 밤 시리즈. 그거 읽어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 내용도 꼭 실화 같던데.”

말에 뼈가 있었다. 왜 아니겠는가. 우금에겐 다 실화인데.

“작가가 궁금해져서 검색해 보니까 알려진 게 필명밖에 없더라.”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가. 안 그랬으면 이 자식 손에 진작 죽었을 텐데.

“출판사에는 작가가 누군지 아는 사람 있을 것 같아서.”

내 뒷조사 하러 갔다는 이야기를 뭐 이렇게 태연하게 하나.

그거 뒷조사라고 화내고 싶은 걸 꾹 참았다. 아무렴 그걸 모를까. 주우금이 누군데. 우금도 안다. 누구보다도 잘 안다. 알고 하는 놈이다. 뒷조사도, 살인도.

“뭘 그렇게까지 해. 작가가 엄청 궁금한가 보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헛웃음을 흘렸다.

우금이 나를 흘깃 쳐다보며 물었다.

“너는 그 작가 안 궁금해?”

“나는 별로...”

궁금할 리가 있나. 내가 그 작간데.

“너도 그 책 좋아하잖아. 전권 다 모았으면서.”

그야 내가 썼으니까.

“문성원 작가 팬 아니야?”

“맞는데.”

“작가에 대해서 뭐 아는 거 없어?”

“없는데...”

“아쉽네.”

정말로 아쉽다는 투라 가슴이 섬찟했다. 우금이 문성원한테 집착할수록 내 인생 수기가 된 저주받은 원고는 스릴러에 가까워지고, 로맨스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나는 우금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팔자에도 없는 앙탈을 부렸다.

“당신은 나랑 데이트하는 것보다 그 작가 만나는 게 더 중요하구나.”

“어?”

“그렇잖아. 문성원 만나겠다고 데이트도 마다하고 출판사 간 거잖아.”

우금이 드물게 당황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러면서 변명도 하지 못했다. 사실이니까.

“운전 중이잖아. 앞에 봐.”

나는 부러 퉁명을 떨었다.

다시 정면으로 고개를 돌린 우금이 힐끗힐끗 내 눈치를 보았다.

“지안아. 화났어?”

나는 묵묵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화라니, 가당치도 않았다. 나는 너를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무서울 뿐이다. 너한테 들킬까 봐.

“미안해. 네가 이렇게 서운해 할 줄 몰랐어. 요즘 네가 나를 좀 피하는 것 같아서.”

우금은 쓸쓸한 목소리로 도리어 정곡을 찔렀다. 나는 제 발 저린 도둑처럼 펄쩍 뛰고 말았다.

“뭐?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럼 이제라도 데이트 하자.”

우금이 솜사탕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 어르듯이 말했다.

나는 움찔했다. 문성원 생각 못하게 하려고 삐진 척한 건데 바로 데이트하자고 할 줄은 몰랐다.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데이트 튕겼다고 삐진 거니까. 이걸 어쩌나. 오케이해야 하나?

고민은 짧았다. 내가 주우금한테 언제부터 그렇게 싹싹했다고.

“됐어.”

우금이 오른손을 뻗어 내 손등을 감싸 쥐었다.

“지안아, 제발.”

제발? 주우금이 지금 나한테 애원한 거야?

놀라서 쳐다본 우금은 간식을 기다리는 개처럼 간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믿을 수 없게도, 묘한 우월감이 가슴속을 간질였다.

나는 우금을 외면하며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내가 미친 게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주우금을 상대로 이런 기분을 느낄까.

그러나, 그럼에도 의기양양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다. 사람 물어 죽이는 맹수를 길들인 느낌이었다. 사실 별반 다르지도 않았다.

“그래, 그럼.”

나는 도도하게 수락했다가 집에 가는 길이라는 게 생각나 얼른 덧붙였다.

“대신 밖에서 해.”

우금이 나를 덮치려고 든 게 한두 번도 아니고, 늑대 같은 우금과 집에서 데이트를 했다간 홀랑 잡아먹힐 것 같았다.

“...집에서 쉬고 싶다며. 집에서 하자. 몸도 안 좋은데.”

우금은 나를 걱정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아니 정말로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나는 저 점잖은 얼굴 뒤에 가려진 흑심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야, 나 이제 괜찮아. 나 보고 싶은 영화 있어. 영화 보자, 우리. 외식도 하고.”

“알았어.”

다행히 우금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나는 우금을 데리고 하루 종일 바깥을 나돌았다. 늦은 점심을 먹고, 할리우드 영화를 한 편 보고, 전망 좋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느긋하게 풀코스 정찬을 먹고 나니 어느덧 까만 밤이었다.

이제 집에 들어갈 일만 남았구나. 시간을 확인하고 우금 몰래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런데 나를 데려다주고 갈 줄 알았던 우금이 아파트 현관 앞에서 내 손목을 붙잡았다.

“지안아. 나 너랑 좀 더 같이 있고 싶어.”

그러니까 집에 들여보내 줘. 새까만 속내가 들렸다.

안 돼.

속으로만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나는 머리를 굴렸다. 우금을 자극하고 싶지 않았으므로, 집에 들이지 않고도 우금의 희망을 충족하는 타협안을 찾았다.

“그럼 산책하자.”

“좋아.”

말과는 다르게 우금이 떠올린 미소는 다소 떨떠름해 보였다. 나는 모른 척 앞장서서 근린공원으로 향했다.

늦은 시간인데도 날이 맑고 선선해서 산책하는 사람이 꽤 있었다.

나는 우금과 나란히 걸으면서 날이 좋다, 공기가 좋다, 뭐가 좋다, 하여간에 좋다는 소리만 줄창 입에 올렸다.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우금도 좋다고 맞장구쳤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맞은편에서 야구 모자를 푹 눌러쓰고 양손을 주머니에 찔러넣은 남자가 걸어오는 게 보였다. 그를 본 순간 섬뜩한 한기가 등줄기를 내리그었다.

저 남자가 주머니에 접이식 칼을 숨기고 있을 것 같았다. 가까워지면 칼을 꺼내서 나에게 휘두를 것 같았다.

나의 고질병, 피해망상이었다. 말도 안 되는 망상이라는 걸 머리는 아는데 가슴은 몰라서 심장이 터질 것처럼 불끈거렸다. 덩달아 숨이 가빠졌다.

“왜 그래?”

옆에서 묻는 소리에 생각이 멈췄다. 고개를 돌리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보는 우금이 보였다. 일순 정신이 멍했다.

맞다. 나 주우금이랑 같이 있었지.

“하.”

삽시간에 긴장이 가라앉고 실소가 나왔다. 내가 지금 뭘 무서워 하나.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놈이랑 같이 있으면서.

과장이 아니다. 주우금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다. 죽지 않는 연쇄살인마. 이보다 위험한 인간이 존재할 수나 있을까.

저 남자가 칼을 꺼내서 나한테 휘두르면, 오늘이 저 남자 제삿날은 안 될지 몰라도 입원일은 될 것이다.

“그냥. 혼자서는 무서워서 밤산책 못했는데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 되게 든든하네.”

헛웃음인지, 쓴웃음인지, 나조차도 모를 웃음을 피식피식 흘리며 말하자 우금이 빙그레 웃으며 내 손을 잡아 왔다.

나는 손을 감싸는 온기에 새삼 놀랐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우금은 참 크고 따뜻한 손을 가지고 있었다. 안 어울리게.

“이제 무서워하지 마. 앞으로는 내가 지켜 줄 테니까.”

우금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를 겁먹게 만들었던 야구 모자는 이미 지나가 버린 뒤였다.

나는 맞잡은 손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면서 걷다가 불현듯 멈춰 섰다. 한 박자 늦게 멈춰 선 우금이 의아하게 돌아보았다.

“왜?”

나는 우금의 다정에 기대서 용기를 쥐어짰다.

“전에 나한테 그랬잖아. 다른 건 다 이해하는데 딱 하나, 거짓말은 이해 못한다고.”

“...”

말없이 내 얼굴을 살피는 눈초리가 의미심장했다. 나는 그의 침묵이 두려웠지만 지금이 아니면 물어볼 수 없을 것 같았다.

“만약, 만약에 말이야. 내가 당신한테 거짓말하면 어떡할 거야? 내가 당신을 속였으면. 날...”

죽일 거야?

감히 대놓고 물을 수가 없어, 마른 입술을 핥고 에둘러 물었다.

“버릴 거야?”

과연 우금은 뭐라고 대답할까. 팽팽한 침묵 위에서 요란한 심장 소리가 고막을 두들겼다. 금방이라도 저 입에서 사형선고가 떨어질 것 같아서.

“했어?”

침묵을 끊고 불쑥 날아든 추궁에 심장이 뚝 떨어졌다. 반면 목소리는 튀어올랐다.

“어?”

우금이 차분하게 덧붙였다.

“거짓말.”

“...”

더럭 말문이 막혔다. 반문할 줄은 몰랐다. 안 했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했다고 인정하자니 우금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 무서웠다.

아무 말 못하고 얼어 있는데 우금이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다.

“안 버려. 내가 널 어떻게 버려.”

그 말을 듣는 순간, 생각하기도 전에 입이 먼저 움직였다.

“거짓말.”

애인도 죽여버렸으면서.

내가 그렇게 쓰긴 했지만.

나의 불신을 앙탈로 받아들였는지, 우금은 피식 웃었다.

“진짜야. 솔직하게 말하면 용서해 줄게.”

“...말 안 하면?”

“속아 줄게.”

가볍게 대답한 우금이 맞잡은 손을 들고 내 손등에 입 맞췄다. 차게 식은 손등에 달라붙는 입술이 낙인처럼 뜨거웠다.

나는 얼이 빠졌다. 꿈에도 상상 못한 대답이었다.

우금은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내려다보면서 내가 절대 들어줄 수 없는 희망 사항을 말했다.

“그래도 되도록이면 나한테 거짓말 안 했으면 좋겠다.”

산책이 끝난 뒤, 우금은 나를 현관문 앞까지 데려다주었다.

우금이 집 안으로 따라 들어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나는 시종일관 우금을 경계하며 도어락을 해제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우금의 목소리가 덜미를 붙잡았다.

“작별 인사는?”

나는 안쪽 손잡이로 바꿔 잡으며 우금을 향해 돌아섰다. 내 기척을 감지한 현관 센서등에 불이 들어왔다.

“오늘 즐거웠어. 그럼 잘 가.”

그러자 우금이 내 앞에 성큼 다가서서 고개를 숙였다. 몸이 절로 굳었다.

...키스할 줄 알았는데. 우금의 입술은 내 뺨에 가볍게 닿았다가 금세 떨어져 나갔다.

우금이 그림 같은 미소를 지으며 화답했다.

“나도 즐거웠어. 잘 있어, 지안아. 사랑해.”

머리를 세게 맞은 듯했다. 느닷없이 튀어나온 사랑해 소리가 정신을 온통 뒤흔들었다.

왜 갑자기. 저번에 내가 물어 봤을 때 말고는 사랑한다고 한 적도 없으면서.

“어어, 그래.”

어벙하게 대꾸하고 문을 닫으려는데 커다란 손이 문틈으로 불쑥 들어와 문짝을 덥석 붙잡았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젖혔다. 문틈으로 우금의 얼굴이 보였다.

“왜, 왜?”

“너도 해야지.”

우금이 문틈을 벌리며 부드럽게 타일렀다.

“뭐?”

거대한 당혹감이 나를 덮쳤다. 황망한 얼굴로 올려다보는 내게 우금이 다시 말했다.

“사랑해.”

이번엔 고백이 아니라 예시였다. 우금이 눈으로 지시했다. 말해.

입이 바짝 말랐다. 나는 거짓말에 서툰 편이었고, 우금은 어지간한 거짓말은 죄 꿰뚫어 보는 놈이었다. 궁지에 몰린 심장이 마구 두방망이질 쳤다.

어떡하지. 들킬 텐데. 들키겠다. 들킨다...

망설이는 동안 센서등이 꺼졌다. 어둠 속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마른 침만 삼키고 있을 때였다. 문 밖에 선 우금의 한쪽 입꼬리가 삐뚜름하게 올라갔다.

“왜. 사랑까지는 아니야?”

심장이 천길 낭떠러지로 곤두박질치는 느낌이었다. 우금이 보답받지 못한 사랑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아니? 사랑이지. 사랑 맞아. 나도 사랑해. 사랑해...”

나는 우금을 바라보며 애원하듯 정신없이 되뇌었다. 어둠이 내 표정을 가려 주길 간절히 바라면서.

“...미치겠다.”

우금이 탄식처럼 중얼거렸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불안에 떠는 와중에 우금이 내 목덜미를 휘어잡으며 잡아먹을 듯 입술을 겹쳐 왔다. 놀라 벌어진 입 안으로 축축한 살덩이와 뜨거운 숨결이 밀려들었다. 머리 위에서 주홍빛이 점등했다.

나는 우금의 기세에 떠밀려 뒷걸음질 쳤고, 우금은 한몸처럼 나를 따라 들어왔다. 현관문을 잡고 있던 손으로 내 허리를 끌어당기면서.

쾅.

문이 닫혔다.

내가 좋아하는 팝송 중에 이런 가사가 있다. 착한 남자는 천국에 가지만 나쁜 남자는 천국을 가져다 준다.

그게 무슨 뜻인지 비로소 알 것 같았다. 우금의 혀끝에 천국이 있었다.

단단하고 뜨거운 혀가 여린 점막을 훑고, 연한 속살을 찌를 때마다 강렬한 쾌락이 눈앞을 희게 물들였다. 아찔한 감각에 발끝이 곱아들었다.

뭔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세상이든, 바닥이든... 나를 지탱하고 있던 무언가가 무너지고, 낙원 같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만 같았다.

“지안아, 사랑해. 사랑해. 네가 너무 좋아.”

입술이 떨어지는 사이사이 들려오는 달콤한 속삭임이 내 안 깊숙이 뚫린 구멍에 촉촉하게 차올랐다.

그만해. 나를 사랑하지 마.

저항하는 이성의 반대편에서 감정이 아득바득 요구했다.

계속해. 나를 사랑해 줘.

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므로, 누구에게도 받지 못한 사랑을 우금이 주고 있었으므로, 그게 좋았으므로, 나는 망설였다.

두 갈래로 갈라선 마음이 치열하게 다투는 사이, 나는 우금을 밀어내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매끄러운 재킷 자락을 붙잡은 채 뒷걸음질 쳤다.

우금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동시에 이대로 얽매이고 싶었다. 도대체 내가 뭘 원하는 건지 나조차 알 수 없었다.

그때, 우금이 갈라진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도망치지 마.”

빙글, 시야가 돌면서 등이 벽에 부딪쳤다. 내 몸을 벽에 밀어붙인 우금이 거칠게 덧붙였다.

“놓아 주지 않을 테니까.”

심장이 아플 만큼 세게 뛰었다. 가슴이 너무 떨리는데, 무서운 건지 설레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난,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도.

“나 사랑한다며.”

우금이 사나운 눈빛으로 다그쳤다.

목숨이 달린 일이라 나는 반사적으로 수긍했다.

“사랑해.”

그러자 사납게 일렁이던 눈빛이 눈에 띄게 누그러졌다. 나에게 밀착한 우금이 내 뺨을 쪼듯이 입 맞추며 속삭였다.

“그럼 말해 봐. 내 어디가 좋은지.”

뜨거운 숨결이 뺨을 간질였다. 대답을 해야 되는데,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았다. 맞닿은 몸의 열기에 뇌가 녹아버린 것 같았다.

나는 자꾸만 흩어지는 이성을 그러모으려고 애썼다.

“어, 얼굴?”

하지만 쉽지 않았다.

“얼굴만? 몸은.”

나직이 되묻는 목소리가 귓가에 끈적하게 스며들었다.

대답하면 안 돼. 함정이야. 모래알 같은 이성이 모깃소리로 조언했다.

하지만 나에겐 다른 수가 없었다.

“좋아...”

“다행이네.”

우금의 얼굴에 요망한 미소가 떠올랐다. 당했다, 고 생각한 순간 입술을 먹혔다.

뱀 같은 혀가 내 입술 사이로 능숙하게 파고들었다. 우금은 음란한 혀놀림으로 내 혀를 감아올리고 빨아당겼다. 마치 흡혈하듯 타액과 숨결과 신음마저 빨아들였다. 영혼까지 빨리는 것 같았다.

내가 넋 놓고 빨려들어가는 동안 음험한 손길이 슬금슬금 옆구리를 타고 올랐다. 그 손끝이 밑가슴에 다다랐을 때,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황급히 그 손을 붙잡았다. 그러자 우금은 붙잡힌 손등을 젖히며 내 손에 깍지를 꼈다.

다섯 손가락 틈으로 파고드는 우금의 손가락은 그 자신만큼이나 굵고 단단했다.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열기와 손을 그러쥐는 악력에 이상하게 온몸에 힘이 풀렸다.

우금은 내 손까지 벽에 밀어붙이고 흡혈귀처럼 내 목을 빨기 시작했다. 뜨겁고 축축한 혀가 내 목을 핥아 올릴 때마다, 단단한 잇새로 연한 살결을 살짝살짝 씹힐 때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겪어 본 적 없는 전류가 온몸의 혈관을 타고 거미줄처럼 퍼져 나갔다.

“하아, 으응...”

젖은 호흡 사이로 내 입에서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야한 신음이 샜다. 내 목에 고개를 처박은 우금이 앓는 소리를 냈다.

다음 순간, 우금의 무릎이 다리 사이를 벌리며 파고들었다. 뭉근한 압박에 숨이 멎었다. 온몸이 심장으로 변한 듯 뜨겁고 떨렸다. 주홍 불빛 아래 우금의 바지 앞섶이 커다랗게 부푼 게 보였다.

헉. 나는 헛숨을 들이켰다. 더럭 겁이 났다. 나는 경험이 없었다. 호기심에 앞선 두려움이 흥분을 눌렀다. 기분이 아무리 좋아도 끝까지 가고 싶진 않았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게다가 너는 진짜가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몸을 줄까. 뭐가 어떻게 될 줄 알고.

“잠깐, 잠깐만.”

나는 허둥지둥 우금의 어깨를 잡아 밀었다. 그 서슬에 불이 켜졌다. 주홍 불빛 아래에서 우금이 그늘진 얼굴로 나를 내려다보았다.

“나 아직 마,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더듬더듬 나온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렸다.

방금 전까지 주변을 후끈하게 덥혔던 열기가 거짓말처럼, 싸늘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 잠깐이 영원 같았다.

“...어쩔 수 없지.”

우금이 나직하게 대꾸했다.

무슨 뜻일까. 어쩔 수 없지만 계속하겠다는 걸까, 어쩔 수 없으니 그만하겠다는 걸까.

후자였다. 다리 사이에서 무릎이 빠져나갔다. 우금은 내 코끝에 뽀뽀한 뒤,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정돈해 주고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기다릴게.”

그리고 씩 웃으며 덧붙였다.

“나 기다리는 거 잘해.”

미치겠다.

아니다. 나는 미쳤다.

"지안은 우금의 품 안에서 속절없이 젖어들었다. 목을 빨리는데 물에 빠진 기분이었다. 전신이 흠뻑 젖어 늘어지고 가라앉는 듯했다. 열락에 취한 지안의 입에서 가쁜 숨이 터져 나왔다."

저주받은 원고 속 내가 우금의 품에 안겨 헐떡이는 장면을 보니 수치스러워 죽을 것 같았다.

그리고 새삼스러운 깨달음이 머리를 세게 후려쳤다. 내가 주우금이랑 키스를 하든, 섹...시한 잠을 자든 이 변태 같은 원고에 다 적힌다는 사실.

저주받은 키보드니, 저주받은 원고니 하면서도 몰랐다. 이렇게 끔찍한 저주인 줄.

"지안은 강박적으로 되뇌었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게다가 너는 진짜가 아니다. 그렇게 자신을 다잡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우금에게 넘어갈 것만 같아서."

“미친 거 아니야?”

나도 모르게 빽 소리 질렀다.

보자보자 하니까 이 키보드가 진짜로 소설을 쓰고 자빠졌다. 넘어가긴 누가! 내가 아니라는데. 아니라고. 사랑 아니고 호감 아니고. 나는 우금에게 아무 감정 없다. 아니, 아무 감정이 없는 건 아니지. 무서우니까. 그뿐이다.

나는 씨근덕거리며 저주받은 키보드를 뽑아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어차피 돌아올 걸 알지만 응징 차원에서.

키보드를 뽑자마자 화면에 떠 있던 원고도 사라졌지만 내 얼굴은 여전히 불붙은 듯 화끈거렸다.

안 되겠다. 앞으로 어젯밤 같은 일이 있을 때는 문제의 구간을 읽지 말고 건너 뛰어야겠다. 안 그러면 수치사하고 말 테니까.

주우금 때문에 일요일 하루를 통째로 날렸다.

샤워를 하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책을 읽다가도, TV를 보다가도, 자꾸만 현관에서 당했던 일촉즉발의 키스가 떠올랐다. 정신을 차리고 보면 그때 느꼈던 오감을 더듬는 내가 있었다. 고막에 들이치던 거친 숨소리, 목덜미로 흘러내리던 더운 숨결, 입 안을 누비던 혀의 감촉 따위를.

그냥 잊고 싶은데, 다시 생각하기 싫은데 무의식적으로 곱씹는 걸 막을 수가 없었다. 머리가 고장난 것처럼 토요일 밤의 키스를 반복 재생했다.

정작 우금은 나한테 그렇고 그런 짓을 해 놓고 문성원 찾기에 여념이 없었다. 공사 구분이 어찌나 철저하신지.

나는 기분이 썩 좋지 않은 상태로 월요일을 맞이했다.

월요일 첫 수업은 1학년 2반이었다. 교과서를 안고 교실로 들어서자마자 환호가 쏟아졌다.

“와아! 지안쌤이다!”

“전생에 나라를 구한 지안쌤!”

“남친 얘기 해 주세요!”

잔뜩 흥분한 학생들이 웃고 박수 치고 책상을 두들기며 소리 질렀다.

학교는 소문이 빠르다. 지난 주 금요일에 우금이 학교로 찾아왔던 일이 이미 쫙 퍼진 모양이었다.

‘쌤이 돈 많은 남자들만 골라서 어장 관리 한다던데요. 애들이.’

호중에게 들었던 말이 떠오르며 쓴웃음이 절로 나왔다. 어장 관리하는 꽃뱀에서 나라를 구한 용자로 격상되었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하지만 내가 상대하는 건 바람 잘 날 없는 사춘기 아이들이었다. 저 폭풍에 휩쓸려 일희일비하다간 끝도 없을 것이다.

나는 교탁 앞으로 가서 검지를 입술 앞에 세웠다.

“쉿, 조용. 너희들 수업 태도 봐서. 출석 부른다.”

야유하던 아이들이 금세 조용해졌다.

출석부를 중간쯤 불렀을 때, 반장이 미리 말했다.

“안온담 결석이요.”

“그래?”

무심히 반문하며 결석 체크를 하는데 반장이 묻지도 않은 말을 덧붙였다.

“지난 주 목요일부터 안 왔어요.”

그럼 벌써 사흘째라는 소리였다. 1학년 2반 수업은 월, 수라서 나는 미처 몰랐다.

“어디 아프대?”

“몰라요. 무단결석이에요.”

나도 모르게 손이 멈췄다. 안온담은 조금 특별한 아이였다. 3일째 무단결석이라고 하면 충분히 걱정될 만큼.

수업이 끝난 뒤, 교무실로 돌아간 나는 2반 담임에게 넌지시 안온담 이야기를 꺼냈다.

“선생님, 안온담 지난 주부터 무단결석 중이라면서요.”

“네. 가출했대요.”

2반 담임이 심드렁하게 대꾸했다. 나이가 오십 줄에 들어선 그녀는 유독 학생들 가정사에 선을 긋는 경향이 있었다. 교사 생활을 20년 넘게 하면 누구나 이렇게 공사 구분이 철저해지는 걸까.

“가출한 거 맞아? 아빠한테 맞아 죽은 거 아냐?”

5반 담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끼어들자 음악 선생도 한마디 거들었다.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냅두세요. 한두번도 아닌데.”

2반 담임이 손을 휘휘 내저었다. 말도 말라는 듯, 귀찮다는 듯.

안온담은 친아버지에게 학대받는 아이였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담임이 선배 교사에게 조언을 구했다가, 입에서 입으로 말이 퍼져 모든 교사가 모르는 척 눈여겨 보는 학생이었다.

나는 그 아이가 마냥 불편했다. 옛날의 내가 떠올라 도와 주고 싶은 마음 따위는 들지 않았다. 그런 호기를 부릴 만큼 극복하지 못했다.

아직도 나는 새아빠의 고함과, 크고 두꺼운 손과, 나를 외면하던 엄마의 옆얼굴을 떠올리면 심장이 세게 뛰고 숨이 막혔다.

안온담을 생각하면 그 옛날이 떠올라서 힘들었다. 나는 안온담에 대한 걱정을 죄책감과 함께 묻어버렸다. 내가 살려면 어쩔 수 없었다.

그런데.

“...!”

퇴근길에 들린 집 근처 편의점에 안온담이 있었다. 길게 자란 앞머리로 두 눈을 죄다 가린 커트 머리 여자아이. 그 애는 학교에 갔다 온 양 교복 차림으로 컵라면을 먹고 있었다.

안온담은 나를 보고 움찔했지만, 내게 인사하는 대신 컵라면에 코를 박았다. 나 역시 모르는 척 눈을 돌렸다.

나는 애초에 오지랖을 부리는 타입이 아니다. 학생 일에 발 벗고 나서는 열혈 교사도 아니다. 저 애 담임 또한 아니다. 나서 봤자 간섭이고 참견이었다. 어차피 내가 저 애한테 해 줄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었다.

나는 따끔거리는 양심을 무시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따다닥 따닥.

현관문을 열자마자 방에서 흘러나오는 타자 소리가 나를 맞이했다.

쿵쾅쿵쾅. 심장이 세고 빠르게 뛰었다. 그저께 밤, 현관에서 나눴던 위험한 키스가 떠올라서.

미치겠다. 왜 자꾸 생각날까. 나는 뜨겁게 달아오른 얼굴에 손부채질을 하며 상념을 날려보냈다.

저주받은 원고를 보니 우금은 오늘도 삽질 중이었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더니, 우금과 사귀는 것, 퇴근하고 우금의 행적을 확인하는 것, 이 모든 게 어느덧 나의 일상이 되어 있었다.

씻고 라면을 먹으면서 TV를 보는데 살인사건 뉴스가 나왔다.

“서울 내공산에서 20대 여성의 토막 시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2시 5분 내공산 등산로에서 토막난 여성 사체가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긴 채 발견됐습니다. 사체 일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시신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입맛이 뚝 떨어졌다. 자연스레, 내가 잘 아는 살인마가 떠올랐다. 범인이 주우금은 아니겠지, 설마.

...설마가 사람 잡는다던데. 불쑥 의심이 돋았다. 죽은 여자가 우금의 타겟이 될 만한 악인일 지도 모른다. 모르는 일이다.

범인이 우금이라면? 만약 저주 받은 원고가 우금의 행적을 다 보여 주는 게 아니라면? 내가 모르는 사이 사람을 죽였다면?

가정만으로도 피가 얼었다.

불안에 떨면서 엄지를 잘근거리는 와중에 문득 안온담이 떠올랐다. 어둔 밤, 홀로 거리를 떠도는 그 애를 살그머니 뒤쫓는 검은 그림자도. 그게 우금이든 아니든 바깥에 살인자가 돌아다닌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었는데.

뒤늦은 후회가 가슴을 조였다. 나는 젓가락을 팽개치고 헐레벌떡 집에서 뛰쳐나갔다. 곧장 편의점으로 달려갔지만 안온담은 이미 떠나고 없었다.

나는 카운터로 다가가 알바생에게 물었다.

“아까 저기서 라면 먹던 여학생, 언제 갔어요?”

“좀 됐어요.”

“어느 쪽으로 갔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알바생의 시큰둥한 태도가 왜 이제 와서 난리냐는 책망으로 느껴졌다.

나는 혹시나 안온담이 다시 올까 편의점 앞에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다. 소파 테이블에는 반쯤 먹다 남긴 라면이 냄비 가득 불어 있었다.

라면을 버리고 우금에게 전화를 걸었다.

―응, 지안아.

우금은 기다렸다는 듯이 전화를 받았다.

뉴스 봤어? 내공산에서 토막 시체가 발견됐대. 당신이 죽였어?

입 밖에 낼 수 없는 날카로운 질문들이 목구멍을 할퀴었다.

‘왜 나를 의심하는데. 뭘 아는데.’

상상 속 우금의 목소리가 음산하게 가라앉았다. 나도 이제 모르겠다. 내가 너에 대해 뭘 아는지. 내가 만든 연쇄살인마 캐릭터라는 것 말고는.

기분이 밑도 끝도 없이 곤두박질쳤다. 왜 이럴까.

“우리 집에 올래?”

충동적으로 꺼낸 말이었는데, 입 밖에 내고 보니 반드시 불러들여야겠다는 사명감이 들었다.

―지금?

“응.”

―10시 넘었는데.

“알아.”

벽시계를 바라보며 덤덤히 대꾸하자 수화기에서 능글맞은 웃음 소리가 흘러나왔다.

―벌써 마음의 준비가 된 거야?

그 한마디가 나의 시계를 그저께 밤으로 되돌렸다. 우리가 키스하는 동안 머리 위에서 켜졌다가 꺼지기를 반복하던 센서등과 나를 녹여버릴 것만 같았던 우금의 열기와 점잖게 물러나 내 옷매무새를 정돈해 주던 손길이 선연했다.

‘기다릴게. 나 기다리는 거 잘해.’

그렇게 말하면서 씩 웃던 얼굴도.

심장이 욱신 죄어들었다. 이게 뭘까. 배신감인가, 실망감인가, 불안감인가. 확실한 건 아무 것도 없는데 가슴이 지레 널뛰었다.

나는 메어 오는 목을 가다듬었다.

“아니. 그건 아닌데... 같이 있고 싶어.”

나랑 같이 있는 동안은 다른 사람을 죽이지 못할 테니까.

―바로 갈게.

우금은 금방 달려왔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면서도 초인종을 누르고, 내가 문을 열어 주길 기다리고 있다가 웃는 낯으로 농담을 던졌다.

“솔직히 말해 봐. 내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는 거지.”

나는 그런 우금을 처연히 올려다보았다.

이제 알겠다. 내 기분이 왜 이런지. 나는 너를 믿고 싶구나. 이렇게 실없는 소리나 하는 너를, 내가 씌운 다정한 남자친구의 탈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내 얼굴을 본 우금이 웃음기를 싹 지웠다.

사실대로 말할 수는 없고 변명거리도 궁해서, 나는 안온담 이야기를 했다.

편의점에서 가출 학생을 봤는데 모른 척 지나쳤다고. 교사로서 자괴감 든다고. 거짓말은 아니었다.

우금은 나와 소파에 나란히 앉아 내 이야기를 들어 주고, 나를 위로해 주었다. 잘한 건 아니지만 잘못한 것도 아니라고. 다른 교사들도 어쩔 줄 몰랐을 거라고. 다음에 잘하면 된다고.

나는 우금의 어깨에 기대어 조금 울었다.

안온담을 모른 척 지나쳤다는 후회, 우금에게 마음을 놓고 있던 수준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 마음을 주고 있었다는 후회, 더 이상 마음 주면 안 되는데 괜히 불렀다는 후회, 후회, 후회뿐이었다.

분명 소파에서 잠든 것 같은데 눈 떠 보니 침대였다. 우금은 가고 없었다. 키보드도 잠잠했다.

고소한 냄새에 이끌려 부엌으로 가 보니 식탁 위에 우금이 언제 차리고 갔는지 모를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다. 쌀밥, 미소된장국, 계란말이, 애호박부침, 장조림 등등.

음식에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밥상보까지 야무지게 얹어 놓은 게 괴이했다. 이토록 가정적인 연쇄살인마라니... 내가 대체 뭘 만든 건가.

아침을 먹는 동안 긴장이 풀리며 불안으로 널뛰던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작가로서 확신하건대 우금이 범인일 리가 없다. 우금은 사냥감의 시체에 악행의 증거를 장식하니까. 시체를 그렇게 버려둘 리가 없었다.

어제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허구의 연쇄살인마를 현실에 소환한 입장으로 제 발 저렸던 것 같다. 내 머리야, 항상 최악의 경우만 떠올리니까.

나는 아침 든든하게 먹고 출근했다. 조회 시간에는 여유가 없어 1교시 끝나자마자 2반 담임을 찾았다.

“선생님. 저 어제 온담이 봤어요.”

“정말요? 어디서요?”

“집 근처 편의점에서요. 컵라면 먹고 있더라고요.”

“집에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아뇨, 담임도 아닌데 참견하기가 좀 그래서...”

“에이, 쌤도. 학생 일에 담임 비담임이 어딨어요.”

“그러게요. 죄송해요.”

침울한 목소리로 사과하자 2반 담임이 손을 뻗어 내 팔을 다독였다.

“아니에요, 이해해요. 솔직히 우리가 애들 가정사까지 터치할 순 없지. 그럴 의무도 없고.”

정말 그럴 의무가 없는 걸까? 그렇다면 교사의 의무는 무엇일까.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가르치면 그만인 걸까. 그런데 그건 학원에서 더 잘하지 않나.

“온담이네 집에는 제가 연락할게요. 기대는 하지 마세요, 걔 원래 가출을 밥 먹듯이 하는 애니까.”

2반 담임이 몸을 돌리며 말했다.

나는 안온담의 사정을 알면서도 일탈로 치부하는 그녀의 태도가 내심 못마땅했다. 나 학교 다닐 때도 선생들이 이래서 싫었는데.

하지만 2반 담임에게는 또 그녀만의 사정이 있을 터였다. 어제 저녁 내가 나의 사정으로 안온담을 외면했던 것처럼.

...내가 누굴 재단하고 비난할까.

나는 2반 담임의 통화 소리를 뒤로 하고 자리로 돌아왔다. 안온담이 방황을 마치고 안전해지기를, 그래서 나의 죄책감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혹시나 해서 편의점에 들렀는데 안온담이 있었다. 이번에는 삼각김밥을 먹고 있었다.

나를 힐끗 쳐다본 안온담이 무심히 눈을 돌렸다.

아는 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제오늘 그렇게 후회를 하고도 막상 다시 만나니 망설여졌다.

그러자 어젯밤에 본 살인사건 뉴스가 퍼뜩 떠오르며 망설임을 밀어냈다. 나는 안온담에게 다가섰다.

“1학년 2반 안온담, 맞지.”

안온담의 얼굴에 싫은 기색이 떠올랐다.

나도 좋아서 말 거는 거 아니거든...

“맞는데요.”

“며칠째 무단결석이던데.”

“그런데요.”

“가출한 거야?”

“...”

안온담의 떨떠름한 눈빛에서 대답이 읽혔다. 다 알면서 뭘 물어.

내 도움 따윈 눈곱만큼도 필요 없다는 듯 시큰둥한 태도에 자꾸만 주눅이 들었다.

내가 지금 뭘 하는 건가. 열혈 교사 흉내라도 낼 참인가. 같잖은 간섭일랑 집어치우고 그냥 집에 가는 게 어떨까. 얘도 그걸 바라는 것 같은데.

그러나 발길을 돌릴 수가 없었다. 내가 이렇게 양심적인 교사였던가?

그럴 리가. 내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건 양심이 아니라 뻥튀기 된 불안감이었고, 케케묵은 동질감이었다. 뭐가 됐든 이대로 지나칠 순 없었다.

어떻게 해야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 고민 중에 문득 안온담이 먹고 있던 삼각김밥이 눈에 들어왔다.

“그거 하나 가지고 배가 차? 선생님이랑 밥 먹으러 갈래?”

“...”

“치킨 좋아해?”

침묵 속에서 계속 나를 경계하던 안온담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치킨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자.”

나는 그대로 돌아서서 편의점 밖으로 걸어나갔다. 뒤에서 황급히 따라 나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치킨 만세였다.

온담에게 집을 나온 이유를 묻지 않았다. 너무 뻔했으니까.

순순히 치킨집까지 따라온 온담은 내 맞은편에서 걸신 들린 사람처럼 쉴 새 없이 순살치킨을 입 안에 우겨 넣었다.

그러면서도 커튼 같은 앞머리 사이로 경계심 가득한 눈빛을 쏘아보내는 게, 가시를 바짝 세운 고슴도치 같았다.

나는 그 모습을 건너다보면서 멍하니 생각했다.

나랑은 참 다르구나.

나도 학창 시절 새아빠한테 매일같이 두들겨 맞았지만 나는 한 번도 가출해 본 적이 없었다. 갈 곳이 없었다. 친구가 없었으니까. 집을 나올 용기도 없었지만. 아니, 차라리 객기라고 해야겠지.

그래도 나는 온담이 가진 객기가 내심 부러웠다. 단 며칠이라도 집이라는 이름의 지옥에서 뛰쳐나올 수 있었다면 뭔가 달라졌을 것 같아서.

치킨을 게눈 감추듯 먹어치운 온담이 미심쩍은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았다.

“쌤 좀 이상해요.”

“뭐가?”

“왜 집에 가라고 안 하세요?”

네가 너희 아빠한테 맞아 죽을까 봐.

차마 피해망상 때문이라는 말은 하지 못하고, 나는 짐짓 태연하게 반문했다.

“그럼, 집에 있기 싫어서 나온 애한테 집에 가라고 해? 나는 그게 더 이상하다.”

“쌤 역시 이상해요.”

나는 온담의 경계심이 누그러진 틈을 타 넌지시 물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바깥은 위험해.”

눈과 코를 온통 가린 앞머리 밑에서 온담의 입꼬리가 삐딱하게 올라갔다.

“우리 집보단 안 위험하던데요.”

“뉴스 안 봤지. 내공산에서 시체가 발견됐어.”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인데요.”

“아무 상관 없지, 지금은. 하지만 재수 없으면 생길 지도 몰라.”

온담의 입이 쩍 벌어졌다. 나도 놀랐다. 어린애를 상대로 이 무슨 재수 없는 소리를.

무안해서 벌떡 일어났다.

“가자.”

“어딜요?”

온담이 허둥지둥 따라나오며 얼떨떨한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 집.”

요즘 애들이 발육이 좋아서 다행이다. 내 옷은 온담에게 그닥 크지 않았다. 온담은 내가 준 티셔츠와 츄리닝 바지를 입고, 어색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커튼 같던 앞머리는 머리띠를 해서 훌렁 넘긴 상태였다.

저 애를 어쩌면 좋을까. 집에 돌려보내긴 걱정스럽고, 계속 데리고 있긴 부담스럽고. 청소년 쉼터를 한번 알아볼까.

바람 쐰다는 핑계로 베란다에 나와 고민하는 와중에 느닷없이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딩동 소리를 듣자마자 파블로프의 개처럼 우금을 떠올렸다. 말고는 올 사람이 없었다.

거실로 들어가자 방에서 흘러나오는 타자 소리와 함께 인터폰 화면에 비친 우금이 나를 맞이했다.

“누구예요?”

어느새 인터폰 앞에 선 온담이 우금의 얼굴을 홀린 듯이 바라보며 물었다.

“쌤 남친.”

반사적으로 튀어나간 대답에 흠칫했다. 내가 주우금을 남친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선뜩해서.

현관문을 열었더니 검은색 정장 차림의 우금이 제 집처럼 들어섰다. 우금은 구두를 벗으려다 온담의 운동화를 보고 멈칫했다.

“손님 있어?”

“안녕하세요.”

현관까지 따라온 온담이 내 뒤에서 우물쭈물 인사했다. 힐끗 온담을 향한 눈길이 나에게 돌아왔다.

“누구야? 학생?”

나는 무심결에 온담의 앞을 가로막았다.

“어. 우리 학교 학생. 사정이 있어서 내가 며칠 데리고 있으려고.”

“그럼 자주 보겠네. 안녕, 난 지안쌤 남친이야. 잘 부탁해.”

사교적인 우금이 온담에게 매끄러운 미소를 보냈다.

그런데 온담의 반응이 의외였다. 인터폰에 비친 우금을 홀린 듯이 쳐다볼 땐 언제고, 막상 우금이 살갑게 인사하자 자라처럼 목을 움츠리며 내 등 뒤에 숨는 것이 아닌가.

낯을 가리나 싶어 뒤돌아보니 날카로운 눈빛으로 우금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 눈빛이 드러내는 건 너무나 명확했다.

적대감.

우금을 처음 본 사람들의 반응은 한결같았다. 경탄. 선망. 눈을 크게 뜨거나, 멍하니 입을 벌리거나, 얼굴을 붉히거나, 얼빠진 얼굴로 돌아보거나, 홀린 듯이 쳐다보거나.

철천지원수 보듯 노려본 사람은 온담이 처음이다.

내 입으로 이런 말 하긴 민망하지만, 우금은 비현실적으로 잘생긴 남자였다. 우금이 어떤 놈인지 뻔히 아는 나조차 저 얼굴만 보면 이성이 흐려지는데, 얘는 어떻게... 아니, 왜 저런 눈으로 우금을 보는 걸까.

정작 그 뾰족한 시선에 찔리고 있는 당사자는 속내를 알 수 없는 얼굴로 빙글빙글 웃으며 끈질긴 사교성을 발휘했다.

“이름이 뭐야?”

“...”

온담은 대답할 기미가 없었다. 그런데도 우금은 계속 대답을 기다렸다. 삭막한 침묵이 나를 괴롭혔다.

결국 내가 불편을 못 이기고 온담 대신 대답했다.

“안온담이야.”

“이름 예쁘네. 몇 살이야?”

“...”

“열일곱 살이야. 고1.”

“지안쌤이랑 친해?”

“...”

“선생이랑 학생 사이에 친하고 말고 할 게 어딨어.”

졸지에 온담의 대변인이 된 기분이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온담이 우금의 노여움을 살까 두려웠다. 우금이 온담에게 해코지를 하지야 않겠지만 그래도.

“온담아. 선생님 남친이랑 얘기 좀 하게 자리 좀 비켜 줄래?”

결국 나는 온담과 우금을 떨어트리기로 했다.

그런데.

절레절레. 온담이 단호하게 머리를 흔들었다.

황당하기 짝이 없었다. 우금이랑 말 한마디도 안 하면서 자리도 안 비키겠다니. 얘 뭐지.

문득 싸늘한 한기가 혈관을 내달렸다. 뭔가 알아챈 거 아닐까. 우금에 대해서... 말도 안 되지만, 혹시나.

“너랑 같이 있고 싶은가 보다.”

우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체셔 고양이 같은 미소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럼 우리가 나가자.”

우금의 기분을 달래 주려고 자리에서 일어나기 무섭게 온담이 입을 열었다.

“아니에요. 제가 비켜드릴게요. 두 분 말씀 나누세요.”

그리고는 냉큼 방으로 들어가버렸다. 잘은 모르겠지만 내가 우금과 단둘이 되는 상황을 기피하는 것처럼 보였다.

“내가 마음에 안 드나 봐.”

우금이 닫힌 방문을 보며 중얼거렸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낯 가리는 거지.”

빈말이었다. 내가 봐도 온담의 적대감은 뚜렷했다.

“내가 더 잘해야겠네.”

우금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참으로 관대한 다짐이었지만 나로서는 마냥 좋아할 수가 없었다. 되도록이면 둘이 안 만났으면 했다.

온담이 우금의 정체를 알아낼까 봐 불안하기도 했고, 우금이 온담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 봐 걱정스럽기도 했다. 악인만 죽인다고 해도 연쇄살인마는 연쇄살인마다. 학생이 연쇄살인마랑 부대끼길 바라는 선생은 없다.

그렇다고 우금을 못 오게 할 수도 없고, 아까 데리고 온 애를 내보낼 수도 없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우금이 산뜻하게 작별을 고했다.

“오늘은 이만 갈게. 아기 고슴도치가 가시를 잔뜩 곤두세우고 있으니... 잘 달래줘.”

그리고 훅, 남성적인 향기가 끼쳐 왔다. 슥 귓가로 다가온 입술이 나직이 덧붙였다.

“그래도 다음엔 방해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달콤한데 섬뜩했다. 양팔에 오소소 소름이 돋았다.

우금이 떠난 뒤에도 나는 한동안 제자리에 얼어 있었다. 우금의 마지막 말이 단순한 희망 사항인지, 온담이 다음에도 방해하면 가만 두지 않겠다는 경고인지 알 수 없었다.

이윽고, 타자 소리가 멈춘 방에서 온담이 고개를 빼꼼 내밀었다. 남친분 가셨냐고 묻는 온담을 불러다 앉혀 놓고 이유를 물었다.

“아까는 왜 그랬어?”

“제가 뭘요.”

“한마디도 안 하길래. 말하기 싫은가 해서.”

“...죄송해요.”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왜? 쌤 남친 뭐가 이상해?”

“...”

온담은 입을 꾹 다물었다. 굳게 다물린 입매에 대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뚜렷했다. 하긴, 온담과 나는 원래 친한 사이도 아니었다.

나는 한숨을 쉬며 화제를 돌렸다.

“내일 학교 갈 준비는 다 했니? 블라우스 안 빨아도 되겠어? 선생님 집에 건조기 있어.”

“그럼 목깃만...”

온담은 순순히 블라우스를 들고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사이 나는 방에 들어와 컴퓨터 앞에 앉았다. 저주받은 원고를 보기 위해서였다. 남의 속내를 훔쳐보는 게 양심에 걸리지만 어쩌겠는가. 온담이 계속 우금을 적대하면 무슨 사달이 날지 모르는데.

나는 문서를 열고 스크롤바를 내려 온담과의 대화를 찾아냈다.

"“아까는 왜 그랬어?”

지안이 넌지시 묻는 순간, 온담은 제 앞을 가로막던 그녀의 뒷모습을 떠올렸다. 우금이 저를 보며 누구냐고 물었을 때 지안이 보인 행동은 아빠가 손을 높이 쳐들 때마다 엄마가 하는 행동이었다. 온담을 등 뒤에 숨기는 것.

‘쌤이 저 숨겨서요. 지키려는 것처럼.’

하지만 지안은 자각이 없는 듯했다. 그래서 온담은 솔직하게 대답하는 대신 뚱하니 뻗댔다.

“제가 뭘요.”

지안이 다시금 물었다. 왜 그랬냐고. 온담은 다만 죄송하다고 했다. 진심이라곤 눈곱만큼도 없었다.

사실은 온담이야말로 묻고 싶었다. 지안이 왜 다정한 남친의 눈치를 보는지. 불쌍한 우리 엄마가 쓰레기 같은 아빠를 볼 때처럼 무서워 하는지. 턱 끝까지 차오른 의심을 뱉어버리고 싶었다.

‘쌤 남친이 혹시 쌤 때려요?’"

나는 깜짝 놀랐다. 말도 안 되는 억측이었다. 우금은 신사다. 여자를 때릴 리가. 사람은 죽이지만, 물론 악인만.

어쨌든 눈치가 보통 날카로운 게 아니었다.

내가 우금을 무서워하는 게 티가 났단 말인가. 애가 눈치챌 정도면 당사자는? 우금도 눈치챘을까?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온담을 데려온 게 잘한 일인지 모르겠다. 이미 주우금이라는 핵폭탄을 안고 있으면서 작은 수류탄을 주워 온 느낌이다.

온담이 저렇게 우금을 대놓고 경계할 줄 알았다면... 그래도 고민하다가 데리고 왔겠지. 나 같은 구제불능이 또 있을까.

다음날, 나는 온담과 함께 등교했다. 온담은 주목받기 싫다며 300미터 앞에서 먼저 내렸지만.

조회 시간이 끝난 후 2반 담임이 내 자리로 찾아와 온담이 학교 왔다고 귀띔해 주었다.

“알아요. 사실 제가 데리고 왔어요.”

나는 옅게 웃으며 그간의 사정을 털어놓았다.

2반 담임은 무척 놀라는 한편, 나의 도를 넘은 오지랖이 못마땅한 듯도 했다.

“뭘 그렇게까지 해. 지안쌤도 은근 피곤한 스타일이다.”

“네?”

“아니, 지안쌤 피곤하겠다고.”

“그렇긴 한데 애가 너무 걱정돼서요. 당분간 데리고 있으면서 대안을 찾아 보려고요.”

“지안쌤 착하네. 열정적이고. 그런데 선의로 한 일이 꼭 좋게 돌아오진 않더라.”

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걸까. 입을 반쯤 벌린 채 멍청한 얼굴로 쳐다보자 2반 담임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냥, 조심하라는 얘기야.”

2반 담임이 돌아간 뒤, 나는 그녀가 남기고 간 찜찜한 기분을 묻어버리고 일에 열중했다. 수업 중인 교실에 저주받은 키보드가 나타나기 전까지.

따각거리는 타자 소리가 조용한 교실에 울려퍼졌다. 타자 소리를 못 듣는 아이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지만 수업을 하는 나는 집중이 안 돼서 죽을 맛이었다.

이번엔 또 뭘까. 주우금 뭐하고 있나. 또 학교로 찾아오는 건 아니겠지. 점심 시간도 지났는데.

가까스로 수업을 마친 나는 교탁 안쪽에 나타난 키보드를 처음부터 들고 왔던 것처럼 태연하게 챙겨 나왔다.

교무실로 돌아와 기존에 쓰던 키보드를 뽑고 저주 키보드를 컴퓨터에 연결한 뒤 저주받은 원고를 열었다.

우금은 인터넷으로 ‘사막희’를 검색하고 있었다.

“헉.”

나도 모르게 헛숨을 들이켰다. 가까운 자리에 있는 교무부장이 나를 나무라듯 힐끔 쳐다보았다. 나는 입을 다물었으나 속으로는 비명을 질렀다.

사막희는 밤 시리즈 첫 작품, <끝나지 않는 밤>의 주인공 이름이었다. 남편 셋을 죽인 여성 연쇄살인마.

"우금이 찾는 건 사막희와 관련된 뉴스였다. 사막희의 남편들이 토막 시체로 발견됐다는 뉴스, 경찰이 사막희를 용의자로 특정했다는 뉴스, 하다못해 사막희의 수배 전단이라도.

그러나 뉴스 목록에 뜨는 건 베스트셀러 <끝나지 않는 밤>의 줄거리, 인기 비결, 매출액, 장르 문학계에 미친 영향 따위가 전부였다. 실존했던 사막희의 자취는 온데간데없이, 밤 시리즈 등장인물 사막희만 남아 있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우금은 귀신에 홀린 기분이었다."

...방심할 틈을 안 주는구나.

차라리 문성원이 추적 당하는 게 나았다. 나는 실재하니까. 하지만 등장인물들은 아니다. 사막희가, 조박사가, 그리고 조이순이, 결국 밤 시리즈의 모든 등장인물이 허구의 캐릭터라는 걸 알게 되는 날, 우금은 자기 정체 또한 알게 될 것이었다.

한때는 제 앞에서 살아 숨 쉬던, 끝내는 자기 손으로 죽인 인간들이 사실은 이 세상에 존재한 적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들과 만나고, 말하고, 싸웠던 자신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겠지.

우금은 어떻게 나올까. 나라면 돌아버릴 것 같은데. 우금도 그러지 않을까. 미쳐 날뛰는 거 아닐까. 죽어 마땅한 놈만 죽인다는 철칙도 던져버리고 아무나 닥치는 대로 죽인다든지. 과연 나한테는 어떻게 할지.

반쯤 넋이 나간 상태로 온갖 나쁜 상상을 하는 와중에 핸드폰 진동 소리가 정신을 일깨웠다.

"너 요즘 언니한테 연락이 뜸하다? 연애하느라 정신없지, 아주"

정안이었다.

지난번에 같이 술 마신 날 이후로 무려 열흘 만이었다. 내가 연락을 자주 하는 타입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뿐인 친구인데, 내내 잊고 있던 게 미안했다.

"연애 아니고 생존. 생존하느라 정신없다"

답장을 보내자 어이없는 표정을 짓고 있는 캐릭터 이모티콘이 날아왔다.

"어련하시겠어? 어디 그 달달한 생존담 한번 들어 보자. 퇴근하고 먹자골목에서 만나"

"그래"

흔쾌히 수락하고 나서 뒤늦게 온담이 생각났다. 나는 얼른 정안에게 메세지를 보냈다. 학대 문제로 가출한 학생을 당분간 맡기로 했다, 그 애를 집에 데려다놓고 나올 테니 조금 기다려 달라고.

정안은 한마디로 답했다.

"미쳤어?????"

알았다는 뜻이었다.

“너 미쳤지?!”

정안은 면전에 대고도 되풀이했다. 내가 온담을 집으로 데리고 온 게 어지간히 못마땅한 모양이었다.

나는 들은 척 만 척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삼겹살을 뒤집었다.

불판에서 올라오는 열기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답답해서 열받았기 때문인지, 그도 아니면 내 얘기를 듣는 동안 깡소주를 연거푸 들이켰기 때문인지, 정안의 얼굴과 목이 온통 붉었다.

“그치? 제정신 아니지? 개나 고양이도 아니고 학생을 주워 오면 어떡하냐? 네가 걔 인생 끝까지 책임질 것도 아니잖아.”

“너도 나 주워 줬잖아.”

“야, 그건...!”

정안은 말을 잇지 못했다. 할 말이 없겠지. 나는 피식 웃으며 콜라를 마셨다.

아직도 정안과 처음 만난 날이 기억에 선했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새아빠의 폭행이 평소보다 과했던 어느 날이었다. 새아빠가 망치로 부숴버린 문고리를 수리하기 전이었으므로, 방에 숨는다는 선택지가 없었다. 계속 맞다간 죽을 것 같아서 집 밖으로 도망쳤다.

도망치느라 급급해 신발도 제대로 못 신었던 걸 기억한다. 허겁지겁 신발을 신을 때 새아빠가 괴성을 토하며 현관으로 달려왔고, 나는 비명을 지르며 집에서 뛰쳐나왔다. 오른발에는 운동화를, 왼발에는 삼선 슬리퍼를 꿰고.

그런데 새아빠가 미친개처럼 쫓아오는 바람에 필사적으로 도망치다가 슬리퍼를 잃어버렸다. 벗겨진 슬리퍼를 되찾으러 돌아설 여유 따위는 없었다. 나는 맨발바닥이 까지는 줄도 모르고 골목길을 내달렸다.

정안을 만난 건 그때였다.

“야!”

소리쳐 부르는 소리에 반사적으로 쳐다봤더니, 내 또래 여자애가 자기네 집 대문을 열고 이리 오라 손짓하고 있었다. 그게 정안이었다.

나는 지체 없이 그 문으로 달려 들어갔다. 정안이 대문을 닫기가 무섭게, 새아빠의 달음박질 소리가 가까이 닥쳐왔다. 정안이 황급히 쭈그리며 속삭였다.

“숙여.”

정안의 집은 담벼락이 낮았다. 새아빠 가슴 높이였다. 나는 정안을 따라 담벼락에 등을 붙이고 쭈그려 앉았다. 벽돌로 된 담벼락에서 스미는 냉기에 등골이 어는 것 같았다.

“하지안 이 XX 어디 갔어!”

새아빠가 씩씩대며 터트린 노성에 깜짝 놀란 나머지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다. 나는 입을 틀어막고 숨을 멈춘 채 옆에 쪼그려 앉은 정안을 쳐다보았다.

창백한 낯빛.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빛. 벌름거리는 콧구멍. 입을 너무 꽉 다문 나머지 주름이 자글자글하게 잡힌 호두턱. 정안도 겁에 질린 얼굴이었다. 나처럼.

그 얼굴이 이상하게 위안이 되었다. 나만 저 인간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

새아빠의 발소리가 떠나간 뒤, 정안이 나직하게 물었다.

“누구야?”

“새아빠.”

나도 따라서 목소리를 낮췄다.

“신고 안 해?”

“옛날에 해 봤는데 소용없었어.”

“엄마는?”

“새아빠 편이야.”

“형제자매는?”

“없어.”

정안은 땅이 꺼질 듯한 한숨을 토하고는, 돌연 결의에 찬 표정을 지었다.

“야.”

“응.”

“내가 오늘부터 네 자매 해 준다.”

그날 우리는 친구가 되었다.

귀청을 때리는 고함 소리가 오래된 기억 속 담벼락 뒤에 숨어 있던 나를 현재의 고깃집으로 끌고 나왔다.

맞은편에서 정안이 구겨진 얼굴로 성질을 부렸다.

“나랑 걔랑 같냐?! 그리고 난 너를 집에서 재우진 않았거든.”

그건 그랬다.

“지안쌤, 고등학교 선생이라는 사람이 요즘 청소년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걔가 너네집 뒤져서 돈이랑 귀중품 다 훔쳐 가면 어떡할래? 싹 다 쓸어가면!”

정안의 으름장에 나도 조금 불안해졌다. 그래도 사정이 딱한 학생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다. 더구나 나랑 처지가 비슷한 애를.

나는 애써 의연하게 반박했다.

“안 그래.”

정안의 표정이 샐쭉해졌다.

“너 되게 웃긴다. 평소에는 의심 드럽게 많으면서. 학생 한정 신뢰 모드야, 뭐야.”

“그런 거 아니야.”

“퍽이나.”

“하여간 온담이 얘기는 그만해.”

나는 비어가는 불판에 생삼겹살을 척척 얹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정안은 내가 앞접시에 놔 준 삼겹살을 쌈 싸 먹으며 능청스레 화제를 돌렸다.

“좋아. 그럼 주우금 얘기하지 뭐.”

“뭐?”

“말해 봐. 생존하느라 바빴다며. 그동안 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지난번 술자리에서 정안이 우금과 대면했던 게 떠올랐다. 그때 정안은 우금이 소설 속 주우금이랑 너무 똑같아서 섬뜩해 했었다.

불쑥 기대가 솟았다.

“이제 내 얘기 믿는 거야?”

그러나 정안은 나의 기대를 고기쌈과 함께 씹어 먹었다.

“아니.”

“근데 왜 말하래.”

볼멘소리로 따지자 정안이 얄밉게 이죽거렸다.

“믿는 거랑 궁금한 건 별개지. 그래서, 말 안 할 거야?”

그건 아니었다.

동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에 나오는 이발사처럼, 나는 정안에게 그간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다.

우금에게 밤 시리즈를 들켰고, 나의 안위를 위해 담당 입단속을 시키면서 신작 계약을 파기했다고 하니 애독자 진정안이 펄쩍 뛰었다.

“뭐? 너 이제 밤 시리즈 안 쓸 거야?!”

이 기지배가 내 정체를 까발리려고 작정한 모양이었다. 나는 미간을 확 구기며 정안에게 눈치를 줬다.

그제야 우리가 있는 곳이 사람 많은 고깃집이라는 사실을 상기한 정안이 뒤늦게 목소리를 죽였다.

“진짜?”

“진짜. 쓰는 족족 실화 될 텐데 어쩔 수 없잖아.”

표정이 떨떠름한 걸 보니 여전히 내 말을 안 믿는 듯했다. 그래도 거짓말이라고 매도하지 않는 걸 보면 정안은 좋은 친구다.

나는 집까지 찾아온 오해준을 우금으로부터 숨긴 이야기, 그 이후 문성원 와이프 행세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 학교에서 마녀사냥 당할 뻔했을 때 우금이 찾아온 이야기, 문성원 계정이 우금으로 추정되는 익명의 메일을 받은 이야기, 책동네 출판사에서 주우금, 오해준과 삼자대면을 한 이야기를 거쳐 우금과 밤산책을 하고 헤어질 때 아슬아슬했던 이야기까지 차근차근 털어놓았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어 놓고, 정안은 단 한 가지 이야기에만 집중했다.

“대박... 그래서? 주우금이 따라 들어와서 키스하고, 그리고? 또 뭘 어떻게 했는데. 뭐 때문에 아슬아슬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묘사해 봐. 작가잖아.”

“됐거든.”

나는 정안의 부추김을 단칼에 잘랐다. 하지만 고장난 머리가 또 그날 밤의 키스를 재생하는 바람에 얼굴이 뜨거워져서 냉수를 들이켜야 했다.

정안은 내가 냉수 세 잔을 연거푸 마시는 모습을 보며 능글맞게 웃었다.

“제대로 연애하고 있네, 하지안.”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마시던 물이 코로 올라갔다. 나는 기침하면서 목소리를 짜냈다.

“캑, 연애, 캑, 아니라니까...!”

정안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안 부럽다. 나도 썸남이 생겼거든.”

귀가 번쩍 뜨였다.

“정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데?”

“새벽에 헌팅당했어. 동네 편의점에서.”

나는 정안이 펼치는 이야기 속으로 넋 놓고 빨려 들어갔다.

지난 주말, 아무런 약속도 없었던 정안은 밤새 드라마를 봤다. 새벽 다섯 시쯤 되니까 졸음이 쏟아졌는데, 드라마 다음편이 너무 궁금해서 잠을 잘 수가 없더란다. 그래서 커피를 사러 나갔다.

“그 새벽에? 혼자?”

나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럼 혼자 사는데 누구랑 가냐. 귀신이랑?”

정안이 어이없다는 투로 되물었다.

“밤늦게 여자 혼자 다니면 얼마나 위험한데. 뉴스 좀 보고 살아. 며칠 전에 내공산에서 토막 시체 발견된 건 알아? 너 그러다 살해당하면 어쩌려고 그래.”

“야 이 미친 자야. 피해망상도 정도껏이지. 너는 뉴스 좀 그만 보고 병원이나 가!”

정안이 기가 막힌 얼굴로 쏘아붙였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언니 말 끊지 마라. 얘기 안 해 준다.”

가자미눈으로 경고한 정안이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편의점 가서 커피 고르는데 어떤 남자가 들어오더란다. 벙거지 모자에 낚시 조끼를 입은, 허우대가 비리비리하고 안경을 쓴 샌님이.

그 샌님이 담배를 계산할 때, 정안은 카운터에 커피를 올려놓고 차례를 기다렸다. 카운터를 피아노 치듯 두드리면서.

그런데 옆에서 강렬한 시선이 느껴지더란다. 고개를 돌려 보니 샌님이 정안의 손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정안과 눈이 마주치자 그는 입꼬리를 끌어 올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손이 참 예쁘시네요.’

‘감사합니다.’

샌님의 수작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정안이 올려 둔 커피를 제앞으로 끌어가더니 알바생한테 같이 계산해 달라고 했다. 그리고 얼떨떨한 눈으로 쳐다보는 정안에게 이렇게 물었다.

‘번호 좀 알려 주실래요?’

생긴 거랑 다르게 적극적이더라며, 정안은 대단한 깨달음이라도 얻은 듯이 말했다.

“역시 사람은 말이야, 겉만 보고는 모르는 거야.”

“와...”

감탄 밖에 나오지 않았다. 나는 살면서 한 번도 헌팅이란 걸 당해 본 적이 없었다.

나와는 반대로 대학 때부터 종종 헌팅을 당했던 정안이 뿌듯하게 웃으며 우쭐거렸다.

“내가 말했지. 밤새 드라마 보다 나갔다고. 쌩얼에, 눈은 퀭하지, 머리 떡졌지, 옷도 집에서 입고 있던 그대로 나가서 엄청 후줄근했는데도 헌팅을 당했다 이 말이야. 흐흐흣. 지안아, 이 언니 아직 죽지 않았다.”

“그러네. 살아 있네, 진정안.”

나는 픽 웃으며 맞장구 쳤다.

샌님의 용기를 높이 산 정안은 그에게 번호를 하사했고, 종종 연락을 주고 받게 됐다는 결말로 이야기를 마무리지었다.

어느덧 배가 불렀다.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평일이었으므로 2차는 가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까 정안에게 들었던 으름장이 떠올랐다.

‘걔가 돈이랑 귀중품 다 훔쳐 가면 어떡할래?’

에이, 설마.

...설마.

그럴 리 없다고 되뇌면서도 나는 어느새 난장판이 된 집 안을 상상하고 있었다.

온담의 운동화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현관, TV장이며 옷장이며 책상이며 서랍이 있는 가구마다 마구 튀어나온 서랍들, 사방에 널브러진 잡동사니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온담의 가출을 일탈로 치부하던 2반 담임보다 내가 더 나빴다. 하지만 자괴감보다 강한 불안이 내 걸음을 채찍질했다.

나는 거의 뛰다시피해서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달려 본 게 오랜만이기도 했고, 오래 달리기도 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동안에도 턱끝까지 차오른 숨이 쉬이 가라앉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기 전에 숨을 골랐다. 온담이 왜 뛰어 왔냐고 물어볼까 봐. 나의 의심이 그 애를 상처 입힐까 봐.

그러나 현관문을 연 순간 그런 걱정은 싹 증발했다.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던 난장판 또한 연기처럼 흩어졌다.

센서등 불빛 아래 드러난 현관에는 온담의 운동화 대신 검은색 남성용 구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우금이 와 있었다.

나는 우금의 구두에 시선을 고정한 채 제자리에 얼어붙었다. 우금이 와 있는데 타자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제야 저주받은 키보드가 학교에 나타났었다는 게, 퇴근할 때 챙기는 걸 깜빡했다는 게 생각났다.

집 안은 어둡고 적막했다. 아무도 없는 것처럼. 마치 우주처럼.

왜 이렇게 어두운가. 왜 이렇게 조용한가. 왜. 숨이 막혔다. 빛도, 소리도, 공기도 없는 곳에 나 홀로 서 있는 듯했다.

나는 정안을 만나러 가기 전에 우금에게 미리 연락해 두었다. 오늘 저녁엔 친구와 약속이 있으니 오지 말라고. 우금은 내가 집을 비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알고 온 것이다. 온담이 혼자 있는 내 집에.

‘그래도 다음엔 방해 안 받았으면 좋겠다.’

나직하게 속삭이던 목소리가 환청처럼 떠올랐다.

내가 꼼짝도 못하고 두려움에 떠는 동안 머리 위 센서등이 꺼지고 사위가 암흑에 잠겼다.

내 안의 공포가 어둠을 먹고 삽시간에 몸집을 불렸다. 이대로 몸을 돌려 도망치고 싶은 마음과 온담이 무사한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부딪쳤다.

이긴 건 후자였다. 나는 조심스레 신발을 벗었다.

“자기야...”

내 목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염소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온담아...”

형편없이 떨리는 목소리로 두 사람을 번갈아 부르며 거실에 들어섰을 때, 나는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를 뻔했다.

“...!”

캄캄한 거실 한가운데 커다란 남자가 우두커니 서 있었다. 어둠에 묻힌 채, 베란다 밖에서 비쳐 드는 불빛이 그리는 하얀 윤곽으로만 자리하고 있었다.

우금이었다. 나를 등지고 서 있었다. 온담은 보이지 않았다. 온담은 없었다. 그 애 운동화처럼.

불현듯 그저께 봤던 9시 뉴스가 떠올랐다.

내공산에서 20대 여성의 토막 시체가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긴 채 발견됐습니다...

그 사건의 범인이 우금일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끔찍한 상상을 멈출 수가 없었다.

온담의 눈 감은 얼굴. 파리한 낯빛. 축 늘어진 몸뚱이. 바닥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진 팔다리. 온담의 주변으로 퍼져 나가는 붉은 피. 그 피웅덩이를 밟고 서 있는 우금의 뒷모습. 무정하고, 무심하고, 무감한 등.

내 눈앞에 있는 이 등.

“주우금.”

부르는 소리에 우금이 천천히 뒤돌아섰다. 우금의 얼굴은 어둠에 묻혀 보이지 않았다.

“온담이는?”

“글쎄. 어디 있을 것 같아?”

반문하는 목소리에 어린 웃음기가 내 심장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이럴 줄 알았는데. 언젠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나는 숨통을 짓이기는 공포와, 가슴을 짓누르는 절망과, 내장을 불사르는 분노와, 뇌를 뒤흔드는 혼란에 떠밀려 우금의 멱살을 부여잡았다.

“온담이 어디 있어. 온담이 어쨌어!”

내 것 같지 않게 날카로운 목소리가 공기를 찢어발겼다.

“왜 그렇게 물어?”

어둠 속에서 우금의 고개가 갸웃 기울어지는 게 보였다.

“내가 온담이를 어떻게 했을 것 같은데?”

아차.

말문이 턱 막혔다. 얼음물을 뒤집어쓴 듯했다. 오싹한 한기가 뼛골까지 스며들었다.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우금 역시 아무 말이 없었다. 어둠과 정적 위로 무서운 침묵이 감돌았다.

딩동.

느닷없는 초인종 소리에 심장이 화들짝 튀어올랐다. 나와 우금은 동시에 고개를 돌려 인터폰을 쳐다보았다. 작고 네모난 화면에 떠오른 얼굴은 다름아닌 온담이었다.

나는 홱 돌아 현관으로 달려 나갔다. 문을 열자 한 손에 편의점 비닐봉투를 든 온담이 날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 쌤 언제 오셨어요?”

내 어깨 너머를 보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불은 왜 끄셨어요?”

탁, 하는 스위치 소리와 함께 집 안이 밝아졌다. 뒤돌아보니 우금이 거실 스위치 앞에서 겸연쩍게 웃고 있었다.

“내가 장난치느라.”

다리에 힘이 풀렸다. 나는 그대로 현관에 주저앉고 말았다. 장난. 장난이었다니.

“쌤! 괜찮아요? 왜 이러세요?”

허둥지둥 다가온 온담이 나를 부축하려 애썼다. 나는 망연히 주저앉아 내게 다가오는 우금을 바라보았다.

“많이 놀랐구나. 이렇게까지 놀랄 줄은 몰랐는데. 미안해, 지안아.”

우금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일으켜 주고, 소파로 데려가 앉혔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내 말실수 따위는 들은 적 없다는 듯이.

나는 어금니를 앙다물고 미친 듯이 펄떡이는 심장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머릿속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었다.

살짝 기울어진 우금의 고개, 어둠 속에서 가느다랗게 번뜩이는 눈빛, 그리고 의미심장한 목소리.

‘왜 그렇게 물어?’